

**Este documento faz parte do acervo do
Centro de Referência Paulo Fre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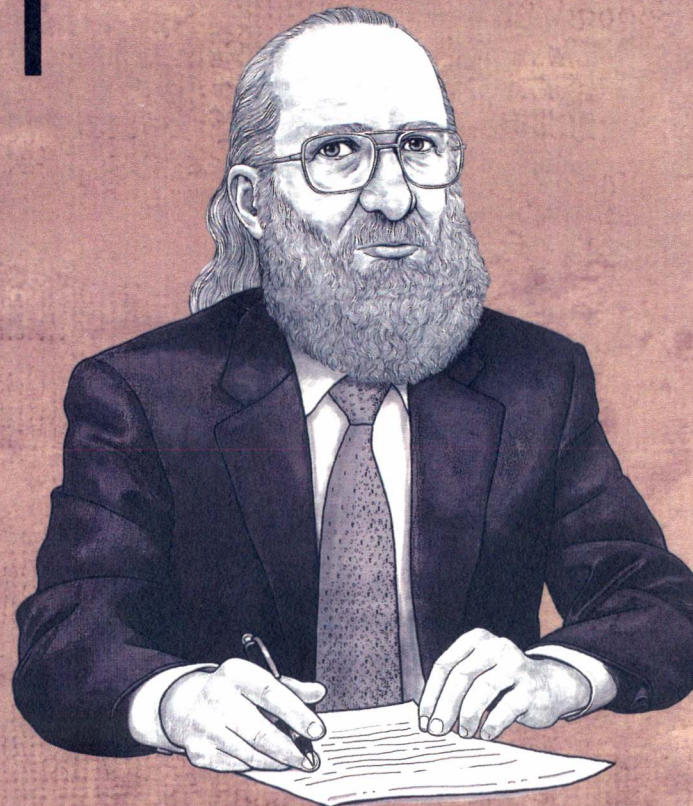
acervo.paulofreire.org



그의 삶과 사상

파울루 프레이리 읽기

모아시르 가도치 지음
백경숙·박내현 옮김



우리교육

지은이 모아시르 가도치 Moacir Gadotti

브라질 출신으로 파울루 프레이리와 20년 이상 함께 협력하며 일했다.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 교육 학부 교수이며 파울루 프레이리 인스티튜트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파울루 프레이리가 상파울루 교육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부터 함께 일했으며, 프레이리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동지이다. 브라질에서 교육 관련 저서를 여러 권 펴냈으며 가장 최근에 나온 저서는 《또 다른 가능한 세상을 위한 교육 Educac para um Outro Mundo Possível》 Brasil, 2007이다.

옮긴이 백경숙

현직 고등학교 영어 교사이며 세미나 네트워크 새움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서 영문학 비평을, 미국에서 영어 교수법을 전공하여 각각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학생들과 함께 읽으며 배우고 변화할 수 있는 교육과 사회문제를 다룬 좋은 책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소개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옮긴이 박내현

책과 글이 좋아 무작정 번역에 뛰어들었다. 교육과 복지,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하려고 노력 중이며, 언젠가는 그래도 전공이었던 독일어 책을 번역하고 싶은 바람이 있다. 정말 좋은 책이 세상을 만나기까지 도움이 되는 번역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의 삶과 사상

파울루 프레이리 읽기

그의 삶과 사상

파울루 프레이리 읽기

2012년 6월 29일 처음 펴냄

지은이 모아시르 가도치
옮긴이 백경숙, 박내현
펴낸이 신명철
편집장 장미희
편집 장원, 김지운
디자인 최희운
펴낸곳 (주)우리교육
등록 제 313-2001-52호
주소 (121-8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9-6
전화 02-3142-6770
팩스 02-3142-6772
홈페이지 www.uriedu.co.kr
인쇄 상지사 P&B

READING PAULO FREIRE: His Life and Work by Moacir Gadotti
Copyright © 1994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l rights reserved.
This Korean edition was published by Urikyoyuk Co., Ltd. in 2012
by arrangement with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New York through KCC(Korea Copyright Center Inc.), Seoul.

이 책은 (주)한국저작권센터(KCC)를 통해 저작권자와 독점 계약한 우리교육에서 펴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8040-680-7 03370

- *이 책의 내용을 쓰고자 할 때는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는 e-CIP홈페이지(<http://www.nl.go.kr/ecip>)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 제어번호:CIP2012002964)

그의 삶과 사상

파울루 프레이리 읽기

모아시르 가도치 지음
백경숙·박내현 옮김

우리교육

서문

상반된 나라와 모순의 교육학

브라질은 상반된 나라이다. 코르코바두 산과 세계적인 수준의 멋진 해변이 자아내는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근사한 히우지자네이루가 있는 땅. 하지만 금을 찾는 사람들과 여러 종류의 기업들에 의해 자신들의 땅에서 고통 받고 살해당한 지친 아마존 인디언들이 사는 땅이기도 하다. 브라질은 삼바나 라밤바와 같은 브라질 음악에서 표현되는 기쁨이 있고, 해변가나 공원 어디서나 축구를 즐기는 땅이지만 동시에 슬픔의 땅이며 도시의 모든 주요한 장소와 히우지자네이루 전역에 항상 폭력이 존재하는 땅이다. 메니누스 다 루아^{meninos da rua}, 즉 거리의 아이들에 대한 학살이 존재하고 브라질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도시와 농촌 빈민의 숫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경제 중 산업력에서 10위를 차지하며 1991년 GNP 3750

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브라질은 빈껍이는 부와 가난의 쓴맛으로 덧입혀져 있다. 파울루 프레이리에 관한 이 책에는 가난이 자리 잡고 있으며, 상파울루 대학의 교수인 저자 모아시르 가도치의 개인적인 경험이 이야기된다.

모아시르 가도치는 반세기 전 남브라질의 산타카타리나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이탈리아 농부의 가정에서 가운데 아들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형제들 열 명 사이에서 이탈리아어를 사용했으며, 학교에서 국어인 포르투갈어를 배웠다. 언어에 대한 몰입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그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영어, 독일어, 라틴어 그리고 그리스어까지 공부했다. 가도치는 브라질에서 철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했으며 1977년 스위스의 제네바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마쳤다. 많은 브라질 지식인들처럼 가도치는, 1964년 권력을 장악하고 파울루 프레이리를 포함한 많은 브라질 지식인들을 망명 보낸 극악한 군부 정권의 권위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1977년 브라질로 돌아왔다.

브라질에서 권위주의에 대항해서 전개한 투쟁과 자신이 1970년대 초 제네바에서 만났던 파울루 프레이리의 저작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도치는 자신의 학문적 이력을 쌓기 시작했다. 브라질로 돌아온 많은 브라질의 교수들처럼 가도치는 살아가기 위해 두 대학에서 일해야 했다. 그는

상파울루 가톨릭 대학과 100킬로미터쯤 떨어진 캄피나스 대학(UNICAMP, 이곳은 브라질 최고의 연구 대학 중 하나이다)에서 교육철학 교수로서 근무했다.

모순과 저항 그리고 해방의 실천이라는 개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둔 교육철학자에게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는 그의 연구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했다. 상파울루 주는 군사 정부에 대항하는 중심지였다. 1978년과 1979년에 상파울루에 있는 산업 지역인 상베르나르두의 금속 노동자들이 일으킨 파업은 브라질 전역에 파업을 촉발시켰고,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노동자는 300만 명이 넘었다. 1979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다양한 모임에서 의회와 조합 지도자들 그리고 가도치와 같은 지식인들을 포함한 사람들 100여 명은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노동자의 정당 혹은 노동자당 PT(파르티두 도스 트라바야두레스-Partido dos Trabalhadores)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1980년 2월 10일 정당 창립식에서 가도치는 제네바로부터 새롭게 창립된 대중 정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파울루 프레이리를 대신하여 서명했다. 1980년과 1982년 사이 PT는 수천 명에서 21만 2천 명의 당원을 가진 정당으로 성장하였고 1982년 2월 11일 국가 정치 정당으로서 임시 등록을 공식적으로 승인받게 된다.

PT는 브라질의 민주화 과정에서 강력한 역할을 해 왔다. 지도자인 금속 노동자 루이스 이나치오 룰라 다 시우

바(이하 룰라)는, 브라질 의회에 의해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인 칼라가 당선되었던 1989년 대통령 선거에서 차점을 획득했다. 오늘날 룰라는 정치 진영에서 1994년에 치르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 선거는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정부의 지형에서 좌파 후보자에게는 꽤 중요한 상황이다.

수년 동안 가도치는 상파울루에서 PT의 교육위원회 의장을 맡았으며 브라질을 위해 사회민주주의적 교육정책을 다양화하는 것을 도왔다. 1989년 PT가 상파울루 지방자치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가도치는 시장인 루이자 에룬디냐에 의해 상파울루 지자체의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파울루 프레이리와 함께하게 되었으며 프레이리가 1991년 저술과 강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사임할 때까지 프레이리 내각의 수장 역할을 했다.

가도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무상이고 의무적이며 강제적인 공교육의 전통을 가진 학교교육(학교 자율권, 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민주적인 접근의 주요한 요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민중 공립학교라는 개념에 대해 본질적인 접근을 전개했다.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가도치의 관점은 파울루 프레이리가 40년 넘게 옹호했던 입장과 매우 유사했다. 프레이리와 이론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이 일치하고 오랫동안 우정을 나눈 가도치는 프레이리가 학계와 정부의 보수주의자들의 무수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제

네바 망명 생활을 마치고 1980년 브라질로 돌아왔을 때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도움을 주었다.

가도치는 20년 동안 프레이리와 관계하면서 저작 활동을 펼쳤는데, 이 책에서 프레이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관점과 전기적인 분석을 보여 준다. 초중등 교사들을 위해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저술된 이 책은 생생하고 체험적인 설명을 풍부하게 담고 있다. 또한 브라질 등지에서 펼친 프레이리 활동에 대한 사진 자료를 제공하며 프레이리에게 영향을 주었던 원천들에 대해 다룬 여러 저작들에 대한 설명과 《폐다가지: 피억압자를 위한 교육학》을 만든 이의 정치철학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다.

상반된 나라, 브라질은 보편성과 특이성 간의 모순을 해결 방식으로 보여 준다. 브라질 북동쪽에서 프레이리가 원래 제안했던 것들과 전 세계에서 그의 저작이 일으킨 반향 간의 변증법적 긴장 관계를 논의하면서 가도치는 이 특징을 잘 서술하였다. 질 높은 서술과 분석, 그리고 특이성과 보편성 간의 긴장 관계는 파울루 프레이리에 관한 이 책이 불완전한 현대 독자들에게 특히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다가가도록 만든다.

1993년 9월, 캘리포니아 아구라에서
카를루스 알베르투 토히즈

지금까지 브라질의 파울루 프레이리만큼 폭넓은 찬사와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교육자는 거의 없다. 프레이리는 비판적 사회 이론의 발전에 두드러지게 기여했다. 문해 교육 캠페인과 교육 운동을 펼치고 여러 정치·교육 사업에 관여함으로써 국제적인 규모에서 교육학의 의미, 역사 형성과 교육학의 관계에 대한 대변역을 일으켰다.

프레이리는 세계 무대에서 “시대의 인물”로 존재하면서 인종, 성별, 계급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능성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힘과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역사적으로 견고한 자신들의 언어 세계를 떨치고 벗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제공했다. 비판적 교육학으로 알려진 자신의 교육철학의 기수로서 프레이리는 억압적 현실 상황을 중심으로 한 교육적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회, 문화, 제도적 맥락에서 직면하는, 자본에 봉사하는 합리적이고 명료한 의미를 지닌 거대 서사로 가장한 지배 논리의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한다.

자신의 교육학을 교조적 절대주의에 묶어 두기보다 프레이리의 관심은 항상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에 고정되어 있다. 정치적 전망에 대한 존중의 측면에서나 또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 방식에 있어서나 프레이리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중요한 교육자들에게서 사랑받았던 점은 바로 그가 실용주의와 사랑과 연대의 윤리 안에서 일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모아시르 가도치가 쓴 이 책은 해방을 위한 실천에 지금도 계속 공헌하고 있는 프레이리의 사상에 대한 기념비 그 이상이다. 이 책은 프레이리의 삶을 형성해 온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과 그의 해방 철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개인적 논평이며 섬세한 해석이다. 저명한 교육 이론가이자 프레이리 연구에서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가도치는 프레이리의 중심 사상과 업적에 대하여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상세하고 애정 어린 논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가도치는 프레이리를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책무와 피억압자들의 해방을 양분하지 않으려 애쓰는” 혁명가인 “전투적 교육자”로 명명한다. 가도치는 생생하면서도 때

로는 가슴 아픈 일화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 프레이리가 받은 비난과 투옥 생활, 그리고 프레이리를 “국제적 체제 전복자”이자 “그리스도와 브라질 국민들에 대한 반역자”로 기소하고, 그의 저술이 “스탈린, 히틀러, 페론, 무솔리니”와 유사하다고 프레이리를 비난했던 1964년의 브라질 군사 쿠데타 주도 세력에 의한 망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 교회 협의회와 함께한 10년간의 국제 봉사와 1980년 3월에 있었던 브라질로의 귀국, 그리고 상파울루 교육부장관직과 상파울루 문해 교육 운동 MOVA-SP(프레이리와 페드루 폰투알의 연구에 기초한 것으로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의 개시 등에 이르기까지 예리한 통찰력으로 프레이리가 겪은 격동의 역사를 꿰뚫고 있다.

가도치는 프레이리의 작업을 추진시켰던 중심 사상들과 주제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고찰하였다. 그중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프레이리의 대화 개념(가도치는 이것을 “사랑, 겸손, 희망, 신뢰, 그리고 자신감에 의해 자라나는……수평적 관계”라고 묘사한다)으로부터 일관성, 민주적 급진주의, 시민권 회복, 그리고 학제 간 연구에 이르는 그의 사상 등이다. 기니비사우에서 아밀카르 카브랄의 PAIGC, 앙골라의 MPLA, 그리고 모잠비크에서 FRELIMO 등과 함께한 프레이리 초기의 반식민주의 투쟁과 관련되어 있든 아니든 조국인 브라질의 노동자당에 대한 기여이든 간에 우리는 프레이리의 업적에 관한 가도치의 논의를 통하여

가능성 있는 일에 대한 프레이리 자신의 실천과 프레이리 사상의 지속적인 발전 간의 극도로 밀접한 관련성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

이 책은 프레이리의 연구에 대체로 무지한 북미의 교육·문화 활동가들에게서 분명히 귀중한 것으로 판명될 많은 중요한 개념적 주제들을 강조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교육적, 문화적, 제도적 실행 속에서 지식이 “삶의 행위”로 깊이 각인되고 강조되는 방식이다. 또 한 가지는 바로 프레이리의 실천 속에서 윤리적·이성적 영역들이 변증법적으로 다시 점화되고 상호 구성되는 과정이다. 제도화된 학교교육에서 권력이 개인주의와 소비주의 윤리학에 기초한 시민 모델을 소개하는 것과 기술주의적 추론을 강조하는 특정한 지식 체제 내에서 어떻게 그 상관관계를 찾아내는지에 관한 프레이리의 개념적 이해 또한 고양되고 있다. 가도치가 재빨리 인정하듯이, 프레이리의 업적 중에서 큰 강점 중 하나는 바로 이해 가능한 체계와 사회 구성체와 국가 역할의 기저에 권력이 존재하는 방식을 인지했다는 점이다. 정치의 미학화(발터 벤야민은 이것이 파시즘의 피할 수 없는 표식이라고 결론 내렸다)에 저항하여 프레이리는 커다란 해석학적인 힘이 위대한 스승의 존재에 기인한다고 믿는 형태의 교육학을 일관되게 공격하였으며 그는 수행적 방식의 대화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프레이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교육 전문가들만

을 위한 해석상의 실행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지배와 피 지배, 권력과 특권, 긍정과 부정의 지배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절망 속에서의 체념과 희망에 대한 헌신과 충성 사이에서 생기는 긴장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시험하고 도전하면서, 그리고 분석하는 언어를 발전시키면서 자신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역사적으로 열려 있는 능력 속에 위치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도치는 반동적인 분파주의에 대항한 프레이리의 혁명적 급진성과 전통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정치적 침묵에 반하는 전투 의식을 종종 매우 단순 명쾌하게 포착한다.

이 책의 마지막 장들에서 프레이리의 저작은 칼 로저스, 이반 일리치, 존 듀이, 그리고 레프 비고츠키 등의 기여에 대해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 책은 파울루 프레이리의 생애와 업적을 “대중 성인 문해 계획”이라는 협소한 맥락에서 빼내어 교육과 문화 정치라는 훨씬 더 넓고 깊은 시각 속에 위치시키는 데 성공했다. 마지막 에필로그는 프레이리와 가도치가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감상이나 묵시론적 함축이 없는 방식으로 이제 70대가 된 성숙한 프레이리의 정신을 포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프레이리의 목소리를 듣는다. 자부심 강하지만 매우 겸손한 정신을 가진 전사인 프레이리는 자신이 현실 교육에 관한 기여하는 것을 행복의 보

헤미안적 교육학에 관여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즉 이것은 고대 현인의 지혜와 사회주의 혁명가의 변함없는 열정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웃음, 질문, 호기심, 현재를 통해 미래를 보는 교육학으로, 또 세계의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 그리고 가능성으로서의 역사를 믿는 교육학으로 그가 정교하게 만들어 낸 교육학이다.

피터 맥라렌
헨리 지루

차례

서문 | 상반된 나라의 모순의 교육학 5

서문 10

서론 18

1 망고나무 그늘에서도 배울 수 있다 24

2 파울루 프레이리는 어떻게 망명하게 되었나 42

3 역사로부터 배우기 63

4 해방의 교육학 85

5 브라질을 다시 배우다 109

6 혁명적인 교육자 132

7 동시대의 교육학적 사상 맥락 속에서 본
파울루 프레이리 161

결론 193

에필로그 | 세기 말의 교육

파울루 프레이리와 나눈 대화 206

주석 223

파울루 프레이리의 주요 작업들 230

국내에 소개된 파울루 프레이리의 저작들 234

옮긴이의 말 235

파울루 프레이리의 업적을 소개하는 이 책은 그의 활동을 잘 모르는 독자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었다. 나는 교육에 대한 그의 생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기술하고, 그다음 그것들을 프레이리의 일생과 역사적인 맥락에 연결하도록 하겠다.

이런 특징들을 지닌 책을 쓰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인 일이다. 우선, 파울루 프레이리의 활동 범위를 정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의 활동은 오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며 수백 개의 연설과 글, 담화와 인터뷰를 포함한다. 그가 말하고 쓰고 기록한 모든 것들을 다루겠다는 시도는 사실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투쟁과 그의 역사 문화적인 유산을 관통하는 그의 입장과

교육에 대한 철학에 주목하는 것이다.

나는 파울루 프레이리 자신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승리와 패배를 통해 배우는 방식으로 교육에 관한 책을 쓰려고 시도했었다. 나는 그의 삶과 활동이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시간의 순서를 따르려고 노력했다. 많은 경우에서 나는 파울루 프레이리의 활동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상당히 많은 서신들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문서로서 그것들은 매우 흥미로우며 그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는 파울루 프레이리의 인간성을 알 수 있다. 그 서신들은 프레이리와 긴밀히 접촉했던 사람들과 그의 존재, 그의 관심, 그리고 모든 의사소통에서 그가 보여 준 진지함에서 깨우침을 얻은 사람들이 작성했다. 두 개의 사례를 보도록 하자.

1983년 9월 19일, 자신의 생일날에 프레이리는 상파울루 주의 상페드루에 있는 공립학교 학생들 스물네 명에게서 “아이들을 영원히 계속해서 사랑해 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받았다. 9월 28일 파울루 프레이리는 이 편지에 답장을 했다.

사랑하는 구스타보 테이세이라 학교의 1학년 친구들에게,
저는 오늘 캄피나스 대학에서 여러분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이들을 계속 사랑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했

을 때 저에 대해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이 저의 생일날 편지를 썼다는 우연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이날 제 손자 손녀 일곱 명이 저녁을 먹으러 저희 집에 와서 자신들이 고른 선물을 제게 주고 저와 함께 놀았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저는 인생을 아주아주 사랑합니다.

사랑을 담아
파울루 프레이리

이와 같은 애정이 담긴 많은 사례들과 그의 저작에 대한 내용 그리고 도움을 준 사람들의 사진들이 있었다. 그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은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이었고, 내가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이 책을 쓸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책을 구성하고 있었을 때, 나는 이 책이 고등학교 학생들과 미래의 선생님들, 즉 그들이 택한, 아이들을 다룬다는 직업에 대한 애정과 희망으로 가득할 사람들과 가르치는 직업으로 수년간 지낸 후에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서 모든 열정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읽힐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책이 그들에게 불

리한 상황에서도 교육에 헌신했던, 그렇지만 이러한 역경과 한계를 활용할 수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배울 수 있었던 한 삶의 예시를 보여 줄 수 있기 바란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자신의 교육을 위해 더 나은 결과들을 기계적으로 뽑아낼 수 있게 하는 마술과 같은 공식을 찾아서는 안 된다. 나는 파울루 프레이리 철학의 필수적인 부분인 구체적인 제안들에 대한 분석은 전혀 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 세계 여러 곳에서 활동한 결과인 그의 광대한 경험과 이론은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매우 다양한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울 것이 틀림없다.

파울루 프레이리 사상의 중요성은 단순히 그것의 보편적인 가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 상황이 파울루 프레이리가 그의 생각들을 발전시켰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문명화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교육의 중요성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오늘날의 젊은 교육자들이 직면하게 될 매우 분명한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파울루 프레이리와 같은 낙관적인 교육자의 삶과 활동은 우리가 사회를 새롭게 건설하고자 하는 집단적인 임무를 지속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 임무에서 교육자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결국에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파울루 프레이리와 그의 저작에 대한 몇 가지 해설을 살펴보자.

파울루 프레이리를 어느 학교의 교육자로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린다 밤비(Linda Bambi)는 《페다고지》 이탈리아어 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를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인류와 국가에 관련된 그의 본능적인 표현, 즉 제도와는 완전히 불일치한 그 성질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 세계의 진정한 지식인을 대변하며, 지금 나타나서 역사가 될 사람들 중 하나이다.”

프레이리는 그람시가 말한, 새로운 종류의 지적이고 ‘유기적인’ 인간으로 인식되었다. 유명한 철학가이자 작가인 로제 가로디는 ‘인간의 얼굴’을 지닌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사례로서 그리고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문제에서 제 3세계 나라들의 중요한 사례로서 파울루 프레이리의 저작을 인용했다. 그는 파울루 프레이리가 “피억압자의 교육학”과 “자유의 실천”을 통해 사람들의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양심을 일깨우는 임무를 문해와 교육 분야에 던져 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시대의 위대한 교육자”가 브라질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1986년 8월, 뉴욕타임스는 다양한 교육 제도를 조직하

는 데 있어 파울루 프레이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 기사를 실었다.

그는 ‘문해 운동의 위대한 전문가이자 세계적인 급진적 교육자’라고 불렸으며, 여기서 ‘급진적인’이라는 의미는 ‘좌파’라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파울루 프레이리의 사상은 여성 운동가, 흑인, 그리고 히스패닉계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으며 건강, 경제, 그리고 사회학과 같은 다른 분야에도 차용되었다.

그러나 그의 교육 사상들은 라틴아메리카 전역과 아프리카 그리고 고도로 발전한 나라들에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나라에서는 지배계급의 저항을 받아야 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자, 파울루 프레이리는 누구인가?

1 망고나무 그늘에서도 배울 수 있다

파울루 헤글루스 네베스 프레이리 Paulo Reglus Neves Freire는 1921년 9월 19일, 브라질 카사 아마렐라 지역에 있는 헤시페의 엔카나멩투 724번지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히우그란지두노르지치 출신인 군인 조아킴 테미스토클레스 프레이리 Joaquim Temistocles Freire였고 어머니 에델투르지스 네베스 프레이리 Edetrudes Neves Freire는 브라질 페르남부쿠 출신의 재봉사이자 주부였다. 헤글루스 Regulus라는 이름은 원래는 헤-구-루스 Re-gu-lus가 되었어야 했지만 등기소에서 아버지의 실수로 그렇게 되었다. 10대 시절부터 그는 그냥 파울루 프레이리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열 살이 어렸다. 유심론자였던 그녀는 고등학교를 마쳤고 불어를 유창하게 말했다. 프레이리의 부모 모두 20세기 초 브라질의 가부장적이고

남성적인 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네 자녀 중 막내였는데, 자녀 중 둘은 파울루가 미쳐 얼굴을 제대로 익히기도 전에 일찍 사망했다. 파울루 프레이리가 받은 교육의 첫 단계는 다소 엄격한 것이었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나의 아버지는 항상 자유와 권위라는 상반되는 양극 사이의 중간쯤에 계셨다. 그는 육군 장교였지만 권위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성품과는 무척 달랐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이셨다. 아버지도 매우 다정다감한 분이었지만 어머니만큼 상냥하지는 않았다.”¹

파울루 프레이리는 자신이 태어난 집 마당에 있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부모와 함께 읽기를 배웠다. 그는 어린 시절에 부모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 아닌 자신의 말을 통해 읽기를 배웠다. 이런 경험은 후에 그의 연구 활동에 영향을 끼쳤다. 그가 그늘 아래서 읽기를 배웠던 망고나무의 잔가지가 그에게는 분필이었고 땅바닥은 칠판이었다. 이러한 지식 형성 과정과 지식 자체는 모두 취학 전에 비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습득된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고 자유로우며 전혀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유치원인 셈이었다.

파울루 프레이리가 처음 다닌 학교는 작은 사립학교였는데 그 학교를 소유하고 있던 교사는 1978년에 사망했

다. 프레이리는 학교에 갈 때 이미 알파벳을 알고 있었고 쓰기에도 능했다. 그는 그 학교를 단지 1년 조금 넘게 다녔을 뿐이었지만, 거기서 배웠던 '문장 만들기'라는 것을 결코 잊지 못했다. 그것은 프레이리가 무척이나 좋아하던 연습 과정이었는데 선생님은 그에게 두세 단어를 쓰도록 한 다음 그 단어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말해 보도록 했다. 그 선생님은 아이가 표현력을 스스로 연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고한 도덕적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선생님은 종종 파울루 프레이리가 글을 쓸 때 실수가 있으면 과정 중이나 후에 교정을 해 주고는 했다. 거기에는 어떤 추상적 관념도 없었다.

이 학교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동사에 관해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가지다'라는 직설법 현재 시제를 단순히 암기하는 대신, 그는 그 동사의 과거 시제를 직접 과거 상황에서 체험했던 것처럼 현재 시제에서도 같은 식으로 직접 체험하며 익혔다. 프레이리는 동사를 이런 식으로 공부했으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사를 가르치는 방식인 기계적인 암기를 통한 공부가 아니었다. 즉, "나는 ~이다 I am"라는 것은 단지 동사 시제를 암송하는 것일 뿐이며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자신을 못생겼다고 생각했던 소년

파울루 프레이리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브라질 북동부 출신 대다수가 그렇듯이 배고픔과 비참함의 의미를 어린 나이부터 알게 되었다. 그가 여덟 살 때인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의 여파가 브라질 북동부에서도 감지되었다. 1931년에 그의 가족은 대공황의 경제 위기로 인하여 헤시페에서 18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자보아탕으로 이주했는데 그곳에서는 살림살이가 조금은 나아졌다. 그러다가 파울루 프레이리가 열세 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는 학업을 연기해야만 했다. 프레이리는 열여섯 살 때 겨우 지나지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첫 학년만 다섯 번째 다니는 것이었다. 급우들은 모두 열한 살이나 열두 살이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급우들 대다수가 잘 먹고 옷을 잘 차려 입었으며, 나름의 문화를 가진 집안 출신들이었다고 회상했다.

"나는 키가 컸고 호느적거리듯 움직였고 너무 짧은 바지를 입고 다녀서 놀림당할 각오를 해야 했다. 바지가 다리 길이보다 짧았던 것이다."²

그는 자신이 못생긴 10대 소년이라고 생각했으며 너무 마른 자신의 신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급우들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더 적절하

고 똑똑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수업 중에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는 자보아탕에서 사는 동안 소란스러운 축구 경기를 하면서 가난한 농촌 가정 출신의 자녀들이나 언덕과 운하 근처에 사는 노동자들의 자녀들과도 어울렸다.

“그들과 함께 어울렸던 경험은 생각하고 표현하는 다른 방식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것은 민중들의 문법이고 민중들의 언어였으며, 민중들의 교육자로서 나는 지금도 이 언어를 철저히 이해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³

파울루 프레이리는 어떤 종류든 정규 교육에 동화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이른 나이인 고등학생 시절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기 3년 전만 해도 자신이 쥐를 뜻하는 ‘rato’라는 단어를 두 개의 ‘r’로 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파울루 프레이리의 어머니는 가톨릭 신앙 안에서 그를 양육했는데 이것은 프레이리의 교육 이론과 실천 양쪽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사실 그는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운동⁴의 열성 활동가였다. 프레이리는 자신이 기독교의 영향하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기독교를 진보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억압자들의 교회라고 부른 것을 피억압자들의 교회인 예언 교회^{prophetic church}와 대립시키면서 비판

하고는 했다.

“예언 교회는 희망의 교회이다. 희망은 미래에만, 즉 억압받는 사람들만이 가지는 미래에만 존재한다. 지배계급의 미래는 억압자인 현재 상태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⁵

파울루 프레이리는 종종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는 했는데 프레이리의 어머니는 그가 망명 중이던 1978년에 사망했다.

프레이리는 스무 살이 넘어서 헤시페 대학 법학부에 들어갔다. 그 후 그는 아이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던 다섯 살 연상의 초등학교 교사인 이우자 마리아 코스타 지 올리베이라^{Elza Maia Costa de Oliveira}를 만났다. 그들은 1944년에 결혼했는데 그때 스물세 살이었던 프레이리는 중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연구에 체계적으로 전념하도록 격려했던 것은 바로 부인 이우자였다. 또한 그녀는 그를 유명하게 만든 방법론을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을 돕기도 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항상 지극한 애정을 가지고 이우자를 언급했다. “그녀와의 만남은 내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만남들 중의 하나였다.”라고 그는 말한 적이 있다. 그들은 마리아 마달레나^{Maria Madalena}, 마리아 크리스치나^{Maria Cristina}, 마리아 지 파치마^{Maria de Fatima}, 조아킴^{Joaquim}, 루트가지스^{Lutgardes} 이렇게 다섯 자녀를 두었다. 세 딸들

은 아버지의 족적을 따라 교육자가 되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이렇게 말한다.

“이우자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내 인생에서 그녀는 영원한 존재이며 자극이 된다. 예를 들면, 1964년에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이우자는 나를 방문하면서 같은 감방에 있던 모든 동료들을 위해 음식을 잔뜩 싸 가지고 왔다. 그녀는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보세요, 만약에 당신이 좀 더 생각을 했었더라면……. 당신이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기 있지는 않을 텐데.’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와의 유대감은 총체적인 것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⁶

파울루 프레이리는 “애뜻한 짝”⁷으로 40년간 이우자와 애정 어린 결혼 생활을 한 후에 1986년 10월 24일 그녀를 잃었다.

열정 어린 가르침

나는 무척이나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공부를 할 수 없었다. 나는 수업 중에 집중하고 읽으려고 애썼지만 배고픔 때문에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명칭하지도 흥미가 없지도 않았다. 다만 나의 사회

적 조건이 나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놔두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다시 한 번 사회 계급과 지식 간의 관계를 경험을 통하여 직시하게 되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우리 형이 일을 해서 가사를 돕기 시작했고 나는 좀 더 먹을 수가 있었다. 그 당시에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에 다니고 있었는데 항상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먹는 것이 나아지자 나는 읽는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다. 언어를 좋아해서 문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가 바로 이 무렵이었다. 나는 혼자서 언어철학을 연구했고 18세인가 19세가 되었을 때 구조주의와 언어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포르투갈어 문법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언어에 대한 애정과 철학, 그리고 학생들이 기대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들을 대화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15세에서 23세 사이의 어느 시점인가에 나는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⁸

1946년, 파울루 프레이리는 다시 헤시페에서 살면서 산업복지국SESI, Social Service of Industry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 후 8년간 그곳에서 일했다.

SESI는 고용주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구였다. 파울루 프레이리에 따르면 그 단체는 “노동계급의 의식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혼란시키고 노동계급이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획득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



1950년대 초반 헤시페에서 SESI의 교육 국장으로 일하던 파울루 프레이리

해"⁹ 설립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는 현실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 바로 여기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노동계급과 말하는 법을 배웠으며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 세계에 대해 배우는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그는 교육자가 되었고 실천을 통하여 앞으로 항상 그와 함께할 어떤 것을 배웠다. 그것은 바로 항상 실천을 생각하라는 것이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SESI의 교육 부서 책임자가 되었고, 교사들과 학생들의 일을 조정하는 동시에 그들의 가족들과도 함께 일했다. 이렇게 학교와 가정을 접촉하면서 그는 피아제의 아동에 관한 도덕론¹⁰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

에 관한 토론이 현실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아이를 때리는 아버지가 문제를 실감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먹고살기 힘든 누군가의 어려움에 관해 토론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SESI에서 학생, 교사, 부모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책임을 맡았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반엘리트주의와 반이상주의 교육학의 뿌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교육이 노동계급 가족들에게 “이상주의적” 요소들을 주입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생기는 실수들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프레이리는 그들의 문제점들이 중산층의 언어와 노동자들의 대중 언어 사이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민중들의 언어를 연구하는 것이 그의 대중 교육과 교육학에 관한 연구를 전개하는 시작점이었다.

이 시기에 그는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을 했다. 바로 그가 헤시페에서의 대중 문화 운동MCP, Movement for Popular Culture에 참여한 것¹¹과 포르투갈어 교사로서 대중 언어와 학문 언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그는 주제 릅스 두 헤구Jose Lins do Rego, 그라실리아누 하무스Graciliano Ramos, 조르지 아마두Jorge Amado, 질베르투 프레이리Gilberto Freyre와 같은 브라질의 주요 작가들의 책을

읽었다.

나는 그들의 책을 많이 읽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언어의 심미적 창조성으로 인해 나는 짧은 문법 교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나는 스무 살 무렵 내가 가르치던 문법 수업이 오늘날 얼마나 변화했는지 기억한다. 그 당시에 중요한 것은 단지 규칙을 무시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젊었을 때 나는 아름다움과 창의력이 문법적 정확성의 노예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웠다. 이것은 곧 창의력은 자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젊은 교사였던 나는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었고 창의력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 이것은 또한 나중에 내가 가르침에서의 창의력이라는 것이 정치에서의 창의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었다. 권위주의적인 수업teaching이나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는 창의력에 필수 불가결한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의력이 필요하다.¹²

파울루 프레이리는 부인 이우자의 자극을 받아 교육에 전념하게 되면서 첫 번째 사건을 수임한 직후에 변호사 일을 미련 없이 그만두었다. 프레이리 자신은 그 점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수임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수줍고 겁에 질린 젊은 치과 의사였던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눈 뒤 나는 수임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가 이런 부류의 변호사

여서 그는 기뻐했고 나는 이런 부류의 변호사 일을 포기하고는 기뻐했다.”¹³

파울루 프레이리는 헤시페 대학의 문화 확대 지원Cultural Extension Service 과정의 창설자들 중 한 명이자 초대 책임자가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성인들에게 읽고 쓰기를 가르치는 새로운 교수법에 관한 첫 번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1958년에 페르남부쿠에서 열린 지역 예비 세미나에서 “성인 교육과 한계 계층:모캄보스(Mocamcos, 브라질 북동부의 빈곤 지역)의 문제점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1959년 파울루 프레이리는 ‘브라질 교육 현황 Present-day Education in Brazil’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는 이 논문으로 헤시페 대학교 미술대학의 교육 역사-철학 학과장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였으며 또한 이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에서 그의 교육 이론과 실천의 싹을 발견할 수 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브라질의 학교교육을 비판하고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개혁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 내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의 연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제안이다……. 그의 이러한 방식은 강압적이지는 않지만 그가 받아들인 결정적인 관점을 드러낸다. 그 관점이란 브라질의 학교교육을 따져 보는 것은

추상 명제들이 갖고 있는 공허함 속에서는 결코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이다.”¹⁴

파울루 프레이리가 이 시기에 진행한 연구는 민족주의와 발전주의로 뚜렷이 특징지어진다. 이것은 브라질학 고등 연구소 ISEB, Higher Institute for Brazilian Studies¹⁵와 연결되어 있던 작가들의 영향 때문이었는데 이 단체에는 롤란드 코르비시에 Roland Corbisier, 알바루 비에이라 핀투 Alvaro Vieira Pinto, 알베르투 게헤이루 하무스 Alberto Guerreiro Ramos와 같은 인물들이 속해 있었다.

비록 이 논문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너무 순진한 제안들을 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파울루 프레이리 자신이 깨닫기는 했지만 사실 그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후에 그가 말하듯이¹⁶, 그는 “민주주의의 연습 과정에서 자신들이 오가는 거리와 노동조합과 자녀들의 학교와 자신들의 거주 구역 내의 기본적 시설들과 심지어는 자신들이 만들어 내는 생산물에 대해 토론하는 보통 사람들 집단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나는 1959년에 말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브라질에서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핵심 요소들은 어떤 두려움도 없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계속 말하고 있다. 그리고 종결되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사회민주주의자 좌파들에게서 발견되는 광적 집착인 것이다.”¹⁷

다음 해에 “브라질의 초등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을 했을 때, 프레이리는 초등교육의 문제는 많은 학생들에 비해 학교 수가 너무 적은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으로의 “끼어들기^{insertion}”의 결여라는 자신의 생각을 옹호했다. 이러한 참여 없이는 학교가 어떤 희망도 줄 수 없으며 “국가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민주주의의 증진과 관련하여 학교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없다.” 주석에서 그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브라질 북동부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읽기 책에 민요 선집을 포함하는 것을 왜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민요는 미학적이면서도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¹⁸

이와 같은 초등학교 교육의 불충분함 외에도 파울루 프레이리는 초등학교의 구체적 기능들을 수행하는 데 유기성^{organicity}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낸다.

우리가 현재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학교 형태는 바로 당신이 실제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교육자들과 함께 학교의 지성주의를 비판할 때, 학과목들과 훈육이 약화되는 학교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오늘날과 같이 가르침과 배움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읽고 쓰고 말하기를 배우는 것, 역사와 지리 공부하기, 나라의 전체적인

상황과 처지 이해하기. 우리가 현재 맞서 싸우고 있는 지성주의는 이렇게 텅 비고 공허한 시끄러운 장광설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심지어 오늘날 우리를 대부분 키워 내는 환경들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다.¹⁹

이 시기에 파울루 프레이리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최근에서야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 즉, 학부모 협회와 학생 협회의 설립과 교육적 목표를 가진 학교 위원회의 설립이다. 이 조직들은 비판적인 의식 형성과 대중조직을 연결하게 될 것이다.

공부한다는 것

사실 공부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그것은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또한 연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적인 훈련을 요구한다.

'은행예금식 교육banking education'²⁰은 분명히 이것을 조장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 정도로 그치기는커녕, 은행예금식 교육은 학생들 안에 있는 호기심과 창의력과 알고자 하는 어떤 정신조차도 죽인다. 그 교육에서 "훈육"은 반드시 필요한 비판적인 요소와 반대되는, 교과서 앞에서 채주 부리기 훈련이다.

학생들이 거쳐야 하는 이러한 순진한(ingenuous (교육)과정은 다른 여러 요소들과 함께 학생들로 하여금 순전히 기계적인 독해 능력을 갖게 만들어 결국 텍스트와는 무관하게 전혀 다른 곳을 헤매게 만든다. 학생들은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단지 그것을 암기하도록 요구받는다. 혹 어떤 학생이 이것을 어떻게라도 가까스로 해낸다면 학생은 그 과제를 해결하게 되는 셈이다.

좀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상황이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텍스트의 한 부분을 읽고 있는 학생은 전체 텍스트를 이해하고 싶다는 도전 의식을 가지게 되어야 하며 그 텍스트의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공부라는 행위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근본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는 그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공부하는 행위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저자가 쓴 마법의 단어들로 인해 자석에 끌려가듯 학습자가 텍스트로 끌려간다면 진지한 공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공부는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며, "길들여지는 것"이고, 저자의 주장을 단지 외우려고 노력할 뿐이며, 저자가 말하는 것에 의해 "점령당하는" 것이며, 그 텍스트의 내용에 의해 채워지는 빈 그릇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텍스트를 진지하게 공부한다는 것은 그 저자가 그것을 쓰기 위하여 공부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 공부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지식을 역사-사회적으로 조건 짓기 historicosociological conditioning of knowledge'에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면밀히 조사한 지식의 내용과 그 지식의 다른 관련 분야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부한다는 것은 요구하고 재창조하고 다시 쓰는 것이며 대상object이 아닌 주체subject를 위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학습자가 텍스트로부터 달아나거나 텍스트를 대하는 비판적인 태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책의 한 페이지를 건너 뛰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 봐야 당신은 계속 실타래를 풀어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타고난 재능처럼 당신에게 주어진 무언가가 아니다. 그것은 어쩔 줄 모르고 찢찢매는 독자로 하여금 끈기 있게 계속 연구할 것을 요구한다.

공부라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읽힌 페이지 수나 한 학기 과정 동안 읽은 책들의 숫자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부는 생각ideas을 소비하는 행위가 아니라 생각을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행위이다.²¹

알아 간다는 것

발견의 순환 과정을 지켜볼 때 우리는 변증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꼭 두 개의 순간을 보게 된다. 그 순환의 첫 번째 순간은 생산의 순간인데 이것은 특정 지식이나 어떤 새로운 것의 생산이다. 또 하나의 순간은 생산된 그 특정 지식이 발견되거나 알려지는 순간이다. 즉 첫 번째 순간은 특정 지식의 생산이며 두 번째는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순간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순간들을 각각 따로 분리하며 둘로 나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존의 지식을 발견하는 행위를 지식을 단지 이동시키는transference 것으로 축소해 버리게 된다. 그리고 교사는 지식을 이동시키는 전문가가 되어 버린다. 이 경우에, 교사는 기존 지식의 발견에서처럼, 지식의 생산에서 요구되는 필수 불가결한 특질들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특질들이란 예를 들면, 행동, 비판적 반성reflection, 호기심, 끊임없는 문제 제기, 걱정, 불확실성 등과 같은 미덕들로서 결국 이해에 이르게 될 주체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또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우리가 지식의 발견과 지식의 생산을 분리할 때, 학교가 너무나 손쉽게 지식을 판매하는 상점으로 변모한다는 점인데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이다.²²

2 파울루 프레이리는 어떻게 망명하게 되었나

파울루 프레이리의 문해 교육 사상과 그의 지식 이론은 전후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즉 1960년대 초 브라질 북동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당시 그 지역 주민 절반은 침묵의 문화culture of silence 안에서, 즉 글을 모르는 상태로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그들 자신의 운명에 책임을 지고 식민주의를 극복할 (새로운) 브라질을 건설하는 데 참여하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¹

그러한 방법론에 따른 첫 번째 실험이 1962년 히우그란지두노르치 주의 안지쿠스 시에서 시작되었는데, 농장 일꾼 300명에게 45일 동안 읽고 쓰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었다. 다음 해에 대통령 주앙 골라르트João Goulart와 교육부장관 파울루 지 타르수 산투스Paulo de Tarso Santos에게서 파

울루 프레이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인들을 위한 (글을 읽고 쓰는) 문해 교육 계획을 재고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미 다르시 히베이루Darcy Ribeiro가 대학 교육개혁을, 라우루 지 올리베이라 리마Lauro de Oliveira Lima는 중등학교 개혁을 같은 방식으로 수행했다. 1964년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 200만 명을 위하여 문화 모임 2만 개를 설립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 작업이 막 시작되려던 찰나에 군사 쿠데타로 인해 중단되었으며 이미 실행되고 있던 작업들마저 취소되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1967년에 《자유의 실천으로서의 교육Education as a Practice of Freedom》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문해 교육 방법론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했다. 이 책은 도시와 시골의 프롤레타리아 지역과 하위 프롤레타리아 지역에서 15년 이상 계속해 온 성인 문해 교육 작업의 총체적 경험의 결과물이었으며, 파울루 프레이리는 연인이자 아내이자 동지였던 이우자의 경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파울루 프레이리의 “방법론method”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교수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지식 이론과 교육철학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울루 프레이리는 그의 이름을 딴 성인 문해 교육 계획을 통해 훨씬 더 유명해졌다. 이 방법론은 체계system, 철학 또는 지식 이론으로 불릴 수 있으며 발전 단계들과 방법론 활용은 그의 저서인 《의식화

Conscientizati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린다 밤비는 (파울루 프레이리의 저서인) 《페다고지》의 이탈리아어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파울루 프레이리의 방법론이 가지는 독창성은 문해 교육 방법론의 효율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화 conscientize”라는 내용의 참신함에서 더욱 진가를 찾을 수 있다…… 의식화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교육적 맥락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1) 새로운 기법들을 통해,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 새로운 시각은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과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탐색에 대한 수단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식의 창의력에 달려 있다.

(2) 고립된 개인이 혼자서 의식화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상황에 관한 총체적인 연대를 가지고 있는 한 공동체의 일부로서 의식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혁하는 총체적 과정의 일부라고 보는 그 방법론의 기초는 혁명 이전의 모든 상황에 도전을 제기하고, 인간화하는 교육 행위를 창조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것은 곧 혁명의 교육학으로 포괄된다.²

이렇게 린다 밤비는 파울루 프레이리의 방법론과 사회

변혁 운동 사이의 명백한 연관성을 입증하려고 시도한다. 이것은 곧 파울루 프레이리의 방법론이 사회의 총체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파울루 프레이리의 문해 교육 방법론은 헤시페에서 참여했던 대중문화 운동인 MCP에서 자라 나오게 된 것인데 MCP는 1950년대 말에 문화 모임들을 조직했다. 파울루 프레이리에 따르면, 문화 모임은 어떤 프로그램도 미리 갖고 있지 않았다.

프로그램은 여러 집단들과 함께 상의한 결과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하자면 주제들은 문화 모임 내에서 먼저 토의한 후 그 집단이 결정한다. 교육자로서 우리는 토의할 주제를 전개시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주제들을 첨가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페다고지》에서 내가 “연결점 주제들(hinge themes)”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전체 논점들 안에 근본적인 요소들로 끼워 넣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제안된 주제를 보다 명료화하기도 하는 그런 주제들이었다. 이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민중들의 사회적 실천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대중의 지식과 대중의 지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을 구성하는 주제들을 이해하는 데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연대가 때로는 간과된다. 이런 경험으로부터 나는 정치적 참여, 이해, 비판적 책 읽기와 같이 내가 사고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당한 긍정적 결

과를 얻게 되었다. 문맹이든 아니든 간에 대중 집단들과 함께 하는 이런 토론 수준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면 문해 교육 계획에 관해서도 왜 그렇게 되지 못하였는가? 왜 문해 교육 제도에서 배우는 학생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자신들의 문자 기호 체계를 수립하는 데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는가?³

이러한 직관은 파울루 프레이리가 수행한 작업의 후반기 발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배우는 행위의 과정인 학습이라는 형식이 배우는 내용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권위주의적 방법으로는 민주주의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 안에서 학습 주체의 참여는 단지 좀 더 민주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더욱 효율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교사의 권위를 중심으로 하는 방법론에 기초한 전통적인 개념의 학교와는 달리, 파울루 프레이리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우는 새로운 방식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가 문화 모임에서 일했던 방식을 한번 살펴보자.

문해 교육과 의식화

파울루 프레이리에 의해 주도된 다양한 문해 교육 프로그램들에서, 글자를 가르치는 사람은 우선 자신이 보고 읽는 모든 것에 주목하면서 공책과, 가능하다면 녹음기를 가지고 가르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지역공동체 사람들과 가능한 한 최대한 친밀하게 어울렸다. 보고 따라야 할 질문지나 대본은 전혀 없었다. 그는 사람들의 생활이나 세상을 보는 방식 등에 관해 질문을 했다. 목적은 글자를 배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단어, 구, 표현, 말하고 시를 짓고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특징적인 방식들과 같은 모든 것이 활용되어야 한다. 교사가 진행하는 이러한 예비 작업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함께 작업하게 될 집단의 생각과 사회 현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 결과 파울루 프레이리에 의해 제시된 문해 교육 기법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도출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⁴

그 방법론의 핵심인, 단어들과 생성 주제(generative themes)들은 이러한 연구 조사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었다.

생성어(generative words)는 그 단어의 의미와 문화 모임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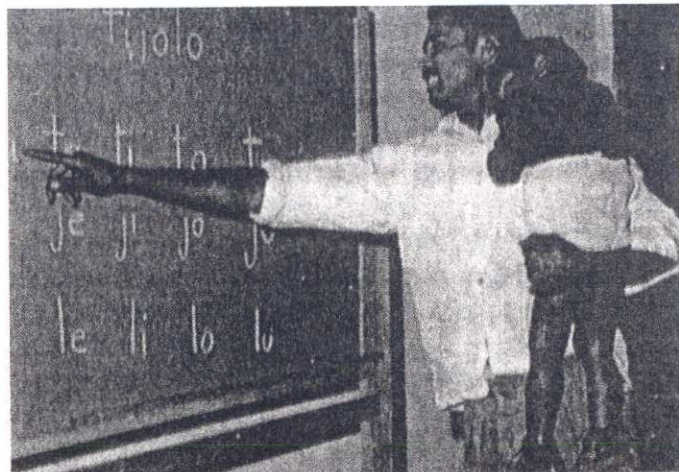
사회적 관련성만을 고려하여 선택된 것이 아니라 포르투갈어의 모든 음소들을 나타내야 한다는 점 또한 고려하여 선정되었다.⁵

이 단어들은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했다. 나중에는, 그 단어들이 해독되어서 각각의 단어는 실존적인(생활에 관한 질문들) 동시에 정치적인(삶의 조건들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들에 관한 질문들) 핵심 질문들과 결부된다. 예를 들면, 생성어인 '정부government'라는 단어에 관해 정치적 계획, 정치력, 사회 조직 내에서 정부의 역할, 민중의 참여와 같은 생성 주제들이 토의될 수 있다.⁶

이러한 상징적인 맥락은 문맹인이 심중에 있는 단어를 떠올릴 때 심리적인 지원을 한다. 생성어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것은 벽돌이라는 단어의 고전적인 사례에서처럼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제시되었다. 벽돌이라는 단어는 벽의 일부를 이루는 '벽돌' 위에 씌어졌다.

임금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 생성어가 사용되는 방식을 살펴보자.⁷

1. 토론을 위한 아이디어들: 노동의 가치와 그에 대한 보상, 임금의 사용: 노동자와 그 가족을 부양하는 것, 법률에 따른 노동 시간표, 최저임금과 공정 임금, 주당 휴일, 휴가, 장여금.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 인근에 있는 가마Gama에서 조직된 문화 모임의 모습. 1963년 9월.

2. 토론의 목적: 농촌의 농장 노동자들의 급료 상황에 관해 집단 토론을 하도록 한다. 그 상황에 대한 이유를 토론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노동에 대한 가치와 보상에 대해 토론한다. 그 집단 구성원들이 각자 공정한 임금을 요구해야 할 권리에 대해 토론하도록 돕는다.

3. 토론의 단계들: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농장 노동자들의 임금 상황은 어떠한가? 왜 그런가? 임금이란 무엇인가? 당신의 임금은 얼마여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임금에 관한 법률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공정한 임금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파울루 프레이리는 자신이 어떤 문해 교육 방법론도 만들어 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배운다는 것은 인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과정인데, 인간이 먹어야 할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워야 할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우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는 중개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벨기에의 교육가인 드크롤리 Decroly와 같은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세계화 과정(global process)”라고 불렀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포르투갈어의 경우에는 문해 교육의 초기 단계를 마치는 데 필요한 단어들이 많아 봐야 24개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다.

파울루 프레이리의 업적에서 독창적인 점은 그가 이러한 과정을 자유를 쟁취하는 한 가지 형태로 보았다는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 과정의 한 부분이며, 보다 인간다워지는 것이다.

문화 모임의 진행자(coordinator)가 (학습 과정을 진행하는데) 문해 교육 계획을 이용했던 아니든 간에, 그는 그 집단이 표현하는 데 어려워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토론을 촉진하는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질문을 함으로써 토론을 활발하게 만들기도 하고 생성어를 중심으로 한 토론을 확

장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생성어는 큰 글씨로 모든 학생들에게 뚜렷이 보이도록 해야 한다. 칠판에서부터 슬라이드 영사기와 비디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구들이 사용될 수 있다.

세우수 지 후이 베이지에첼(Celso de Rui Beisiegel)은 이렇게 말한다.

“진행자”가 자극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고 조절을 하는 가운데, 성인 학생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인생 경험을 토론하면서 교육받게 된다. 이 과정은 시청각교재나 상세한 (교수 학습) 활동 계획들과 함께 읽기와 쓰기 교육 기법들이 주의 깊게 계획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혁신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학습)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도구적 행위와 교육적 행위 간의 관계.

(2) (학습) 과정의 문화적 내용과 글자를 배우는 학생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 간의 관계.⁸

방법론의 단계들

비판적 의식 형성 방법론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 과정들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단계

이것은 글을 배우는 학생들과 그들이 속한 사회계층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어들과 생성 주제들이 속해 있는 어휘 세계(the universe of vocabulary)를 발견하는 단계이다. 이 생성어들은 음절의 길이, 소릿값, 그리고 주로 그 단어들이 그 집단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에 따라 선택된다. 이러한 어휘 세계의 발견은 그 계획이 실시될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비공식적 만남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 그들의 걱정거리를 같이 나누는 것, 그리고 그들 문화의 여러 요소들을 함께 공감하는 것 등이다.

2. 주제화 단계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초기의 인식 단계에서 도출된 주제들이 정리되고 해독된다. 그 주제들은 비판적이고 사회적인 시각을 통해 첫눈에 마치 마법처럼 맥락을 띠게 되고 교체된다.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 발견된 생성어들과 관련된 새로운 생성어들이 발견된다. 이 단계에서 음

성 집단들이 분해된 카드들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읽기와 쓰기에 도움이 된다.

3. 문제화 단계

이 단계에서 우리는 추상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면으로 돌아오게 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발견되었던 실존적 상황들의 한계와 가능성들이 발견된다.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제약은 사람답게 되는 과정인 인간화(humanization)를 가로막는 것인데,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가 필요하게 된다. 읽고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활동인 투쟁의 도구가 된다. 이 방법론의 최종의 목표는 의식화이다. 억압적인 현실은 극복할 수 있는 과정으로 경험된다. 해방을 위한 교육은 결국 변혁적 실천(transformative praxis)으로 귀결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체에 강조점을 두는 종합적으로 조직된 교육 활동이다.⁹

어린이 문해 교육

아이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이론은 같지만 그 과정은 크게 다르다. 성인의 경우에는 단어의 사용이 훨씬 많은 데 비해 아이들은 놀이에 대한 충동이 훨씬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자신의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파울루 프레이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혀 다른 시각의 교육적 실천에 대한 것이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중요한 것은 섬 이름들이나 역사적 인물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만들어 가며 현실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세상에 대해 알아가면서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 이유는 소비자주의에 의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지배받는 부모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지식을 소비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후에 대학은 아이들을 지식의 저장소로 변모시킨다. 부모들은 학교가 아이들을 위한 슈퍼마켓이 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관행을 바꾸는 시도를 해 볼 만한 곳들이 있다.¹⁰

그러나 어린이 문해 교육은 파울루 프레이리가 아니라 그의 딸 마달레나가 전개했다. 그녀의 작업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감뿐만 아니라 에밀리아 페헤이루Emilia Ferreiro의 연구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¹¹

1950년대 후반기에 파울루 프레이리는 방대한 양의 교재들을 매우 간간하게 연구했는데, 그중에는 브라질 외 나라들에서 발행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교재들에 대한 프레이리의 평론은 두 가지 기본 전제 위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 첫 번째는 단어 선택, 단어의 음절 단위 분절, 그리고 음성학적 조합 등이 교육자들에게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그 결과 학생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연습 과제를 그저 외워야만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제는 (교재에) 제시된 단어들과 소리들이 실제로 학생들의 생활과 거주 지역과 사회 계급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문해 교육의 과정이 창조의 행위이며 앞의 행위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아이를 가르칠 때 교육자는 학생에게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를, “학생을 위한” 무언가를 “학생에 의해” 알게 하는 행위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이 직접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학생이 배울 대상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 다가가지 못한다면 유의미한 학습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프레이리는 자신이 연구했던 교재들이 상정하는 지식, 즉 학생들의 삶 바깥에서 가져와 학생들에게 그저 던져 준 그러한 지식의 개념에 반대했기 때문에, 1950년대 말에는 그러한 교재 사용을 중단했고, 1960년대에는 교재 없이 자신의 실험을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자신의 교육철학에 꼭 들어맞는 보조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수업 교재의 구성은 군사 쿠데타로 인해 브라질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교재는 칠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후에 문화 교재가 만들어졌던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에 의해 내용이 더욱 풍부해졌다.

학생들에게 전달되도록 미리 만들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 전통적인 교재는 교사들이 담당해야 할 창의적이고 구성적인 역할을 간과한다. 파울루 프레이리의 구상에서는 교사 혹은 진행자의 역할이 훨씬 더 역동적이다.

실천을 통하여 파울루 프레이리는 고단한 하루 일을 마친 노동자에게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반복하도록 시키는 것은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에바는 포도를 보았다. 그 포도는 이보의 것이다.” 이런 문장들은 브라질의 전통적인 문해 교육에서 흔히 쓰이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문장들이 학생들의 현실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러한 현실성의 원리는 성인 및 아동의 학습 양쪽 모

두에 타당성을 가진다. 학습에서 제일 원칙은 흥미의 원칙이다. 전통적인 학교가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아무런 흥미를 끌지 못하는 내용을 제시하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서 권위주의적인 교육 방식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파울루 프레이리가 쓴 문화 교재에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내용 전달을 거부한다고 해서 문화 교재가 내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이다. 이 교재들의 내용은 혁명적 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상세히 연구되고 개발된 것이었다.

1950년대에 파울루 프레이리는 미리 짜여진 내용의 문제에 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문제는 교육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기도 하다. 대다수 민중들과 교사,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들을 위한 교육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에 관한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교육 내용의 조직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다.

예를 들면 파울루 프레이리는 자신의 문화 교재에서, 수학이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덧셈하는 법을 안다는 것과, 또한 셈하는 것이 정치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막 글자를 알게 된 사람들을 위한 읽기 교재에서, 그는 상투메 프린시페

의 역사상, 식민지 시대와 해방 후의 두 시점에서 수학의 차이를 보여 주었다. “덧셈”이라는 것도 자본가의 관점과 노동자의 관점이 각기 다르다. 자본가는 임금노동자의 노동의 일부를 계산에 넣는다. 그러나 임금노동자는 자기 자신과 동료들밖에는 기댈 곳이 없다. 지극히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셈 하기조차도 맥락화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에 관한 또 다른 교재에서는, 국가적으로 가장 심각한 네다섯 가지의 질병들이 제시된 것처럼 추상적인 내용은 배제되어 있다. 교재의 내용과 관련해서 파울루 프레이리가 기본적으로 우려했던 것은 전달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화 교재에서는, 학생들이 내용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내용을 스스로 주도해 나가는 방식으로 짜인 내용이 제시된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읽기 교재의 일반화가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불합리한 것이며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권위적인 행위라고 믿었다. 브라질 남부 지역의 교육자들은 전국적으로 사용될 교재를 선정한다. 그 교재는 각기 다른 지역의 실상을 무시하고 각 지역의 지역적, 문화적 차이들을 담지 못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교재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각지의 교육자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 안 되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북동부가 생성어와 생성주제를 선정해서 남부에게 가르치도록 한다고 해서 힘의

중심을 북동부로 옮기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수업 교재는 각 지역별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방법론과 재창조

1987년, 파울루 프레이리의 방법론은 “새로운 학교”라는 프로젝트로, 브라질의 페르남부쿠 주에 있는 카부, 올린다, 파울리스타, 이가라수, 그리고 모레누 시의 시립 학교들에서 사용되어 일차적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읽기와 쓰기 학습에 관한 에밀리아 페레이루의 이론이 파울루 프레이리의 이론과 결합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파울루 프레이리의 방법론이 재창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비판 정신과 창의력에 강조점을 둔다. 전통적인 교재들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수동적인 태도는 지양되었다. 학생들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진 교재에 있는 네모와 원을 채우는 등의 활동을 하는 대신 다양한 자료들과 함께 자신의 창의력을 활용하도록 조장했다.

읽기와 쓰기를 배우는 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일상적인 어휘들로부터 생성어들이 선택되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말하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격려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거리낌 없이 표현하고, 모든 활동에 참여

하며, 학교를 좋아하게 되었다.

카부 시에서 전개된 새로운 학교 프로젝트도 이와 유사한 경로를 따라 실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성인 문맹 퇴치를 목적으로 제안된 것이었다. 파울루 프레이리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는 자신의 방법론을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적용했다. 글 두 편을 재구성해서 이 과정을 보여 줄 수 있는데, 이 글 두 편은 문해 교육에 마친 학생들이 작성했다. 이 글은 나중에 문화 교재에 포함되어 내용 토론과 언어 수업을 하는 데 사용되었다.

거리 청소부의 도전

나는 읽고 쓰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내 이름과 다른 것들을 쓸 수 있다.

나는 거리 청소부이고, 학생이며 노동자이다. 나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배우고 있고 계속해서 배울 것이다. 배우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해야 하지만 여기에 오는 게 좋다.

시장님이 우리를 위해 아주 좋은 일을 해 주셨다. 우리를 위해 참을성 있는 선생님을 보내 주신 것이다. 나는 장학사의 방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거리 청소부 그룹이 함께 쓴 글

테레자

나도 이 그룹의 학생이다. 내 이름은 테레자다. 어제 시아버

지가 방문했는데 지난 3년간 만나지 못했었다.

모두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나서 외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시아버지는 내게 물었다. 아가야, 어디를 가니? 나는 말했다. 학교에 가요. 호세가 이것을 알고 있니, 아니면 그에게 숨겼니? 아니에요, 그도 알고 있고 가도록 해 주었어요. 호세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미 나이 들고 아이도 낳은 여자가 공부할 생각을 하는 걸 어디서 봤니?

나는 말했다. 아버님, 시대가 변했어요. 요즘은 여자들도 권리가 있어요. 여자들이 부엌에서만 살던 시대는 끝났어요. 좋다. 학교에 가거라. 하지만 빨리 돌아와라. 갈게요, 9시에 돌아올게요.

시아버지가 말했다. 우선은 가거라. 하지만 나는 호세에게 학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녀석이 뭐라고 하는지 봐야겠다. 호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또 어떤 여자들 머릿속에 든 어떤 것들을 배우지 않으려고 그 애 어머니가 시장에도 가지 않는 걸 알고 있지. 요새는 여자들이 점점 당돌해지고 있어.

샤르네카의 여성 그룹

이 장을 마치면서, 우리는 파울루 프레이리의 연구 중에서 핵심 영역들 중 하나인 대화를 기억해야만 한다.

대화는 단지 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다. 대화는 친구를 사귀거나 학생들을 지배하기 위한 전

술이 아니다. 그것은 조종하는 것이지 대화가 아니다. 파울루 프레이리에게 대화란 인간 본성의 일부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대화를 통해서 형성된다. 대화가 없는 인간에게 진보는 없다. 파울루 프레이리에게는 대화하는 순간이 바로 현실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사람들이 만나는 순간이다.

삶의 과정 중에는 개인적인 차원이 있다. 이 개인적 차원은 지식의 모든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발견은 사회적인 과정이며, 대화는 이 과정을 계속시키는 것이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교수 전략으로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학교는 항상 배우는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하며, 그에 대해 끊임없이 평가를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는 정반대이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결코 묻지 않는다.

대화는 이렇게 대화를 통한 변증법적 교수법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교수법은 오늘날 교육 활동과 교육적 진보를 혁신하고 현대화하는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3 역사로부터 배우기

1963년, 주앙 골라르트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직을 맡고 있던 다르시 히베이루는 파울루 프레이리에게 세우수 푸르타두가 책임자로 있던 북동부 발전 위원회(SUDENE, Northeast Development Board)의 교육부를 대표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비록 무보수직이기는 했지만 그 직책은 북동부 발전 위원회의 전문가들, 그리고 국제 개발처(USAID)¹의 북미 전문가들과 함께 북동부 지역의 교육 프로그램의 승인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 자리였다.

이 시기에 진보 동맹²은 북동부에 있는 히우그란지두노르치 주의 주지사인 알롱시우 알베스(Aluísio Alves)와 협력하여 교육 분야에서 많은 협약을 맺었다. 교육부 장관이 파울루 프레이리와 접촉하면서 히우그란지두노르치 주에서

그의 교수법을 적용할 가능성을 문의했다. 파울루 프레이리가 제시했던 요구 사항들 중의 한 가지는 실험을 위해 선택된 지역이 실험 과정 중에 주지사의 방문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선거운동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요구는 전적으로 존중되지는 못했다.

파울루 프레이리 사상에서 역사적 요인들

1963년, 법과 학생이었던 마르쿠스 게하 Marcos Guerra에 의해 조직된 단체가 교사 그룹의 훈련을 위해 히루그란 지두노르치 주의 주도인 나타우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다시 지역 어휘 연구와 문해 교육을 시작하기 위해 안지쿠스로 갔다. 그러다가 그 단체는 그곳에서 살기 위해 이주했다. 한 달 후, 글자를 몰랐던 학생 300명이 읽고 쓰게 되었다.

파울루 프레이리가 자신의 교수법을 완성하게 되었던 안지쿠스 실험은 마무리 단계에서 주앙 골라르트 대통령이 내각의 모든 장관들을 대동하고 방문하자 브라질 전역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전국 문해 교육 계획의 조력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초청받았다. 이 계획은 각 주의 주도에서 핵심 집단들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핵심 단체들은 운영 요원들을 양성

하고 교수법을 실천에 옮기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문맹을 극복하려던 브라질의 모든 노력은 군사 쿠데타로 인해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말았다.

안지쿠스에서의 실험은 처음에는 진보 동맹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파울루 프레이리가 한 연구 내용의 진보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은 진보 동맹의 식민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사상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진보 동맹의 재정 지원은 나중에 중단되었다.

파울루 프레이리의 사상이 형성되고 발전되었던 역사적, 정치적 환경은 바로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의 브라질 북동부 지역이었다. 그 시기는 1930년의 혁명으로 시작해서 1964년의 군사 쿠데타로 끝을 맺는 정치적 위기의 시대였다.

민중 계급이 정치 무대에 등장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각기 다른 신념을 지닌 다양한 정치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그 당시의 포퓰리즘과 민족주의를 통해 대중 동원을 시작하려 했던 급진 가톨릭 집단도 존재했다.

일련의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풀뿌리 개혁 운동 Grassroots Reform과 수적으로 성장하던 농촌 노동자 연맹 Rural Workers' Leagues 등과 함께 문해 교육 캠페인은 사회적 맥락의 일부가 되었다.

풀뿌리 개혁 운동은 보통 사람들의 요구들로 구성되었는데 그 요구들은 주로 경제적인 성격의 구조적 변혁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농업 개혁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것은 사회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과제였다. 이 개혁 운동의 목표는 비생산적인 대토지 소유제 latifundio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그 유명한 농촌 노동자 연맹 내에서 조직화된 농촌 노동자들은 이러한 비생산적인 토지의 존속에 항의하여 들고 일어났다. 이 연맹들은 무토지 농촌 노동자들의 편을 드는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 금지되었던 1964년 이전까지는 북동부 여러 주들의 내륙 지역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연합체들이었다. 포폴리스트 지도자들의 지배와 교묘한 조종을 타파하려는 시도와 함께, 노동계급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자각하고 비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1950년대를 거쳐 1960년대 초반이 되자 포폴리스트 지도자들은 도시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도 집결하기 시작한 대중의 요구를 조종하고 처리할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브라질이 발견된 이래 처음으로 자신들의 권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된 대토지 소유주들은 브라질의 해외 협력자들이 지원한 1964년의 무자비한 군사 쿠데타로 반격을 가하게 되었다.

군사 쿠데타

1960년대 초반, 파울루 프레이리는 대다수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쿠데타가 발발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한 가능성은 브라질의 상황 속에서 예측할 수 있었고 모든 좌익 집단들 안에서도 감지할 수 있었지만, 좌파들은 “혁명이라는 신부의 몸과 결합될 이상적인 삶을 기대하며 살고 있었다.” 이상주의적인 기운이 팽배한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역전될 수는 없을 거라고 믿었다.

자신의 교수 방법론을 완성시켰던 MCP에서의 첫 번째 실험을 마친 후에, 파울루 프레이리는 한번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작업을 계속한다면 일이 년 후쯤에는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연구가 유네스코의 관심을 끌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아내 이우자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프레이리는 1964년 6월에 투옥되었다.

1964년 3월 30일, 파울루 프레이리가 수도인 브라질리아로부터 전해진 소식이 심상치 않으며 그날 당장 브라질리아로 돌아가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고이아니아에서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다음 날, 페르남부쿠 주의 주지사인 미겔 아하이스 Miguel Arraes가 헤시페의 시장과 함께 수감되었다.

쿠데타가 발발한 직후에 파울루 프레이리는 투옥을 피

하기 위해 전국 민주주의 동맹의 의회 대표인 친구 루이즈 부론제아두 Luiz Bronzeado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거기서 지내면서 그저 시간이 지나서 사태가 정리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는 대사관으로 대피할까도 생각했지만, 자신이 투옥되리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도 그는 브라질에 남는 편을 택했다. 그가 가족과 함께 헤시페로 돌아왔을 때 예상했던 사태가 실제로 일어났다.

“좋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나중에 다시 소환될 겁니다.” 파울루 프레이리가 자발적으로 출두하자 치안 부대장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소환되었다. 6월 16일 아침 일찍, 경찰 두 명이 현관에서 신분증을 보여 주며 동행하기를 요구했다.

후에 그가 말하기를³, 심문 과정에서 조사관이 증명하고자 애썼던 것은 그의 “절대적 무지(절대적 무지나 절대적 지혜라는 것이 있다면 오직 신에게만 존재할 것이다)”와 함께 그가 제기한 위험성이었다. 그는 “국제적인 체제 전복자”이자 “그리스도와 브라질 국민들에 대한 반역자”로 간주되었다. 한 판사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자신의 방법론이 스탈린, 히틀러, 페론, 그리고 무솔리니의 방식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가? 당신은 또한 소위 말하는 당신의 방식으로 브라질을 볼셰비키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사실을 부인하는가?” 그를 불리한 방향으로 몰아갔던 이 사건은 나중에 ‘기소 부적합’으로 처리되었다.

70일간의 투옥 경험은 그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것이었으며 그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감옥 안에서 교육과 정치의 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다가왔으며, 사회 변화는 고립된 개인들이 아니라 대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감 생활을 통해 그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도 배우고 교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수감자로서 그는 수감 생활을 좋아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웠다고 말했다.

감옥 생활을 마친 후 파울루 프레이리는 그러한 극단적이고 부조리한 시기에 국내에 머무르는 것이 무척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영웅이 되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사실 혁명이란 영웅들이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민중들과 죽음으로 희생한 한두 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⁴

삼엄한 감시하에 지내면서 심문받기 위해 불러 다니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프레이리는 천천히 죽어 가며 자신을 포기하기보다는 사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망명을 결정했다.

그 당시 볼리비아 대사관만이 유일하게 그를 환영했다. 거기서 그는 아동과 성인 문해 교육 사업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던 볼리비아의 교육부 장관과 접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해발 4천여 미터인 라 파스의 높은 고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기절해 버렸다. 게다가 그가 도착한 지 12일 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파스 에스텐소로Paz Estensoro 정부를 전복시켰다. 라파스에 있던 다른 브라질인들이나 그가 어떤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계속 살기는 불가능했다.

1964년, 브라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칠레는 9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기독교 민주당 Christian Democratic Party, PDC의 에드아르두 프레이Eduardo Frei와 좌익인 민중 행동 전선Popular Action Front, FRAP의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가 대통령 후보였다. 좌파의 승리를 두려워하던 우파는 자신들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며 기독교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파했고 결국 에드아르두 프레이가 당선되었다.

기독교 민주당은 교육 개혁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개혁을 시작했다. 기독교 민주당의 자본주의 현대화 공약에 대한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육 개혁은 교육 민주화에서 상당한 진전을 거두게 되었다.

1970년 살바도르 아옌데가 사회주의로의 평화적인 이행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인민 연합Popular Unity의 수장으로 권력을 잡게 되었다. 인민 연합은 칠레의 우파와 북아메리카 제국주의 세력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그들은 사회주의 정부에 반대하는 조직을 결집해서 1973년 9월 11일 아옌데 정권을 전복시켰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1964년부터 1969년까지 칠레에서 지냈다. 이 시기에 시작된 농업 개혁은 농촌 노동자들로 하여금 국민 생활 많은 부분에 참여하게 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법안들이 집행되고 새로운 농업 구조가 수립되며 건강, 교통, 신용, 기술 지원, 학교와 다른 기본적인 사회 기반 시설들이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 개혁은 정부 기구를 농촌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수많은 새로운 인력과 전문가들을 훈련시키려고 노력했다. 농업 개혁은 농업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특히 조직 두 개와 관련을 맺고 있었다. 농업 개혁 공사CORA와 농축산 개발 협회INDAP가 바로 그 조직들이었는데, 아옌데 정부에서 농업부 장관으로 일했던 자크 촌출Jacques Chonchol이 그 기관들을 총괄하고 있었다. INDAP에는 다양한 분과들이 있었는데, 사회 개발과와 파울루 프레이리가 일했던 농업 개혁을 위한 연구 교육 협회도 포함하고 있었다. 1964년과 1965년에 다양한 브라질 망명객들이 칠레로 왔

다. 이 브라질 망명객들은 그들을 환영하며 맞아 준 그 나라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문화계에서는 티아구 지 멜루Thiago de Mello, 학문과 지적 연구 분야에서는 프란시스코 웨포트트Francisco Weffort와 페르난두 엔리크 카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 연구 분야에서는 《칠레 농민 운동The Chilean Peasant Movement》을 쓴 저자인 알미누 아폰수Almino Affonso, 정치 외교 업무에서는 파울루 지 타르수 산투스Paulo de Tarso Santos와 플리니우 지 아후다 삼파이우Plinio de Arruda Sampaio, 대학 분야에서는 히우그란지두술 출신인 철학자 에르나니 마리아 피오리Ernani Maria Fiori와 같은 인사들이 있었다.

파울루 프레이리가 ICIRA에서 담당했던 업무는 소농들과 소작농들을 조직화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팀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가 첫 번째로 했던 일은 농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농촌으로 가서 칠레의 현실에 관해 배우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CORA의 문해 교육 사업과 교육부의 성인 교육 계획에 관한 자문 위원으로 일했다.

망명 기간은 파울루 프레이리에게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다.⁵ 그는 칠레에서 폭넓고 만족스러운 정치적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역동적인 것이었으며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역사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방법론을 재정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는 실천 속에서 그것을 재평가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

할 수 있었다.

좌파 출신 교육자들은 파울루 프레이리의 교육철학을 지지했지만 우익 반대파들은 그를 반대했다. 그들은 1968년에 기독교 민주주의에 반하는 “매우 폭력적인” 책을 썼다는 이유로 프레이리를 비난했다. 이 책이 바로 《페다고지》인데 1970년에야 겨우 출판되었다. 이 책으로 인해 기소된 것이 그로 하여금 1969년에 칠레를 떠나게 만든 요인들 중 하나였다.

망명 생활 중에 파울루 프레이리는 1964년 쿠데타의 의미를 차츰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의 개입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더 이상 수출 상품의 가격을 낮추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려는 완고한 지주의 뻔한 지배 정도가 아니었다. 이미 계획된 프로젝트가 존재했는데, 이것은 브라질과 라틴아메리카의 경제구조를 현대화하고 자본가들의 이해에 더욱 적합하게 만들어서 보다 더 교묘하고 현대적이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종류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전략의 일부였다. “기술 원조”라는 이름으로 브라질에 수출되었던 기술 그 자체가 그 당시에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이러한 지배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이것은 파울루 프레이리가 브라질을 떠난 직후에 진행한 그의 연구에서 “문화적 침략”⁶이라는 개념에 두었던 중요성을 잘 설명해 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쿠데타는 일시적 무장봉기일 뿐이며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파울루 프레이리도 망명 생활 초기에는 자신이 곧 브라질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곧 쿠데타로 세워진 정부가 자신의 생애보다 더 오래 존속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그는 오랜 망명 생활에 대한 준비를 했다.

망명 생활은 파울루 프레이리에게 심오한 교육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브라질에 대해 따져 보고, 브라질과 자신이 해 온 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른 나라들을 위해 공헌함으로써 자신의 조국 밖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시작했다.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면서, 그는 브라질에서는 결여되어 있었던 정치적 미덕을 배울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관용이었는데 주로 다른 문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모든 면을 고려해 볼 때,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열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우자는 사실상 망명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헤시페로의 여행 경비를 대 주겠다는 오빠의 제의를 몇 번이나 거절할 정도로 망명자의 입장을 견지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남편이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항에 발을 디딜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실존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이었다.

칠레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난 뒤, 파울루 프레이리는 아내와 대화하면서 비록 칠레에서 행복하게 지냈지만 떠

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칠레인 동료들이 파울루 프레이리가 시작한 일을 맡게 되었다. 이외에도, 유네스코와의 계약이 갱신되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북미와 유럽의 대학들로부터 초청을 받은 상태였다.

1967년에 프레이리는 처음으로 미국으로 갔다. 몇몇 대학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에서, 당시까지 자신의 유일한 저서였던 《자유의 실천으로서의 교육》이 언론의 상당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

1969년에 그는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2년간 일해 달라는 초청장을 받았다. 그리고 8일 후에는 제네바에 있는 세계 교회 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당시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 지배의 해게모니에 대하여 저항을 시작하고 있었으며 아프리카 대륙 전역이 해방 운동에 휩싸여 아밀카르 카브랄Amilcar Cabral의 PAIGC, 앙골라에서의 MPLA, 그리고 모잠비크의 FRELIMO⁷ 등과 같은 조직들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세계 교회 협의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이 기관이 상당한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함께 협력할 가능성을 보았는데 그는 결국 이후 10년간 함께 일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북미에서 살며 경험하기를 원했지만 라틴아메리카를 떠나 도서관에서 책만 붙잡고 씨름하면서 사실적인 구체성과의 접촉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

다. 이런 점이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것은 일종의 소외였다. 그는 하버드에서는 6개월만 머물고 그다음에 스위스로 가는 것을 제안했다. 그의 제안은 받아들여졌다.

“그 당시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상황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고 다른 이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며 전혀 다른 문화적 맥락 속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그리고 이런 점이 다른 어떤 대학보다도 세계 교회 협의회가 나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였다.”⁸

하버드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개발과 사회 변화 연구 센터 Center for Studies in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와 연계된 교육과 개발학 연구 센터 Center of Educational and Developmental Studies에서 초빙 교수로 있었다. 여기서 제국주의 문화 침략에 대항하는 문화적 행동을 촉구하는 그의 저서 《자유를 위한 문화적 행동 Cultural Action for Freedom》이 최종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는 제네바에서 세계 교회 협의회 자문위원을 맡아서 제 3세계 정부들을 위한 교육 문제 상담 전문가로 일했다.

망명 생활 제 2기에 해당하는 1970년부터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한 망명 생활을 통해 파울루 프레이리의 이론과 교육적 실천은 세계적인 차원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망명 생활 제 1기의 주된 연구 업적

망명 생활 제 1기 동안 파울루 프레이리는 가장 유명한 책 두 권, 《자유의 실천으로서의 교육》과 《페다고지》를 저술했다.

이중 전자는 다수의 글과 강연 및 세미나 내용을 경제 발전과 식민 문화 극복 운동의 맥락 안에서 한데 묶은 것이었다. “변화하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새로운 “열린” 사회 건설에서 교육이 담당하는 역할을 보여 준다.

파울루 프레이리가 이 책에서 전개하는 교육 사상은, 다른 시대, 다른 사회에서도 유효할 수는 있지만, 브라질 사회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이 사회는 모순적인 방향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즉, 사회는 대중과는 동떨어진 엘리트가 지배하고 보통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단순한 물건으로 전락해 버린다. 이 책의 핵심 범주는 바로 의식화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지배자의 의식에 의해 행사되는 영향력을 불식하기 위해 지배받는 의식의 편에서 수행해야 할 해방 운동의 과정을 담고 있다. 피지배자의 의식은 지배자에 의해 “이식”된 것이며 의식화의 과정은 이러한 “객식구”로서의 의식을 제거하는 것이다.

파울루 프레이리가 칠레의 ICIRA에서 일하고 있었

을 때, 그는 “농촌 확장 rural extension”의 문제와 이것의 선행 연구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했다. 그 결과로 나온 책이 바로 《확장인가, 의사소통인가? Extensión o comunicación?》⁹이다. 이 책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막 대두되기 시작한 농업 사회 내에서의 농부와 기술자 간의 대화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문화 확장과 문화적 소통 개념에 반대하면서, 농업 개혁과 농업 변혁에 관해 논하고 있다. 그는 문화적 소통이 사람들을 자각시키는 것인 데 반해 문화 확장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침략이라고 말한다. 또한 공동체와 직접 당기를 원한다면 교사인 농학자의 교육적 행위는 소통의 행위여야 한다고 말한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누구든 타인에 의해 자신의 존재 방식과 모순되는 내용으로 “채워진다면” 실제로 배우게 되지는 못한다고 말한다. 농부의 세계관을 인식하지 못하는 농학자 교사는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 여기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원칙을 강조하고 자유를 위한 실천으로서 교육의 토대를 다지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한 기술적 능력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인간의 중요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칠레에 머무는 동안 저술했던 또 한 권이 바로 《페다고지》¹⁰이다. 그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 교육의 억압적인 메커니즘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피지배 의식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함께 피지배 의식과 지배 의식과의 변증법적

관계를 논하는 것으로 책을 시작한다. 이 책은 프레이리의 가장 중요하고 폭넓은 저서로, 교육이라는 주제에 관해 그때까지의 자신의 주장을 망라하고 있다. 이 책은 망명 생활의 처음 5년간의 결과물이자, 자신이 처음 몇 줄에서 밝혔듯이 지적 환상이나 단순한 책읽기와 같은 추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다양한 구체적 상황들 안에서 수행한 교육 활동의 결실이었다. 이 책은 “급진적인 비파벌주의자들 radical nonsectarians”에게 헌정되었다.

이 책은 주관성과 객관성, 과거와 미래,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 사이의 통합의 변증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급진성은 혁명가에게 꼭 들어맞는 반면에 파벌주의는 반동주의자들의 것이라고 믿는다.

그가 칠레로 망명한 후에 《자유를 위한 문화적 행동》¹¹이 출판되었다. 이 책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적대자들 간의 대화 불가능성을 보여 주는데 이것은 바로 대화라는 것이 평등한 조건과 상호성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제 1세계의 “식민 본국들”과 소위 제 3세계 국가들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신식민주의적 관계를 언급한다.

아프리카에서의 경험

망명 생활 제 2기는 1970년 파울루 프레이리가 제네바

로 이주한 때로부터 시작된다.

다음 해에 브라질 망명객 한 그룹이 문화적 행동 협회 Institue for Cultural Action, IDAC를 창립하는데, 이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황들을 직접적으로 지향하는 연구 교육 기관이었으며 교육과 사회 영역에서 혁명적 요소로서 의식화의 기초를 그 토대로 하고 있었다.

IDAC는 피억압자를 위한 교육학을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정치적, 교육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과 관심에 기초해서, 배움의 과정과 현실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교육적 실천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IDAC 집행 위원회 의장으로서 제한된 시간만을 할애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조직이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때는 IDAC에 너무 많은 요청이 들어와서 세미나 운영 기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할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1975년 IDAC는 자신에게 꼭 맞는 역할을 찾게 될 큰 기회를 얻는다. 기니비사우공화국의 교육부 장관인 마리우 카르발Mario Cabral이 IDAC와 파울루 프레이리에게 기니비사우를 방문해서 국가적 문해 교육 사업 개발에 기여해 달라며 이들을 초청했다.

과거에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기니비사우는 서아프리카에

위에 위치한 작은 나라이며 인구가 80만 명인데 이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나라는 15년간의 혹독한 민족 해방 전쟁을 경험했다.

이곳이 파울루 프레이리가 아프리카에서 활동한 첫 경험지였다.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은 색다른 것이었다. 기니비사우 정부가 겪고 있던 혼란으로 인해 IDAC가 마리우 카르발¹²에게 보낸 편지는 신속한 답장을 받지 못했다. 편지를 주고 받던 도중에 IDAC의 직원이 아밀카르 카르발의 글을 읽고 기니비사우에 머물던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IDAC의 실험이 기니비사우에서 진행 중이던 혁명 과정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서로 논의했다. 이전에 실시했던 문해 교육 사업에 보편적 가치가 부여된다면 이 가치는 기니비사우의 경우에도 이전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실시했던 문해 교육 사업에서 있었던 일들을 잊는 것이 중요했다.

IDAC는 자신의 제안과 일관되게, 기니비사우 국민들을 교육하는 데 국제적인 전문가로서 그 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투사로서 함께 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곳에 간 것이었다. IDAC의 구성원들은 자신을 초청한 정부에 그대로 적용할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서 가져간 것이 아니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신식민지주의자들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IDAC는 이런 노선을 철저히 배제하고,



상투메 프린시페 민주 공화국에 있는 몬테 마리오 Monte Mario에서 열린 제1회 전국 문해 교육 세미나. 1976년.

경험은 자라나는 것이지 단순히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념을 따랐다.

그곳에서 주었던 도움으로 인해 가르치는 쪽이나 배우는 쪽 모두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수업 자료가 턱도 없이 모자라고, 철저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 문화 모임들을 진행할 조정자들은 효율성이 부족하며, 국가 발전 과정에 개입하는 낯은 이데올로기의 잔재와 같은 요소들이 모두 기록되고 연구되고 고찰되었다.

아밀카르 카르발의 글과 자신의 망명 경험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인내심과 조급함 사이에서 변증법적인 생활을 했다. 그는 조바심하며 인내해야 했다. 참을성 있게 안

달하는 것도 필요했다. 그는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망명자는 패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즉 그가 좀 더 인내하려 한다면, 이러한 특성은 그로 하여금 결코 성취될 수 없는 꿈을 꾸도록 하는 마취제가 되어 버릴 것이다. 그가 만약 지나치게 조바심을 낸다면 그는 지나친 활동과 의욕을 보이게 될 것이고 결국은 재앙이 될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은 모순적인 조화 contradictory harmony이다.

1975년 9월, 파울루 프레이리는 당시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란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페르세폴리스 선언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장에서, 문해 교육 캠페인과 민중들이 사회 정치적 변화에 참여하는 것 사이의 관계가 명료해졌다.

1975년에서 1978년 사이에 파울루 프레이리는 상투메 프린시페에서 일했는데, 그는 기술적인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임무와 피억압자들의 해방이라는 대의명분을 분리시키지 않으려 노력하는 전투적인 교육자로서 활동했다. 최근에 포르투갈의 식민지 굴레에서 해방된 이 나라는 그에게 혁명적 지도력에 대한 확신을 주었으며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4년 후 파울루 프레이리는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문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던 55퍼센트와 그 과정을 수료한

72퍼센트가 글을 익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후 있었던 기념식에서 이제 막 글을 배운 한 남자가 자기 손으로 직접 메시지를 쓰기도 했다.

또한 1970년대에는 영국의 열린 대학Open University, 벨기에의 루뱅 대학, 미시건 대학과 제네바 대학 등과 같은 전 세계 유수의 많은 대학들이 그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그뿐만 아니라 파울루 프레이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앙골라, 니카라과, 피지, 인도, 탄자니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초청을 받았다.

프레이리는 자신이 주관하여 대중 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었던 제네바 대학이 경의를 표하는 자리에 참여한 것을 마지막으로 15년간의 망명 생활 끝에 사면을 받아 브라질로 돌아가게 되었다. 망명 기간 동안 수많은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광 비자를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한 번도 브라질에 갈 수가 없었다.

1979년 8월 7일, 프레이리는 브라질을 한 달간 방문했고 그 직후에 자신의 가족과 IDAC, 그리고 세계 교회 협의회와 함께 브라질로 최종 귀국하는 것을 의논하기 위해 제네바로 돌아갔다. 1980년 3월에 파울루 프레이리는 브라질로 돌아왔다.

4 해방의 교육학

파울루 프레이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인본주의적이고 전투적인 교육자이다. 그의 교육에 개념은 항상 구체적 맥락 안에서 발견된 해결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의 저서 《자유의 실천으로서의 교육학》에서, 이러한 맥락이란 경제적 발전의 과정이며, “전환기 사회societies in trnsition” 안에서의 식민 문화의 극복 운동이다. 프레이리는 이러한 사회들에서 교육의 역할은 보통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민주적인 사회 또는 “열린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한다. 이런 사회는 엘리트들에 의해서는 건설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엘리트들은 정치적 개혁의 기초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인민 대중들의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만 건설될 수

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의식화와 대중운동의 과정 속에서 민중들을 정치적으로 참여시키고 교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 책에서 내가 이미 언급했듯이, 그는 과도적인 비판적 의식(transitive critical conscience)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는 이 개념이 실천과 함께 결합함으로써 더욱 분명해지는 의식이라고 이해한다. 도전적인 동시에 변혁적인 이 의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대화, 말하기, 삶의 경험 등이 함께 필요하다.

대화의 교육학

엘리트들이 수행하는 대화는 수직적이다. 그 대화는 교육받는 다수를 찍어 내듯 만들어 내며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드러내지 못하게 막는다. 이른바 이런 대화에서는 교육받고 있는 대상은 오직 경청하고 복종할 필요만 있을 뿐이다. 순진한 의식의 단계에서 비판적 의식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받는 대상은 자신 안에 “살고 있는” 억압자를 거부하는 먼 길을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억압자가 피교육자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자신을 무지하고 무능력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거기에 벗어나는 길은 바로 한 개인으로서의 자기 긍정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파울루 프레이리의 구상에서 대화는 수평적 관계이다. 그것은 사랑, 겸손, 희망, 신뢰, 그리고 자신감에 의해 자라난다. 그것은 전통적인 대화의 특성들을 채택하는데, 이러한 특성들을 맥락화하는 많은 작업 경로를 거쳐 새롭게 공식화하는 방식을 함께 취한다. 예를 들면, 그는 공립학교에서 민주주의가 실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화의 경험을 언급한다. “민주적 실험을 감행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¹

대화의 첫 번째 덕목은 피교육자에 대한 존중인데, 이것은 인간으로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회적 실천의 사례로 간주하는 방식으로의 존중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을 그들 스스로에게 맡기는 자발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 경우의 자발성이란 지금까지 우파만을 도와왔다. 교사의 존재는 학생이라는 존재의 그림자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사실 교사가 가지고 있고 대변하는 권위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차이는 “학생의 자유가 표현되도록 허락받는 관계” 안에서 발견된다. 이런 표현은 교육적이라기보다는 보다 정치적인 것이며 교사를 정치가나 예술가, 또는 중립적이지 않은 누군가로 만든다.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 프레이리는 또 다른 근본적인 미덕은 학생의 긴급한 사항들과 선택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

을 기억했다. 그는 또 다른 미덕을 기억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즉 그것은 관용의 미덕인데, 그것은 “적대적인 것과 논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과 다른 무언가와 함께 살아가는 미덕”이다.

우리가 보듯이, 파울루 프레이리에게 교육이란 인간화 과정의 한 부분이다. 이러한 사상은 그의 초기 연구인 1969년에 출판된 ‘인간화에서 교육의 역할’과 같은 글에 잘 나타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의 역사적 방법론에서 보듯이² 파울루 프레이리는 변증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실증주의자들처럼 이론과 실천을 분리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연구에서는 이론과 방법론과 실천이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지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 간의 관계에 의해 인도된다. 이 모든 것이 지식이 해방적 역할을 가지는 인류학과 지식 이론을 형성한다.

그의 저서 《페다고지》는 식민주의자의 교육학과 피억압자들의 교육학 사이의 차이에 관한 그의 교육학적 개념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여기서 그의 개념이 좀 더 명확해진다. “식민주의자의 부르주아지 교육학은 ‘은행식’ 교육학^{bank pedagogy}이다.” 피억압자들의 깨달음은 억압자에 의해 준비된 세계 속에 “함몰”된다. 거기에서부터 피억압자의 마음속에는 이중성이 존재하게 된다. 한쪽에서는 억압자에 대한 집착이 존재한다. 즉 피억압자의 내부

에 지배자의 의식(그의 가치, 이데올로기, 관심)이 “살아 있음”인데,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바람과 필요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억압자의 마음속에는 개별적 존재에서 집합적 존재로의 이동을 필요로 하는 내적 투쟁이 존재한다. “누구도 타인을 해방시킬 수 없다. 누구도 혼자서 해방될 수는 없다. 민중들은 다 함께 스스로를 해방시킨다.”

은행예금식 교육과 문제 제기식 교육

교육과 인간화 과정 간의 관계에 대한 논문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교육의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의 특징을 기술한다. 즉 은행예금식 교육 개념과 자신의 교육 개념이다.

은행예금식 교육 개념(부르주아지)에서는, 알고 있는 사람은 교사이며 학생은 알고 있지 못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교사이며 학생은 “생각하도록 만들어진다.” 말하는 쪽은 교사이고 학생은 조용히 듣는다. 자신의 선택을 결정하고 처방하는 것은 교사이며 학생은 그 처방을 따른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택하는 것은 교사이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생각은 경청되지 않으며 학생은 이런 방

식에 익숙해져야 한다. 교사는 교사의 기능이라는 권위를 자신에게 부여하는데, 즉 이것은 지식의 권위이다. 또한 이것은 학생들의 자유에 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은 교사의 결정에 순응해야만 한다. 결국 학생들은 그저 이 과정의 대상일 뿐인 반면에 교사는 이 과정의 주체이다.

은행예금식 교육 개념에서는, 서술적이고 논술적인 관계가 지배적이다. 교육은 (은행에서처럼) 예탁의 행위가 된다. “지식”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기증하는 것이다.

은행예금식 교육은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억압자와 피억압자 사이의 분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대화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반면에 파울루 프레이리의 방법론인 문제 제기식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적이고 변증법적인 관계 위에 수립된다. 그렇게 해서 양쪽 모두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는 실존적인 요구이다. 이 실존적 요구라는 것은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눈 앞에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 준다. “상황적 한계”를 뛰어넘음으로써, 학생-교사는 그 맥락을 완전히 볼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수립 시점인 생성 주체와 모순의 이해로부터 각 학습의 마지막 발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어난다.

이 대화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교사는 모든 지식을 소유하려고 하는 순진한 입장을 취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는 사람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현실에서 벗어나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인생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세르지우 기마랑이스(Sergio Guimarães)와의 대화³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대화의 범주를 단순한 방법론이 아니라 학교에 오게 된 학생의 지식을 존중하는 전략으로 언급했다. 그는 벨루오리존치의 교외에 있는 기독교 풀뿌리 공동체와 함께할 때 있었던 상황을 기억한다. 당시 교육 사무국은 미나스 제라이스 교육 의회에서 주민들을 상담하고 있었다. 거기 있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은 계속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만 말했습니다.”

파울루 프레이리가 물었다.

“하지만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질문을 했던 10대가 대답했다.

“첫째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상 생활에서도 하는 거지요. 두 사람이 과일을 가득 실은 트럭을 몰고 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진흙탕투성이 길을 만

났어요. 운전수가 차를 세웠어요. 그 둘은 차에서 내렸죠. 그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애썼어요. 그들은 가볍게 밟고 지나가려 애쓰면서 진흙탕을 나아갔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그 상황에 대해 의논을 했죠. 그들은 마른 나뭇가지들과 돌들을 모아서 길을 냈어요. 마침내 그들은 수월하게 진흙탕을 벗어날 수 있었죠.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한 거죠. 이것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연설이 끝나자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해 다른 참가자들이 학교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올 때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오며 단지 듣기만 하려고 학교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파울루 프레이리는 결론을 내렸다.

대화적인 그리고 반대화적인 이론

《페다고지》4장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문화적 행동 이론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대화적인 그리고 대화적인 연구 틀로부터 발전된 것이다.

반대화(反對話) 이론 분석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강조하고 있다.

1. 정복의 필요성. 이것은 반대화 이론의 필수적인 행동이다. “정복의 내용과 방법론은 역사적으로 각기 다르다. 지배 엘리트가 존재하는 한, 변화하지 않는 것은 억압하고자 하는 시체 애호증(시간증necrophilia-시체에 대해 성욕을 느끼는 이상 성욕의 한 증상)적인 불안이다.”
2. 지배를 위한 분열. 이것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현실에 매몰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피억압자들을 분열시키고, 폭넓게 다양한 방법들과 과정들을 통해 그들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심화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3. 조종Manipulation. 이것은 정복의 또 다른 도구이다. 이것은 “지배 엘리트들의 고압적인 필수품으로, 진짜가 아닌 ‘조직’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조직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몰입하고 부상하는 대중들의 진정한 조직을 막는다.”
4. 문화적 침략. 이것은 “침략자들이 각 개인들의 문화적 맥락 속으로 침투하는 것과 그들에게 침략자들의 세계관을 강요하고 개인들의 창의성이 출구를 찾아내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포함한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자신의 대화 이론의 분석에서, 반대

화적 이론의 특징들에 비해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특징들을 강조하고 있다. 즉 (1)공동 작업, (2)연합, (3)조직, 그리고 (4)문화적 통합이 바로 그것이다.

혁명적인 교사는 억압자에게 봉사하는 그런 방법론과 반대화적인 절차를 사용할 수 없다.

억압자가 억압하기 위해 억압적인 행동 이론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억압자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똑같이 자신의 행동에 꼭 들어맞는 이론을 필요로 한다. 억압자는 행동 이론을 정교화하는데 그는 민중들에 반대하여 맞서기 때문에 그 행동 이론은 반드시 민중을 배제하게 될 것이다. 한편, 짓눌리고 억압받는 민중들은 무의식적으로 억압자를 자신들 안에 받아들이면서 혼자서는 해방을 위한 행동 이론을 만들어 낼 수 없게 된다. 혁명적인 지도자와 만나고, 양자가 결합하고, 양자가 실천할 때만 이 이론이 창조되고 재창조될 수 있다.⁴

파울루 프레이리는 피억압자들의 투쟁과 계급 조직화를 교육과 연결시킨다. 그에게는 노동계급보다 피억압 계급이 더 큰 개념이다. 정확히 사회 계급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본주의의 시작에서부터이다. 자본주의 이전에도 억압자들이나 피억압자들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회 계급을 분명하게 형성시킨 것은 바로 자

본주의였다. 그러나 파울루 프레이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즉 억압이 피억압자 자신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의 지시적 역할

파울루 프레이리는 지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의 역할과 얇의 행위가 갖는 교육적 관련성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증주의적 지식 이론에서 보이듯이 지식을 진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피억압자의 이해(interests)에서 시작된 새로운 지식 이론을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이론은 피억압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지식을 다시 정교화하고 재정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며 이러한 틀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지식을 획득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 이론에서는, 피억압자의 해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식은 피억압자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인식하는 지식이다. 그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추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러한 인식은 피억압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실천하는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교육과 지식에 적용한 자신의 대화 이론이 자발성과 비지시성에 자유로운 통제력을 부여해 줄 것인가에 대해 수차례나 의문을 제기해 왔다. 조금이라도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그는 나와 세르지 우 기마랑이스와 함께한 대화에서 이러한 요점을 명확히 했다.

나는 결코 교사와 학생이 같다고 말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나는 항상 그 둘이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선동적이며 거짓된 사람이라고 말해 왔다. 교사와 학생은 다르다. 그러나 혁명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다름이 대립적이어서는 안 된다. 학생의 자유와는 다른 교사의 권위가 권위주의를 옹호할 때 그 다름은 대립적인 것이 된다. 이것이 내가 혁명적 교사에게 바라는 요구이다. 나에게,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교사가 방법론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존재하는 이러한 다름을 이용하여 권위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명령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모순적인 것이다. 이것이 나의 입장이며 따라서 내가 비지시적 입장을 옹호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부르주아지가 하는 교육이든 아니면 노동계급이 하는 교육이든 상관없이 교육 과정의 본질이 항상 지시적이라는 것을 옹호할 수가 있겠는가.⁵

파울루 프레이리는 학생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려는 교

사의 권리에 관하여, 북미의 교육자인 아이라 쇼르Ira Shor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교사의 지시성이라는 주제를 택했다. 학생을 존중한다는 것은 학생을 순진한 상태로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순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과 함께 그 순진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적인 교사는 학생을 조종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운명 속에 그냥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고 프레이리는 말한다.

“그 반대가 바로 교육에 대해 교사가 갖고 있는 책임감의 거부 또는 자유방임이다.” 이러한 지시성은 타인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명령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과제와 진지한 공부를 지휘하는 사람의 입장이다. “그것은 교사의 권위주의와 학생들의 방종한 자유가 아닌, 지시성과 자유를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민주적인 입장이라고 부른다.”⁶

모든 교육의 지시적인 본질로부터 이동하여, 파울루 프레이리는 학생을 해방시키는 지시적인 교사와 학생을 길들이는 지시적인 교사를 구분한다.

첫 번째 교사는 학습 대상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고 교실 안에서 동지애가 넘치는 분위기를 조장함으로써 교수요목의 실재를 보여 준다. 두 번째 교사는 현실을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축소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조작하며 학생에게 탁자를 의자라고 믿도록 설득하려 애쓴다. 따라서

그는 듣지 않고, 세심함이 없고, 진정으로 소통하지는 않고 단지 소통하는 시늉만을 할 뿐이다.

물론, 교사와 학생은 같지 않다. 교사는 점수를 매기고 과제를 부과한다. 교사의 비판적 능력은 학생들과는 다르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학생을 해방시키는 교사에게는 “이런 (교사와 학생 간의) 차이들은 권위주의적인 교실에서처럼 적대적인 것이 아니다. 해방적인 (교사의) 차이는 교사가 자기 자신의 지시성을 민주적인 태도를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긴장 관계이다.”⁷

권위적인 교사는 인간화하기보다는 비인간화한다. 그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현실을 새롭게 읽도록 요청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는 현실을 이미 완료되고 완결된 것으로, 단지 거기에 적응하기만 하면 되는 어떤 것으로 제시한다. 학생들은 어떤 변화도 경험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스스로 제어하도록 하는 대신에, 그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지식 꾸러미를 학생들로 하여금 단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다른 한편으로, 학생들을 해방시키는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이끈다. 이런 의미에서는 인식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구나 슬로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파울루 프레이리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닌 세상을 다시 만들면서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다시 만드는 가운데 자기 자신들을 다시 만들어 내는 인간으로서 인간이 되는 근본적 방식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만들어 감으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교육과 인간화의 관계를 이렇게 매우 압축된 공식으로 정리한 것은 1975년 9월, 이란의 페르세폴리스에서 있었던 국제 문해 교육 심포지엄에서였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이렇게 끝맺고 있다.

“에바는 그 포도를 보았다”라는 문장을 그저 기계적으로 읽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하고 이 일로부터 이윤을 만들어 내는 에바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문해 교육 프로그램의 중립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읽고 쓰기를 배우는 것과 동시에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정치적인 행위라고 말할 때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현실을 부정하는 방식이 아무런 정치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들은 틀린 것이다.⁸

《교육과 변화 Education and Change》라는 책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 그는 만약 한편으로 모든 근본적인 변혁이 “빛나는 선구자 lucid vanguard”를 전제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혁이 대중과의 대화 속에서 자라나고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대중을 잘 알게 되어 대중과 함께 “역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을 성취하게 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파울루 프레이리는 인본주의와 교육의 기술적인 요소들 간의 거짓된 딜레마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민중들의 기술적 능력을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교육은 보편적인 인간적 교육이 없는 기술적 능력으로 영락해 버린 교육만큼이나 비효율적이다.”

안토니우 파운데즈 Antonio Faundez와 나눈 대담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전투적인 정치적 지식인과 대중들의 관계를 이렇게 언급한다.

“전투적인 정치적 지식인은 혁명적 사회 변혁에 관한 메시아적인 관념을 극복할 수 없게 되면 권위주의자가 되거나 자신의 권위주의를 강화시킬 위험을 항상 무릅쓰게 될 것이다.”

그는 민중들과 만나기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었던 체 게바라와 아밀카르 카브랄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덧붙인다.

“사실, 민중들과 만남을 옹호하는 자세는 팔짱이나 끼고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며, 지식인의 역할이 조수, 보조자,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그의 역할은 자신의 능력을 민중들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다.

“지식인은 자신의 비판적 능력이 민중 정서의 비판적 능력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현실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⁹

파울루 프레이리의 교육학에서는 사실을 느끼는 것과 그 존재 이유를 배우는 것 사이의 이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몇 페이지 뒤에서, 그는 마르크스가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르주아 지식인들이 대중과 함께 배우는 것을 꺼리는 것에 대해 화가 나서 하는 말들을 기억해 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해방시키기에 너무도 교양이 없어서 대부르주아지와 프티부르주아지 출신인 저 위에 있는 박애주의자들에 의해 해방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공표하는 그런 자들과는 함께 진군할 수 없소.”¹⁰

이런 점 때문에 파울루 프레이리는 피억압자들의 교육학은 또한 학교와 정치적 투쟁 모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문제 제기의 교육학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대단히

민주적이고 반권위주의적인 교육학이며 즉흥적이거나 자유로운 보수주의의 교육학이 아니다.

자유를 위한 문화적 행위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파울루 프레이리에게 교육은 세계의 변혁(transformation)을 매개로 하여 인간이 변화하는 계기이다. 이러한 틀에 기초하여, 그는 교육학의 한계 너머로 쉽게 확장하여 경제학, 정치학, 사회과학의 영역에 자리 잡는 상당한 연구 성과를 발전시킨다. 그의 이론적 연구 틀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이 “적용”과 연구를 통하여 더욱 발전시켜 왔다. 파울루 프레이리 자신의 성과물도 상당하다. 그의 성과물은 그의 이론적 진화와 함께 가장 중요한 실용적인 제안들에 대한 심취를 보여 준다.

《확장인가 의사소통인가?》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네 가지 차원에 기초하여 자신의 지식 이론을 논의하고 있다. 그 네 차원이란 논리적(지식의 방법론과 연관하여), 역사적(지식과 맥락의 관계에 관하여), 인식 논리적(지식의 목적에 관하여), 그리고 대화의(지식의 소통과 관련하여) 영역이다. 프레이리는 마지막 차원에 가장 큰 주의를 기울였다. 즉 생각하는 주체는 혼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의사소통이 단순해야 한다고 믿는다. 비록 복잡하다 하더라도 이해되는 모든 것은 단순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함(simplicity)은 극도의 단순주의(simplism)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함을 이용하여 누구든 접근할 수 있고 복잡하지 않은 방식으로 대상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극도의 단순주의로는 조사하고 있는 대상의 외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대상을 진지하게 다룰 수가 없다.”

《자유를 위한 문화적 행위》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지배적인 교육의 이데올로기적 분석을 확장하면서 그 유사 중립성과 빈틈없는 영악함을 맹렬히 비난한다. 그는 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잡초’, ‘병’, ‘사람들의 무능함’, 그리고 ‘문맹 퇴치’와 같은 표현들에서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발견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교과서를 가르치는 데 사용되는 단어와 표현들은 우리에게 기저에 깔려 있는 이데올로기의 좋은 예를 제공한다. 노동자계급의 아이들은 흔히 “못난 놈(inferior)”, “실패작(failures)” 또는 “미래가 없는 놈(with no future)”으로 불린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1984년 상파울루 대학에서 ‘교회와 권력’이라는 과정 중에 했던 어떤 강연에서 우리의 일상 언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언어 담론에서 권위주의와 인종차별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는 권력, 즉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백인의 권력 역시 인

종차별주의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종적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브라질에는 인종차별이 존재한다. 인종적 민주주의는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마리아를 아세요?”라고 묻는다면, 상대는 “알죠. 그녀는 키 작은 껌둥이(pretinha, 프레치냐, 작은 흑인 여자)죠……. 하지만 그녀는 멋져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이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했다. 첫째, 프레타^{흑인이 주}를 프레치냐^{pretinha}라고 표현하는 지소사가 감미료처럼 쓰이고 있는데 이 감미료가 바로 인종차별적인 것이다. 둘째, 지소사인 ‘프레치냐’ 외에도, 언급된 문구에는 대조의 접속사인 ‘하지만’이라는 말이 들어 있다. 왜 ‘하지만’인가? 아무도 “나는 아무개를 안다. 그녀는 키가 작은 금발 여자인데 멋진 푸른 눈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이라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끝맺는다. “우리는 학교에서 접속사가 무엇인지 배우지만, 접속사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권력의 문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배우지 않습니다.”

파울루 프레이리의 연구에서는 이런 철저한 분석들은

흑인이 주
 preta는 검은이라는 뜻이다. 포르투갈어에서 형용사 뒤에 inho/a가 붙으면 애칭 표현이 된다.

매우 흔한 것이다. 전직 포르투갈어 교사로서, 그는 말로 하는 것이든 글로 쓰인 것이든 간에 표현에 엄청난 주의를 기울인다. 그는 항상 그것이 은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려 애쓴다. 그는 교실에서 어떤 숨겨진 편견의 예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교육한다.

《자유를 위한 문화적 행위》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이론을 형식적 표현주의에, 행동을 행동주의에 대비시킴으로써 자신의 지식 이론을 다시 상술했다. 그는 이론과 실천의 통합이 교육적 행위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며 이러한 교육적 행위는 결국 자유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의식화(그의 첫 번째 저서에서 시작하여 널리 퍼지게 된)의 개념을,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의식화가 사용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즉 의식화란 “현실에 대해 행동한다는 의식”으로 이해되는 것이지 “의식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의식화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이론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문화적 행위”와 “문화적 혁명”은 해방적 행위의 두 가지 계기이다. 전자는 지배 계급에 반대할 때 발생하며, 후자는 정치적, 사회적 혁명 후에 발생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혁명이 확립되기 전의 혁명적인 교육 형태가 있고, 혁명이 확고히 자리 잡은 뒤에 또 한 가지의 혁명적 교육이 있다. 처음에는, 권력 기반들 내부에서 교육이 만들어질 수 없는데 이것은 이 권력 기반들이 모든 것을 침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교육은 조합들이나 비인민주의 대중 정당들과 같은 대중 사회운동 내부에서 발생되어야 한다. 반역자였던 교사들이 이편에서 다른 편으로 전향하게 하고 자신의 계급을 자살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혁명적 외침이 권력을 잡게 되면, 혁명적 교육이 또 다른 차원을 맞게 될 것이다. 즉 전에는 다름과 도전을 위한 교육이었던 것이 체계화된 교육으로 변모하여 사회의 새로운 창조를 돕고 다시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그전 단계에서는 교육이 대중에게 적대적이었던 권력의 타도라는 소명을 도왔지만 이제는 대중의 편에서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인간을 건설하는 일을 돕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¹¹

기독교 사회주의와 유토피아

파울루 프레이리가 청년기부터 몰두했었던 실제적인 가르침은 자신의 종교적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젊었을 때 “그리스도가 주는 어떤 즐겁고 대담한 친밀감”과 넘치도록 “다정한 기독교적” 환영에 이끌려 헤시페 근교의 후미진 시골 지역에 있는 운하와 언덕으

로 간 적이 있다고 말한다. 그때, 민중들의 극적이고 도전적인 현실이 그를 다시 마르크스에게로 데려다 놓았지만, 마르크스는 그가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좌파 사상가로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반동분자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마르크스주의자라는 것이 비인간적인 관료주의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믿는다. 기독교 신자는 착취를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의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었다. 이 운동의 정치적 의식은 프레이리로 하여금 자신이 교육자이자 기독교 신자임을 통해서 정치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다. 그가 기독교 신자로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자로서도 중립적이기는 불가능했다.

파울루 프레이리의 사상은 유토피아적인 것이지만,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에겐 유토피아가 이상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고발denunciation과 수태고지annunciation 행위의 변증법이다. 즉 그것은 비인간화시키는 구조를 고발하고 인간화의 구조를 알리는 행위이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유토피아는 역사적인 책무이다.”¹²

유토피아의 주제에 관해서, 지아나 쿠냐Diana Cunha는 다

음과 같이 언급했다.

유토피아가 무엇인지에 관한 그의 정의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유토피아를 인간이 실행 가능한 것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유토피아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유토피아적이라는 것은 비인간적인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며 보다 인간적인 미래를 위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토피아라는 개념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오직 미리 고안된 기획일 뿐인데, 이것은 역사적 행동의 일부분으로서의 기획이 될 뿐이며, 그 기획이 성공 가능하고 현실적인 것이 되는 그런 유토피아를 말하는 것이다. 유토피아와 그것의 실현 사이에는 역사적 시간(historical time)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변혁을 위해 행동하는 시간이며, 우리의 현실을 건설하는 시간이다. 유토피아만이 예언적이며,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그리고 고발하고 선언하는 그런 유토피아들만이 예언적일 수 있다. 즉 억압자들은 다른 나머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어떤 변화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언적일 수가 없다.¹³

5 브라질을 다시 배우다

사면되기 1년 전에 파울루 프레이리는 브라질에서 처음 열리는 브라질 교육 세미나에 참가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지만, 또 한 번 여권 발급을 거부당했다.

캄피나스에서 열렸던 그 세미나 주최자들은 파울루 프레이리가 전화로 들려준 메시지를 녹음하여 참가자 800명에게 들려주었는데, 이 녹음 메시지조차도 겨우 검열을 통과한 것이었다. 이 메시지에서 그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브라질의 정취에 대한 극심한 향수를 이야기했다.

법원 명령을 얻은 후에, 프레이리는 많은 나라에 있는 브라질 영사관들에서 조직적으로 거부당했던 여권을 겨우 손에 넣을 수 있었다. 15년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57세가 되어서야 그는 캄피나스의 비라코푸스 공항에 도착



파울루 프레이리가 15년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브라질로 돌아와서 상파울루 주 캄피나스에 있는 교육과 사회 연구센터 CEDES를 방문했을 때의 모습. 좌에서 우로 마우리시우 트라그텐버그Mauricio Tragtenberg, 카를루스 호드리구에스 브란다오Carlos Rodrigues Brandão, 그리고 모아시르 가도치.

함으로써 귀국하게 되었다. 프레이리는 브라질의 정치와 교육 발전 과정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았을 때,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작업을 계속 해 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나는

우리의 현재 실상을 더 잘 이해하려면 이곳에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15년간의 부재는 오늘날의 브라질에 대해 더욱 친밀감을 가지고 배울 것을 요구한다.”

망명 생활이 프레이리에게 쓰라림과 지나친 향수병을 남긴 것만은 아니었다. 브라질의 교육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던 그의 귀국은 군사독재 정부로부터 비난을 받던 교육 문제들에 대한 논쟁에 다시 활기를 불어일으켰다.

1980년 3월, 캄피나스 주립 대학을 방문 중이던 파울루 프레이리는 그 대학에서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두 번째 제의를 받았고 즉시 수락했다. 교육 학부의 책임자인 에드아르두 샤베스Eduardo Chaves는 파울루 프레이리를 천거하기 위해서 자리를 하나 비워 두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 대학의 총장이 승인을 보류했고, 교수진과 학생들 양쪽 모두가 항의를 한 후에야 계약이 성사되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상파울루 가톨릭 대학의 대학원 과정 교육 프로그램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가 아직 망명 중일 때, 그는 교육과 사회 연구센터 Center for the Study of Education and Society, CEDES 창립자들 중 한 명이었는데, 이 기관은 〈교육과 사회Educação e sociedade〉라는 잡지와 함께 1978년 제1회 브라질 교육 세미나가 진행되던 중에 시작되었다.

1981년에 그는 상파울루에서 교육 연구센터인 베레다 Vereda의 창립을 도왔다. 이 센터는 대중 교육 분야에서 일하려는 교사들에 대한 연구, 지원 및 훈련을 책임지는 기관이었다.

파울루 프레이리가 브라질에 대해 다시 배운 방법들 중 한 가지는 바로 교사 운동과 대중 교육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1981년 4월에 열린 미나스 제라이스 주에서 온 교사들과 토론하고 특히 노동계급의 투쟁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노동계급에 대한 관여는 망명 기간 후에 그가 썼던 저서들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다.

이 저서들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자신이 성장했던 지역의 비참한 현실에서 발견되는 배고픔이나, 어떻게 마르크스에 대한 친근함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았는지와 같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그는 또한 조종하고 길들이는 힘을 가진 브라질 텔레비전이 피지배 계급들을 소외시키고, 다가갈 수 없는 꿈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과 텔레비전이 권위주의와 나란히 손을 잡고 협력한다는 사실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그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들이 자신들을 조종하게 하고 자신들에게 부과되는 교수요목을 그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주체로서 자신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고 자신들의 교육을 스스로 주도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교사들이 자신의 학생들에게 제안할 것을 권장했다. 프레이리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다.

“교육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 이전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교육을 필요로 한다.”¹

새로운 맥락, 새로운 사상

파울루 프레이리의 재학습(relearning) 개념은 그 자신에 의해, 그리고 자신에 관해 출판된 많은 저서들에서도 발견된다. 우리는 교육과 교육자의 훈련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점에 강조점을 둘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학습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과정 그 자체이다. 그 저자들 중 많은 수가 프레이리와 함께 경험을 공유했고 같은 실천과 교육 이론을 공유한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집단 작업인 피억압자들의 교육학의 다양한 맥락들 안에서의 생산과 갱신을 강조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쓰고 다시 쓰는 작업의 중요성을 자주 재차 확인했다.

그는 젊은 교사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학습의 원천이 되는 그들과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러한 재학습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자.

1979년, 《교육과 변화 Educação e mudança》 브라질 판이 발간되었다. 이 책은 사회적 변화 과정 속에서 교육 체계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내용이었다. 이 책에서, 파울루 프레이

이리는 교육학적 행위의 한 범주로 헌신(commitment)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것은 정치적인 헌신이지만 또한 학생들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것에도 적용된다. 그는 또한 순진한 의식의 특성들을 분명하게 도식화한다. 이 책은 릴리안 로페스 마틴스(Lilian Lopes Martins)와 내가 직접 번역했는데 프레이리의 귀국 시기와 우연히도 때맞춰 출판되었다. 나는 그 책의 서문도 썼는데 그 서문에서 나는 단순히 대화 자체만으로는 계급 사회에서 변화하는 교육학에 충분치 않다는 추정으로 시작하여, 대화와 갈등 간의 관계를 논의했다. 후벵 알베스(Rubem Alves), 마릴레나 샤우이(Marilena Chaui), 카를루스 호드리게스 브란당(Carlos Rodrigues Brandão), 바닐다 파이바(Vanilda P. Paiva), 루이즈 에두아르두 완덜레이(Luiz Eduardo Wanderley)를 포함하는 다른 교육자들과 함께, 프레이리는 1980년에 《민중 교육의 정치적 문제》(A Questão política da educação popular)를 출판했다. 이 책에서는 교육이 대중 계급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와도 연결되어 있다.

파울루 프레이리에 관한 연구

시우비아 마리아 만프레디(Silvia Maria Manfredi)는 1981년에 《정치와 민중 교육》(Política e educação popular)을 썼는데, 이 책

에서 저자는 1960년대 초반의 경제적, 정치적, 교육적 특성들과 파울루 프레이리의 방법론과 그 방법론이 교육 실험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보여 주었다. 그녀는 1, 2, 3학년의 모든 학습 영역에서 교사들의 전문적 발전을 돕는 주제들을 조사했다.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의 주제를 계속 연구해 왔지만, 파울루 프레이리가 연구한 이 분야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1981년에 나온 《소통과 문화: 파울루 프레이리의 개념들》(Comunicação e cultura: as idéias de Paulo Freire)이라는 책은 프레이리 사상의 사회적 맥락,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프레이리 사상의 중요성, 그것이 다루는 언어의 변증법적 본성을 고려하는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에 대한 프레이리의 사상 등을 기술하고 있다.

1982년에 와그네르 곤사우베스 로시(Wagner Gonçalves Rossi)는 《노동자의 페다고지: 사회주의 교육의 여러 방식들》(Pedagogia do trabalho: caminhos da educação socialista)이라는 책에서 브라질 독자들에게 가장 덜 알려진 작가들(마카렌코와 프레네)을 우선적으로 해서 작가들과 자료를 선별하고, 존 듀이, 그람시, 스니데르와 니텔코프에 관해 간략하게 논의하고, 피스트라크(Pistrak)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연구한 다음, 원래 북미의 독자들을 위해 썼던 간략한 해설판을 포함하여 파울루 프레이리에게 한 장을 할애했다. 로시는 사회주의 교육학 역사의 발전 안에 파울루 프레이리를 위치시

졌다. 로시는 이것을 노동의 교육학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가 분석하는 모든 교육학자들이 노동을 근본적인 범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마카렌코는 육체노동(manual work)의 가치를 믿었으며 자신의 학생들과 함께 기계를 만들었다. 유사하게, 프레네와 듀이는 노동을 배움에서 방법론적인 요소라고 평가한다. 듀이는 이렇게 단언한다. “행함으로써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로시가 분석한 다른 저자들에서, 노동(work)은 인류학적인 교육원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교육이 인간을 훈련시키지만, 자신의 훈련에 책임져야 할 존재는 바로 인간 그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물질적·정신적 실존을 만들어 내면서 스스로를 구축한다.

세우주 지 후이 베이시에 젤은 파울루 프레이리의 사상과 교육적 실천을 연구 대상으로 한 저서 《정치와 민중 교육: 파울루 프레이리의 이론과 실천(Política e educação popular: a teoria e a prática de Paulo Freire no Brasil)》을 1982년에 출판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브라질 가톨릭교회의 사회적 행동에 영감을 주었던 사상들, ISEB에서 형성된 국가 발전 사상, 앵글로색슨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그리고 파울루 프레이리가 헤시페의 대중들과 함께 한 교육적 실천 등이 프레이리의 문해 교육과 의식화 방법론의 탄생에서 어떻게 그 시작점이 되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1979년과 1981년 사이에, 로올라 출판사는 파울루 프

레이리에 관해 카를루스 알베르투 토히스(Carlos Alberto Torres)가 쓴 책 세 권을 출판했다. 그 책들은 《의식과 역사: 파울루 프레이리의 교육적 실천(Consciência e História: a prática educativa de Paulo Freire)》, 《파울루 프레이리와 대화(Diálogo com Paulo Freire)》 그리고 《파울루 프레이리 비판적으로 읽기(Leitura Crítica de Paulo Freire)》이다. 토히스는 파울루 프레이리의 인류학적이고 방법론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그의 논문들 중 한 편에서, 그는 헤겔식 변증법과 문제 제기식 교육철학 사이의 관계를 검토한다. 그는 그 (두 가지 간의) 차이가 바로 자기의식(auto-conscience) 개념에 있다고 결론 내린다. 헤겔에게 그것은 이상주의적이고 주관론적이다. 파울루 프레이리에게는 그것이 타자(the Other)의 의식과 통합된다. 철학자인 엘리세우 신트라(Eliseu Cintra)가 쓴 논문 “파울루 프레이리에게 타자의 의미”에 따르면, 타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1) 개별성을 가진 인격으로서 타자의 가치에 대한 윤리적 선택을 통하여, (2) 타자를 한 인간으로서 나를 완전하게 만들며 나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3) 타자를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그에게 여는 대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타자성(alterity)의 개념은 기독교에서 온 것이다. 그리고 의식화 교육이 반대화주의(antidialogicism)를 극복하려는 것도 이런 방식이다.

1986년, 유니세프 자문 위원인 에콰도르의 교육자 호자

마리아 토히스Rosa Maria Torres가 파울루 프레이리와 한 인터뷰에 기초하여 그에 관한 중요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녀는 프레이리의 이론과 실천을 브라질과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역사적 맥락에 적용하여 연구했다. 이 연구는 《민중 교육: 파울루 프레이리와 만남 Educação popular: um encontro com Paulo Freire》이라는 제목으로 1987년에 출판되었다. 마르셀라 가자르두Marcela Gajardo와 카를루스 알베르 토히스Carlos Alberto와 유사하게, 호자 마리아 토히스는 파울루 프레이리의 연구를 쉽게 설명하고 불변의 가치를 부여하도록 도왔다.

마이애미 대학의 피터 맥라렌Peter McLaren은 《학교에서의 생활: 교육의 기초에 있어서의 비판적 교육학 입문 Life in Schools: An Introduction to Critical Pedagogy in the Foundations of Education》이라는 제목으로 비판적 교육학과 교육의 기초에 관한 책을 썼다. 그는 비판적 교육학의 보다 광범위한 시각 안에서 해방 교육학을 의미 있는 경향으로 규명했으며, 파울루 프레이리를 조너선 코즐, 존 듀이, 마이클 애플, 헨리 지루 등과 같은 명망 있는 교육자들과 같은 반열에 두었다.

1990년에 카를루스 알베르투 토히스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비정규 교육의 정치학The Politics of Nonformal Education in Latin America》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인 저자는 이 책에서 라틴아메리

카 성인 교육 발전에서 파울루 프레이리의 중요성과 멕시코, 쿠바, 니카라과 등의 나라들에서 국제적 교육 정책에 미친 그의 영향력을 보여 주었다. 토히스는 또한 존 듀이와 안토니오 그람시가 파울루 프레이리의 연구에 미친 영향과, 프레이리와 독일 철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의 이론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도 지적했다.

토히스는 현재 프레이리에 관하여 단연코 가장 의미 있는 연구들 중 하나로 증명될 《파울루 프레이리: 교육의 정치철학Paulo Freire: Political Philosophy of Education》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우선 프레이리의 연구를 특징짓는 실존주의, 현상학, 마르크스주의 등의 철학을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종교와 신학에 대한 비판, 철학과 정치학에 대한 비판,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소외와 같이 프레이리가 헤겔과 마르크스를 읽고 그로부터 받은 영향을 강조한다. 헤겔에 의해 발전된 주인과 노예 사이의 변증법은 《페다고지》의 주요한 이론 틀로 간주될 수 있다. 그의 의식화 이론 전체가 헤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 이론은 1960년에 출판된 《의식과 국가 현실Consciencia e realidade nacional》의 저자인 브라질의 철학자 알바루 비에이라 핀투Alvaro Vieira Pinto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에 의해, 그리고 1965년에 나온 프란츠 파농의 책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과 1967년에 출판된 알베르트 멤미Albert Memmi의 책 《식민 지배자와 피식민자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를 읽은 것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또한 프레이리의 작업과 그 작업이 미국 내의 교육자들과 문화 연구자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서들 중의 하나인 《파울루 프레이리: 비판적 조우 Paulo Freire: A Critical Encounter》가 피터 맥라렌과 피터 레오나드에 의해 편집되어 1992년 인쇄되었다.

오늘날의 파울루 프레이리

지칠 줄 모르는 독서가인 파울루 프레이리의 최근 독서 목록에는 마르크스주의의 고전과 현대 작가들인, 위르겐 하버마스, 보그단 수호돌스키 Bogdan Suchodolski, 조르주 스니데르 Georges Snyders, 로자 룩셈부르크, 아그네스 헬러, 클로드 르포르, 게오르그 루카치, 루이 알튀세르, E. J. 홉스봄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83년, 유니세프는 라틴아메리카의 버려진 아이들을 구하고 돕는 대안 수단을 찾기 위해서, '버림받은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지역 프로그램 Regional Program for Abandoned and Street Children'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정부, 가톨릭교회, 민간 단체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일련의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이 계획의 첫걸음은 《파울루 프레이리와 거리의 교육자들 Paulo Freire e os educadores de rua》라는 책을 스페인어로 출판하는 것이었는데, 이 책은 거리에서 태어나고 살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버림받은 아이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책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 내는 환경과, 길거리 교육의 실천과 그 어려움, 그리고 길거리 교육의 놀라운 교육상의 특징들과 전반적인 특성들을 논의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자유를 질식사시키는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책임한 방종을 거부하는 교육학을 제안한다.

브라질로 귀국한 이후로 파울루 프레이리는 정말로 다양한 기관들에서 실시하는 많은 행사와 강좌와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그는 이러한 참여를 정치적이고 교육적인 활동으로 간주했다. 그는 마틴 카노이 Martin Carnoy와 함께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 대학에서 집중 과정을 진행했고, 1983년 8월에는 브라질의 상파울루 대학에서 교육 포럼을 개최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상을 받았는데 그 한 예로 벨기에에서 국제 발전 부문에 대하여 킹 발두인 King Balduin 상을 수상하였으며 1986년에는 유네스코에서 평화를 위한 교육상을 수상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유네스코로부터 이 마지막 상을 수

상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빠져버진 사회 현실을 극복함으로써 평화는 창조되고 구축된다. 끊임없는 사회 정의 구현으로 평화는 창조되고 구축된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불평등한 세상을 드러내는 대신 그것을 불투명하게 하고 그 희생자들의 눈을 멀게 하는 평화 운동을 위한 어떤 교육도 믿지 않는다.”

1987년 6월이 되어서야 파울루 프레이리는 비로소 페르남부쿠 연방 대학의 교수 자리를 겨우 되찾을 수 있었다. 이는 새로운 공화국에서 통과시킨 법령에 따른 것이었는데 1964년에 군사정부가 행한 부당한 조치를 보상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 파울루 프레이리는 캄피나스 대학과 캄피나스 가톨릭 대학에서 자문 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다른 대학들에서도 때때로 강의를 하고 있었다.

1980년에 그는 상파울루에서 노동자당 *Partido dos Trabalhadores, PT*에 가입했다. 1980년부터 1986년까지, 그는 윌슨 피네이루 *Wilson Pinheiro* 재단의 책임자이자 창립자로 일했는데, 그 재단은 노동자당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성인 문해 교육 프로젝트를 직접 감독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윌슨 피네이루 재단에 의해 상파울루 핵심 지역에 있는 지아데마 지역에서 조직되었다.

이 시기의 그의 교육 경험 중 일부에 대한 설명은 책으로 출판된 다른 지식인들이나 교육자들과의 “대화

dialogues”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지식 생산의 대화적인 본질을 주된 범주로 하는 지식 이론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참여 연구의 방식으로 새로운 방법론적인 패러다임을 시도했다. 이렇게 해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과학적 엄격함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이 엄격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엄격함이란 우리에게 결정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대상의 방법론적인 근사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결정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대상의 방법론적인 근사치인 이 엄격함은 불현듯 갑자기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단련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며, 예전에 타당하면서도 결정적인 것으로 여기던 순진한 과정을 극복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깊게 이해한 실천을 암시한다. 엄격함과 결과의 정확성의 역사적 본질이 없이는 과학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이 두 가지는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의 역사성을 설명한다. 과학이 사람들에게 확실한 지식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상황이 이렇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다. 나는 이런 명백한 진술이 행해지는 순간, 호기심과 보다 정확한 결과에 대한 더욱 엄정한 엄격함에 대한 추구가 커지리라고 믿는다.²

이 방법론을 이용한 파울루 프레이리의 경험은 일련

의 연구들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연구들 중에는 세르지우 기마랑이스와 함께 썼던 두 권으로 된 《교육에 관하여 Sobre a educação》가 있다. 이 책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자신의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학교생활을 통하여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학교를 검토한다. 그는 또한 대중매체들이 오늘날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텔레비전에 관해서 그는 세르지우 기마랑이스와 나는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텔레비전 시대의 사람이다. 또한 나는 라디오 시대의 사람이다. 예를 들면 나는 연속극을 시청하고 연속극을 비판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다. 이것은 참 재미있다. 시청자로서, 나는 내 자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은 나를 지치게 한다. 왜냐하면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과 맞붙어 싸운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광고는 거의 없다. 드물게는, 나는 광고들을 분석하기도 한다. 아마도 당신은, “하지만 파울루, 당신은 수업을 듣는 것처럼(그는 웃는다) 텔레비전을 볼 수는 없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이것이 내 존재 방식이다. 즉 나는 광고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그 즉시 그 안에서 계급, 성, 그리고 인종적 분리를 발견한다. 나는 여기 브라질에서보다 그런 분리가 훨씬 덜 두드러지는 유럽에서 이

미 이런 작업을 했었다.

내가 소위 통신수단의 문제에 관해서 생각할 때, 내가 동시대 사람들처럼 느낀다는 점은 금세 분명해진다. 나는 텔레비전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내 생각에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권력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통신수단의 문제에 관해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통신수단이 그 자체로는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수단은 기술적 진보와 인간의 창의력의 표현과 인류에 의해 발전된 과학의 결과이다. 문제는 통신수단이 누구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권력과 정치에 연관된 문제이다. 나는 이런 문제시되는 상황이 해결되면 통신수단이 우리에게 기술적 해결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³

정보 기술의 주제에 관하여, 파울루 프레이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정보 기술에 반대하지 않는다. 나는 컴퓨터 사용에 반대하지도 않는다. 나는 이것이 우리 시대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부분이라고 이미 말한 적이 있다. 문제는, 정보 기술이 브라질의 교육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한다면 누구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단연코 그것은 계급의 경험이다. 내가 우려하

는 바는 교육 분야에 이러한 보다 복잡한 수단들이 도입된다면 다시 한 번, 이런 수단들을 가진 자들에게는 유리하고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⁴

파울루 프레이리는 1985년에 출간된 《인생이 학교다(Essa escola chamada vida)》라는 책에서 프레이 베투와 함께 배움을 위한 최고의 방법인 성찰을 통한 실천이라는 주제에 다시 한 번 주목했다. 두 사람 모두 망명과 감옥으로부터 교훈을 얻었다.

그는 칠레의 철학자인 안토니우 파운테즈와 공동으로 《질문하는 법을 배우기: 해방의 교육학(Learning to Question: A Pedagogy of Liberation)》을 썼는데 대화로 구성된 이 책에서 그는 아옌데의 칠레, 기니비사우, 그리고 니카라과와 같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식인의 역할을 분석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진행한 문해 교육 사업에 관하여 두 가지 중요한 관찰을 한다. 어떤 문해 교육 사업도 구두로 하는 의사소통의 뿌리 깊은 전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이 문해 교육 과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또한 그러한 곳에서 자신의 사상을 전개시켜 나가는 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식민주의의 유산이란 형태로 아프리카에서 흔히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인 권위주의 때문이었다.

1985년 나와 세르지우 기마랑이스와 함께 프레이리는

브라질과 해외에서 우리의 작업을 고찰한 저서 《페다고지: 대화와 갈등(Pedagogia: diálogo e conflito)》을 출간했다. 여기서 프레이리는 우리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 중 일부에 대하여 답을 했는데 대화와 갈등의 교육학의 시각에서 그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지식, 권력, 그리고 교육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이 책의 중심 사상은 대화의 교육학이 갈등의 개념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대화의 철학은 갈등에 가치를 부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대화의 철학은 갈등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며 진정한 대화를 완전하게 실현시키는 수단으로서 갈등에 의지한다. 갈등은 역사의 엔진이다. 사회와 지식의 본질(nature)은 서로 대립하는 힘들의 통합과 대립의 결과로서 발전한다. 이런 이유로 대립적인 관계들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갈등의 교육학(Pedagogy of conflict)’은 자유와 헌신과 목표의 명료성에 대한 애정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그것은 개인적인 동시에 실존적이며, 인간적인 동시에 사회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지하는 갈등의 교육학과 프레이리의 대화의 교육학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차이는 바로 우리가 이 책에서 “대화했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한 범주 아니면 다른 범주(대화 또는 갈등)에 관한 강조의 문제라고 결론 내렸다. 갈등을 다루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합의가 아니라 대화다. 갈등 속

에서의 대화는 대립하는 상대방을 제거하지 않고도 극복과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갈등의 교육학은 반드시 대화적이다. 그것은 변증법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적 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것은 다른 경향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닫힌 입장이라기보다는 교육의 열린 시각으로 간주될 수 있다.

1987년에는 북미의 교육자 아이라 쇼르와 함께, 파울루 프레이리는 《두려움과 과감함: 교사의 일상 Medo e ousadia: o cotidiano do professor》을 썼다. 이 책은 교사의 일과를 검토했는데, 이것은 수많은 모순과 갈등의 근원이다. 저자들이 갖고 있던 다른 경험들은 해방의 교육이라는 같은 초점과 평등한 사회에 대한 유사한 꿈에 의해 연결되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그들이 권능이라고 불렀던, 변화의 수단으로서 교육이 가진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가능성에 관심을 가졌다.

세르지우 기마랑이스와 함께 쓰는 《나의 역사에서 배우기 Aprendendo com a própria história》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제 1권은 1987년에 나왔다. 이 책은 자신의 여정과 함께 지식인이자 교육자로서 자신의 삶의 전환점에 대한 자전적 기술이다.

이전에 출판했던 경향에 발맞추어, 1987년에 파울루 프레이리와 도날두 마세두 Donaldo Macedo는 《문해 교육: 낱말과 세상 읽기 Literacy: Reading the Word and the World》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에서 그들은 오늘날의 문해 교육의 위기를 파헤쳤다.⁵

최근 몇 년간, 파울루 프레이리의 사상은 조너선 코졸, 마틴 카노이, 카를루스 알베르투 토히스, 스탠리 아로노비츠, 마이클 애플, 도날두 마세두, 아이라 쇼르, 피터 맥라렌, 헨리 지루 등의 주요한 교육자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미국에서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1990년 12월에는 미국의 교육자인 마일스 호튼과 함께 쓴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교육과 사회 변화에 관한 대답 We Make the Road by Walking: Conversations on Education and Social Change》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엄청난 열정과 희망과 지혜를 담아서 쓰인 책이다. 이 두 저자들은 교육자이자 정치 활동가의 길을 걸어왔다. 마일스 호튼^{1905~1990}은 미국 남부에 있는 하이랜더 센터 Highlander Center의 창설자이다. 하이랜더 센터는 1950~1960년대에 걸쳐 젊은이들과 노동자들의 시민 평등권 운동과 교육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호튼의 생애와 활동은 파울루 프레이리와 무척 닮았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자의 경험과 사상을 논하기 위해 함께 자리했으며, 자신들의 견해와 활동 방식에서 많은 유사점을 발견했다.

대화 형식 dialogue form에 관한 프레이리의 책은 카를루스 알베르투 토히스가 나에게 말한 것처럼, 교육자가 처한

일상의 현실과 교육 실천에 대한 데카르트적 성찰과 같은 형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비록 프레이리가 과학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이러한 그의 최근 저서들은 초기 저서들보다 훨씬 문학적이다.

왜 파울루 프레이리가 이런 방식으로 저술하기 시작했을까? 분명히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나에게는 그 중에서도 특히 한 가지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즉 파울루 프레이리는 강한 구술적 전통을 지닌 브라질 북동부 토박이라는 것이다. 그는 뛰어난 이야기꾼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책들이 대화 형식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이리는 자신의 사상을 다른 사상가들과 비교했으며, 인문학에서부터 자연과학과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전체 학문과 자신의 사상을 관련지었다. 이러한 작업은 또한 자신의 교육학을 교육학의 범주를 넘어서서 지식의 다른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아마도 그는 그람시의 위대한 목표들 중 하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독창적” 발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미 발견된 진실들을 비판적으로 확산시키고 사회화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 도덕적 질서의 조화 안에서 중요한 행동을 토대로 해야 한다. 대중이 일관되고 통일된 방식으로 현실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소규모 지식

인 집단의 전유물로 남는 한 명의 철학적인 “천재”에 의한 새로운 진리의 발견보다 훨씬 더 큰 중요성과 독창성을 가진 “철학적” 사실이다.⁶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교육자로 전 세계에 알려진 파울루 프레이리는 71세에 아내를 잃었고 엄청난 상심에 빠졌다. 우리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몇 달을 고통 속에서 보낸 후, 낙담하지 않으려고 싸우면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서서히 교육과 변화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다시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그는 심기일전하여 모든 것을 다시 살고 싶다고 말했다. 운명은 그를 다시 페르남부쿠로 데려갔고, 그는 거기서 다시 한번 주지사인 미겔 아하이스의 제의를 받아들여 교육부 자문 위원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주에서 교육을 재정비하는 것을 돕는 과제를 받아들였다.

이우자의 죽음은 그에게 두 가지 여정을 남겼다. 즉 그녀와 함께 죽거나 또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삶에 대한 선택은 이우자와 희망적인 기억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곁에는 혁명이라는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천과 이론을 두 개로 분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자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수차례 자신이 주관주의 때문에 괴로웠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그는 몇 년 전 의식화 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이 개념은 종종 현실을 바꾸는 데 필요한 행동은 취하지 않고 현실을 순수하게 의식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파울루 프레이리에게 의식화 운동이란 다른 무엇보다도 실천을 통해, 변화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기는 하지만 주관론자들의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이 개념을 포기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열렬한 대중 참여 분위기에 휩쓸려 1964년 이전 몇 년 동안 순진한 실수를 몇 가지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가 일종의 멋진 담론, 단어의 환상을 일으켰다. “법이나 무력에 의한 토지개혁”과 “과정은 역전될 수 없다”와 같은 표어들은 더 강할수록 더 좋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마치 억압자들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억압적인 현실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데올로기와 정치가 고조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기반의 변화는 없는데도 단지 고조된 분위기가 우리를 속이기도 했다고 생각한다.”

그의 첫 번째 책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자신이 이러한 관념주의의 덫에 빠졌었다고 인정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말한다.

“나는 우리가 신화화와 주술적인 말들을 덜 믿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력한 담론이 아닙니다. 일은 더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합시다. 대중을 조직화하고 동원하는 과업을 실행합시다. 이 일은 열렬한 연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매우 용의주도하게 이뤄지고, 누구나 쉽게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실천을 통해서 이뤄집니다.”¹

15년간 파울루 프레이리와 일해 오면서 내가 가장 주목했던 것은 그의 교육학의 근본인 실천이라는 부분이다. 이것은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 그의 급진주의와 역사적인 인내심과 연결되는 그의 일관성이다.

교육학자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일관성은 단순히 그가 쓴 책뿐만이 아니라 그의 존재 방식의 일부이며 그가 언제 어디서나 보여 준 그의 생활의 가장 작은 부분들에서도 나타난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다음과 같이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그는 항상 자신의 실천과 주변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분석한다. 교사로서 그는 학생이 말하는 것을 항상 상세하게 분석한다. 그리고 동의하지 못할 때 그는 공격적으로 답하지는 않지만 강하게 자신의 관점을 대변한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대화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렇게 존중한다고 해서 그가 주의를 흐트리지 않는다는. 자율성은 방치나 자유방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는 항상 개입하고 대화에서 결코 떠나 있지 않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의견을 전한다. 이런 식으로 그는 이끌어 갔다. 교사로서 프레이리는 항상 상당히 많은 그의 경험들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사용하면서 학습 과정을 총괄했다.

그는 교실 밖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다. 우연한 기회에 우리는 한 출판사로부터 책 출간을 논의하자며 접

심 초대를 받았다. 출판사 대표가 식대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요구했을 때, 종업원이 대표에게 물었다. “같은 가격으로 해 드릴까요?” 그 대표가 그렇다고 말하자 종업원은 조금 당혹스러워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그 이면에 있는 타락의 방식 전체를 보여 주고 있는 이 대화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 대표는 더 높은 가격의 영수증을 요구하고 그 차액을 챙길 수 있었고, 이는 일반적인 일이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종업원이 영수증을 만들기 전에 가격을 물어봤던 것이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도덕주의자가 아니다. 만약 도덕적인 것이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는 그렇게 하는 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즉시 덧붙여 말한다.

“이런 식으로는 자본주의를 끝낼 수 없습니다.”

1985년, 국회가 문맹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텔레비전에서 프레이리의 의견을 알고 싶어했다. 짧은 인터뷰 중에, 리포터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문맹인들에게 투표하는 법을 가르치게 되는 건가요?” 나는 그때 프레이리가 자신의 팔을 리포터의 어깨에 올려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투표하는 법을 금방 배울 것입니다. 그냥 투표할 필요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지배계급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투

표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들은 문맹인들의 투표를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 해에 선거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문맹인들은 투표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 동안 가부장적이고 타락한 정치인들에 의해 조작을 당한 덕분에 대중들은 그들이 투표를 통해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문자를 배우고 정부와 해방군, 종교 단체와 같은 곳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 최소 40년간 애써 왔던 교육자 파울루 프레이리는 그저 투표를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선거일에만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는 시민이 양성되어야 한다.

어떤 답도 결정적이지 않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그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평가들은 비판했다. 같은 이유로 그는 자신의 이론을 맥락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단어로만 받아들이는 자신의 추종자들도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그의 첫 번째 책에 그저 만족하고 그가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저작을 스스로 비판한 내용들을 읽어 보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비판했다. 그는 이처럼 배우고 다시 배우는 것이 끝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강의를 부탁받으면 일반적으로 청중들에게 그들 자신의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자고 부탁한다. 일반적으로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누군가 질문을 던진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목을 맑게 하기 위해 사탕이나 초콜릿 한 조각을 부탁한다. 사탕을 먹는 동안 그는 그렇게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고, 자신이 한 애기의 밑작업을 하며, 종종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대화를 시작한다. 그는 “다른 누군가와”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덴마크에서 있었던 어떤 강연에서 그는 약 천 명 정도의 교사와 학생으로 이뤄진 청중에게 거의 네 시간 동안 다양한 사고방식과 근대 교육의 경향들을 연결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강의를 했다.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일, 기꺼이, 즐겁게, 애정을 갖고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쉽다.

한번은, 첫 번째 질문으로 누군가 그에게 “질문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다. 그는 이 걱정스러운 질문에 대해 연구했고 질문하는 행위가 살아가는 행위, 존재를 만들어 가는 행위, 학습하고 창조하고 연구하고 알아 가는 행위와 묶여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는 모든 종류의 질문이 유효하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답도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하고 질문하는 것은 알아 가는 행위의 핵심이다. 그는 또한 권위주의적인 교사들이 매우 자주 학생들의 질문을 억누르거나 학생들이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답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모든 권위주의적 교사들은 명칭하고 지루하며 자신들의 학생들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다룬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겨우 질문하고 연구하고 알아 가는 기쁨을 억누르게 되는 것이다.

프레이리는 “질문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을 집으로 가져갔다. 그 질문은 그에게 달라붙어 그를 따라다녔고 나중에 그가 안토니우 파운데즈와 함께 저술한 《질문의 교육학에 대하여》(Por uma pedagogia da pergunta)라는 어려운 저작에 영감을 주었다.

파울루 프레이리가 혁명적인 교육자의 첫 번째 덕목으로 드는 일관성은 자신의 주요 덕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프레이리는 자주 우리에게 완전한 일관성은 사람을 변화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만 추구하는 것은 명칭한 것이라고 경고하고는 했다.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 자기 자신의 편견들을 무시해야만 한다.

완전한 일관성은 역사에 대한 부정이 될 것이고 인간이 자신의 인생사를 통해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이 될 것이다. 화자의 일관성은 정치적, 교육적인 선택을

표명하는 담론과 그 담론을 확인해 주는, 이 선택에 부합하는 실천 사이의 일관성이다.

일관성은 어떤 과학적인 태도이거나 주관론자의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교육적인 행동의 이론적 개념이며 해방 교육과 민중 교육 이론의 근본적인 범주 중 하나이다. 이러한 대화 이론은 지배 계층의 반대화 이론에 반대된다. 이 때문에 파울루 프레이리는 그들이 지배자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을 혁명가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지배 계층의 권위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말이다. 그는 거짓 혁명가들, 즉 자신들이 대중에 대해 아무런 확신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혁명만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맹렬히 비난한다. 그는 이것을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방은 한 사람, 한 집단 혹은 한 정당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의 일이다.

헨리 지루가 쓴 《급진적인 교육학》(Radical Pedagogy)의 서문에서 프레이리는 혁명적인 교육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이 행동하고 말하고 쓰는 것 사이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종종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교육자의 일관성은 단지 가르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 자신은 엘리트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대중 집단이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하는 모든 정치적 교육적 행동을 순진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자, 그것을 프레이리는 모순의 예로 든다.

혁명적인 교육자: 끈기 있게 조급하라

그러나 일관성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인 꿈과 함께 보여야 한다. 파울루 프레이리가 종종 말한 것처럼 혁명가는 이상과 가능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끈기 있게 조급해야 하므로 모순적이면서도 일관성이 있다. 혁명가는 오늘 가능한 것만을 한다. 그러나 그가 끈기 있게 조급하게 군다면 내일 그는 오늘은 불가능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누군가 이 변증법적 원칙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역사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혹은 반대로 역사적인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마치 역사가 그 자신과 그의 생각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원칙은 그가 민주주의적 급진주의라고 부르는 실천으로 바뀌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개량주의도 아니다. 파울루 프레이리에게 민주주의적 급진주의는 가능한 혁명, 그리고 사회주의의 동의어이다.

인내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조급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

미하는가? 그것은 누구든 자신이 분명한 역사적 순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역사적 순간과 단절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인내심 혹은 조급함 때문에 단절하는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 역사적인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상황과 관계없이 이론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의지주의자^{voluntarist}들의 경우이다. 파울루 프레이리가 말했던 것처럼 의지주의자들은 “혁명을 목요일까지 이루고” 싶어 한다.

이런 점에서 두 번째 경우는 무제한의 인내심 덕분에 조급함을 버려 버린 극도의 보수주의자들과 기계론자의 경우이다. 그들은 결국 수동적이고 폴뿌리주의 - 민중들의 손에 책임을 남겨 두고 그들을 내버려 두고자 하는 운동 - 와 자발성으로 종결되는데 이는 역사를 부인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그래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혁명적 교육자는 인내심과 조급함 간에 역동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인내심이 있으면서도 조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종종 이 표현의 원저자인 아밀카르 카브랄와 관련하여 이 덕목을 언급하곤 했다.

분노의 교육학

망명에서 돌아온 직후 브라질 고이아니아에서 열렸던



교사 회의를 하고 있는 파울루 프레이리의 모습. 1979년.

한 교사 회의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안토니우 비에이라가 쓴 설교문을 거의 40분간 읽었다. 그 설교의 내용 중에는 그리스도가 행한 기적 중에서 어떤 것도 마귀에게 사로잡힌 한 병어리를 고쳐 준 것만큼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는 것이 있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는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 브라질 교육의 권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파울루 프레이리는 이것, 곧 사람들이 굴복해 버린 침묵이 브라질의 가장 큰 질병이라고 덧붙였다. 그 당시에 비에이라가 말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사회계층들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브라질에서 누구보다도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중 계급, 노동자계급이다. 이러한 침묵이 민중 계급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거

나 저항을 멈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브라질에는 공식적인 역사가 언급해 주지 않거나 애써 잊고 있는 저항의 역사가 있다.

지적인 엘리트들을 포함하는 엘리트들의 이 같은 권위주의에 대항하여 그는 《페다고지》와 같은 외침과 연설을 제안한다.

대화의 교육학과 분노의 교육학 사이에, 그리고 대화와 폭력 사이에 모순이 없음을 주목해야 한다. 피억압자들의 교육학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것도 거부하지 않는다. 이것은 파울루 프레이리의 저작에 반복되는 주제이다. 지배와 억압의 상황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폭력이다. 프레이리의 말에 따르면, 폭력은 인간을 존재하지 못하게 한다. 지배계급과 무엇보다도 의사소통 수단들이 지배 계급들이 노동을 착취함으로써 폭력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주변부라고 불리는 민중 계급들이 폭력적이라는 생각을 심어 주고 있다. 《페다고지》에서 이미 파울루 프레이리는 폭력이 피억압자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했다.

만약 그들이 그러한 폭력의 결과물이라면 어떻게 피억압자들로부터 폭력이 시작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목적의식적으로 부추겨져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객관적인 억압의 상황에서 그들을 침해당한 사람

들로 만들어 버린 폭력의 관계가 없다면 피억압자도 없었을 것이다. 폭력을 실행한 사람은 억압하는 사람들, 착취하는 사람들에서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타자를 착취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식되지 않는 사람들, 착취받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공포를 말하는 사람들은 약한 자들이나 공포를 겪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삶으로부터 거절당한” 지친 자들을 만들어 내는 구체적인 상황을 만드는 폭력적인 사람들이다. 폭압을 말하는 사람은 압제를 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폭군이다. 증오라는 말을 꺼낸 사람은 증오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맨 처음 증오한 사람들이다. 인간의 부정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인간성을 부정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성을 부정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인간성도 부정한다. 무력을 말하는 사람은 힘 있는 자들의 무력 앞에 약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약하게 만든 힘 있는 자들이다.²

파울루 프레이리는 그의 생을 통해서 이러한 태도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 《페다고지》가 출간된 지 14년 후인 1982년, 그는 동일한 테제를 계속 이야기한다.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는 또한 폭력과 계급투쟁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만약 여러분이 과용되고 있는 ‘계급투쟁’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다면, ‘계급 갈등, 이해관계의 갈등’이라고 말해도 된다. 이런 표현이 실제로 있다. 그리고 그것을 처음 사용한 것은 심지어 마르크스도 아니었다. 그는 편지에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자신에 앞서 계급투쟁에 대해서 저술했다고 말했다. 교육자로서 나는 그 갈등을 부정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갈등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는 갈등이 양심을 탄생시켰다는 사실을 덧붙이고자 한다. 나의 꿈이자,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변화를 이루는 길을 찾는 것이다. 사회적 비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다. 그러나 나는 갈등과 투쟁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갈등은 심지어 생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³

최근 몇 년 동안, 파울루 프레이리는 내가 언급했던 것에 두 가지 다른 범주를 추가했다. 그것은 분노indignation와 침해invasion이다.

역사적 상황에 의해 강요되는 한계들을 고려함으로써, 그는 교육자들이 분노할 권리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는 단지 교육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는 이 억압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혁명적 교육자들에게 분노의 교육학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렇게 파울루 프레이리는 민중 계급의 뜻을 따르며 부르주아의 질서에는 반대한다. 그래서 그는 민중 교육자들에게 그들이 정부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학교 기관이라는 장소를 차지했을 때, 충직한 고용인으로서가 아니라 부르주아 정부에 대한 침략자로서 그곳을 점령하라고 권고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민중 공립학교 popular public school를 옹호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망명에서 돌아와서 가장 많이 목격한 것이 교육과 연관된 엄청난 사업거리들이었음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독재 정부가 조장한 사유화 정책의 결과였다. 1964년 쿠데타 이전에는 훨씬 작은 규모로 존재했던 일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의 입장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브라질의 교육을 위한 제안이 고려되는 한, 파울루 프레이리는 한 국가의 교육은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집단, 수많은 팀, 그리고 대중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해 왔다.⁴

그는 그가 이 팀들 중 하나에 참여한다면 공립학교들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이론과 실천 사이의 모순, 육체적인 노동과 지적 노동 사이의 모순, 그리고 과거의 지식과 새로운 지식의 양분이다. 다시 말

하면 예를 들어 연구와 가르치는 것(교수)이 이분화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 프레이리

스페인의 교육자인 안토니오 몽클루스 Antonio Monclus는 대화를 통해 작성된 파울루 프레이리의 책이 나온 시기를 마지막 프레이리의 시기라고 불렀다. 《모순의 교육학: 파울루 프레이리 Pedagogía de la contradicción: Paulo Freire》에서 몽클루스는 파울루 프레이리의 저술들이 단순히 교육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의 현재적 고민, 즉 라틴아메리카의 정체성 연구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실천을 위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다. 우리가 후반기의 프레이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가 교수 방법을 발전시키고 언어를 창조해 낸 궤적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우리는 《페다고지》처럼 지난 20년간 출간된 파울루 프레이리의 고전적인 저작들과 현재의 저작들 사이에서 주제적으로 차이를 몇 가지 발견하게 된다.

이 궤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로 기독교적인 주제와 마르크스주의적인 주제 간의 균형이 깨어졌고 최근 저작에서는 사회적 주제에 대

한 강조가 더 강해졌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행동에 대해 예전보다 덜 고려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의식화 운동만이 아니라 민중 계급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강조한다.

두 번째로 망명에서 돌아온 후 브라질의 상황을 접한 파울루 프레이리는 공립학교와 정규교육(formal education)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파울루 프레이리에게 이 주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공립학교의 위치와 기본 교육의 보편화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브라질 교육자들과 자주 만나면서 그는 그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브라질의 교육적 사상에 대한 파울루 프레이리의 기여는 민중 공립학교에 관련된 그의 경험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몽클루스는 이와 같이 초기와 현재의 파울루 프레이리 사이의 몇 가지 차이점들을 기술했다. 공립학교, 특히 지방자치 학교들에 대한 그의 저작의 재창조, 새로운 어떤 것이 지금 발견되었음에도 그의 성인 문해 교육에 대한 문화적 활동은 지속되었다.

시대를 산 사람이었던 파울루 프레이리가 이제 그 자신보다 더 위대한 일들에 관여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공립학교의 사회적 기능의 변화, 즉 민중 그리고 사회주의적 공립학교로 나아가는 일이다. 이 학교는 자본주의 공립학교의 내부에서 서서히 탄생하고 있다.

정부 기관의 바깥에서 혹은 정부 기관에 대항하여 생겨난 소위 민중 교육은 최근 몇 년 동안 의심할 여지없이 위기를 맞이했다. 교회와 연관된 집단과 소위 공동체 학교들을 제외하면 정규 민중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없다. 실제 존재하는 곳들은 종종 연합체와 연결되어 있다. 사회의 민중 집단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동, 청년, 그리고 성인을 위한 모든 단계와 모든 학년을 가진 수준 있는 공립학교이다. “교육은 국가의 의무이며 모두의 권리이다.”라는 말을 브라질 전역에서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현재 관료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공립학교들이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므로 대중은 반드시 민중 의회와 같은 민중이 통제하는 구조를 통해 이런 종류의 학교에 대한 권리를 획득해야 한다. 이것은 1987년 5월 18일 파울루 프레이리가 헌법 제정 회의에 가져갔던 제안이었다. 그때 나와 동행했던 프레이리는 교육 문화 체육 분과 위원회에 공립학교 옹호는 브라질 교육자들의 ‘필수적인 투쟁’, ‘근본적인 투쟁’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새로운 헌법에 제출했다.⁵

파울루 프레이리는 인구가 1200만 명인 브라질에서 가장 큰 도시 상파울루에서 1989년부터 1991년까지 교육부장관으로 복무하면서 그의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1988년 11월 15일 노동자당 PT이 상파울루 지방자치 선거에서 승리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1989년 1월 1일 취임했다. 처음으로 브라질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에서 민중 정당이 권력을 차지했고 사회 복지사이자 사회 행정 교사인 루이자 에룬디나가 시장이 되었다.

파울루 프레이리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그의 행정 능력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⁶ 그의 비법은 민주적으로 정치하는 법을 아는 것이었다. 거의 2년 동안 지방자치 정부의 교육부 수장으로서 프레이리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자신을 보조해줄 수 있는 자문 위원 대여섯 명으로 이뤄진 팀을 구성할 수 있었다. 주 1회 회의를 열었고 그 회의를 통해 보편적인 정책 지침들과 실행에 대한 결정들이 논의되었다. 필요한 경우 새롭거나 또 다른 방침이 채택되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팀으로 일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종종 그가 자주 공격받고는 했던 자발성 강조론과는 상충되게 자신

의 의견을 열렬히 피력했다. 그는 권위를 가졌지만 회의를 민주적으로 운영했고 상당한 인내심을 갖고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했다. 그는 교육이 장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을 변화시키는 일은 역사적인 인내심을 요구한다고 말하고는 했다.

그는 사무국이 교육학적으로는 공허하고 물리적으로는 황폐함을 발견했다. 1989년 2월 상파울루의 잡지인 <레이아Leia>에 프레이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만약 우리가 단지 더 많은 교실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열심히 깨끗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유지한다면, 조만간에 그 공간의 아름다움이 또 다른 아름다움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능숙한 가르침, 배우는 즐거움, 그리고 스스로 훈련하는 자유와 창의적인 상상력, 그리고 창조하는 모험입니다.”⁷

프레이리의 행정에 의해 지방자치 학교 체계에 도입된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는 무엇일까?

그는 사무국의 수장으로서 얻은 경험에 대해 다른 한 책에서 다음과 같이 스스로 답변한다.

“학교에 도입된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는 학교의 자율성⁸을 존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협의회와 학생 연합이 생겨났죠.”

같은 맥락으로 프레이리는 계속해서 말했다.

“학교 자율성의 수준에서 가장 큰 발전은 각 학교 자체의 교육학적 프로젝트를 생성시키는 것에 대해 학교의 심장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학교의 변화⁹를 가속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변화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나는 세 가지의 예를 들 것이다. 영구적인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청년들과 성인을 위한 문해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학제 간 교육과정의 실행이다.

1. 영구적인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행정을 시작한 초기부터 파울루 프레이리는 지방자치정부의 교육자들을 영구적으로 형성시키는 데 전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 훈련을 위한 그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과 근본 원리들에 기초하고 있었다.¹⁰

원칙

- a. 교육자는 자신이 실천의 주체이다. 자신이 매일 실천한 것을 반추하여 교육적 행위를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 b. 교육자의 훈련은 영구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실천이 구성되고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 c. 교육학적 실천은 지식의 기원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하면 앎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d. 교육자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을 새롭게 방향 전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근본 원리

- a. 구상하고 있는 학교의 생김새는 교육학적 제안의 지평만큼 중요하다.
- b. 다양한 과목 분야의 교육자들을 위한 기본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c. 교육자가 만들어 낸, 인간 지식의 과학적 발전의 전유는 학교에 기여하게 될 가능성과 함께 구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브라질에서 500년간 이어진 권위주의적 전통을 고려했을 때, 파울루 프레이리는 이 프로그램과 함께 새로운 교육학적 태도를 위해 교사들을 훈련하고자 했다. 그렇게 굳건하게 자리 잡은 전통이 겨우 몇 년 안에 극복될 수는 없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정치적인 단호함과 능숙한 기술, 애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실행을 통해 이러한 전통과 성공적으로 싸워 갔다.

교육자 훈련은 민주주의의 단순한 이론적 과정을 초월한다. 훈련은 실천과 민주적인 과정에 교사들이 진정으로 참여하면서 진행된다. 민주주의의 실천은 민주주의의 정보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다.

2. 청년과 성인을 위한 문해 프로그램

루이자 에룬디나는 우선순위를 뒤집는 분명한 제안을 하여 남아메리카의 가장 큰 도시를 다스리는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녀의 선출은 민중 참여의 도입을 위한 더 나은 가능성들을 열어 주었다.

결정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음의 것들이 필요하다.

- (1) 사회적 운동과 그 조직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
- (2) 새로운 행정부로부터 시작하여, 참여의 통로를 열어 주는 것.
- (3) 정치적 투명성, 즉 정보의 폭넓은 민주화.

민중 참여는 성인 교육에서 효과적인 절차이다. 그 이유는 도시의 변화에 대한 주제들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중들에게 시민권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고 강화

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이론은 조직화되었거나 그렇지 않은 대중이 행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예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공공 행정을 결정하고 또한 변화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들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의 민주화 없이는 효과적인 민중 참여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정치적이고 교육학적인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교육 사무국은 '상파울루 시 문해 운동(MOVA-SP)'라는 이름을 단 청년과 성인을 위한 문해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파울루 프레이리와 또 한 명의 유명한 교육자인 페드루 폰 투알(Pedro Pontual)의 저작을 바탕으로 한 이 운동은 실행에 옮겨졌다.

이미 성인 문해 운동을 진행하고 있던 민중 운동의 대표자들은 1989년 초부터 자신들의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지를 사무국에 상의해 왔다. 같은 해 4월 한 토론회가 상파울루 시 성인 문해 교육을 위한 민중 운동 포럼이 열렸던 곳에서 개최되었다.

그 포럼의 회원 단체들과 협약을 하여 교육 사무국은 재정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자원을 제공했다. 그 포럼의 목적은 협력 단체들이 문해 교육의 핵심을 설정하고 교실을 대여해 주거나 교수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자와 관리자들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등의 책임을 맡음으로써 사무국

과 함께 협약의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1990년 1월 착수된 이 프로젝트는 민중 운동을 정부에 귀속시키지 않고 강화시키는 본 프로젝트의 제안 때문에 상파울루 시와 다른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시민사회와 정부가 동반 관계를 이룬 드문 사례 중의 하나였다. 분명히 그 관계는 항상 조화롭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와 민중 운동의 합작 투자를 위한 필요한 조건이었다.

상파울루 시의 문해 운동은 한 가지의 방법론적 지향이나 혹은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파울루 프레이리의 방법”을 강요하지 않았다. 다원주의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다만 반과학적이고 권위주의적이거나 급진적인 철학에 속하는 교육학적 방법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떠한 방법론도 강요하지 않은 채 이 운동은 자신의 정치적이고 교육학적 원칙¹¹들을 지켜 갔다. 이것들은 교육의 해방이라는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새로운 역사적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데 교육의 역할, 지식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생산에 기초한 우리의 지식 이론, 논리적이고 지적인 과정으로서만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사회적으로 깊게 문해 교육을 이해하는 것.

문해 교육을 집단적 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험이 반드시 지식의 주요 원천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 수장으로서 상파울루 성인 문해 교육 팀 MOVA-SP와 회의를 하는 모습. 1990년.

문해 교육은 비판적인 인식과 대중적 힘, 즉 대중 조직을 만들어 내고 발전시키는 힘으로 이어지지 않는 단순한 지적인 지식 습득으로 축소될 것이다.

발전하고 있는 것을 문해 캠페인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특히 브라질에서 경험했던 실패로 인해 우리는 심지어 캠페인이라는 단어조차 피하게 됐다. 우리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운동의 지속성과 영속성이라는 특징을 강조하고 싶다.

오늘날 상파울루 시 문해 운동과 이를 지원하는 대중 운동을 구상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운동이 상파울루 시의 교육 시스템의 통합적인 부분으로서 계속 될 것이라는 점이다.

상파울루 시 문해 운동은 시민권을 회복하는 것을 지향하는 문화적 운동 전략의 일부이다.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사람들이 좀 더 지적인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해방을 위한 사회적 실천을 늘리고 확산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 대중의 사회적 운동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와 국가 간의 새로운 연합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¹²

3. 학제 간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실천

지식과 실천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파울루 프레이리의 저작과 그의 수많은 활동 궤적의 광대함을 통해 우리는 그의 저작의 또 다른 주요 주제인 학제 간 연구에 도달하게 된다.

1987년과 1988년에 파울루 프레이리는 캄피나스 대학의 다양한 분야 교육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학제 간 연구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비정규 민중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학제 간 연구라는 개념은 '연구 집단'의 구체적인 실천과 생생한 체험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생성되었다. 이 대학 집단이 만들어 낸 연구들은 《삶을 배우는 학교 만들기 Fazend escola conhecendo a vida》이라는 제목으로 데보라 마짜(Debora Mazza)와 아드리아

누 노구에이라(Adriano Nogueira)에 의해 1986년 정리, 출판되었다. 이듬해, 교육부 장관으로 파울루 프레이리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학제 간 연구를 위한 프로젝트 혹은 '학제 간' 프로젝트"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학제 간 혹은 초학문성을 통한 교육학적 실천은 사회적 대리인을 형성하는 데 동참하는 학교의 구성을 지향한다. 그의 교육학적 실천의 주체인 교육자는 프로그램과 교수 방법, 학습 방법, 그리고 학교를 공동체 안으로 집어넣는 노력을 능숙하게 하는 방법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학제 간 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 교사 그리고 공동체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현실을 체험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학교에서 이 체험은 구분되고 분절된다. 지혜, 지식, 직접 체험, 학교, 공동체, 환경 등을 연결하는 것이 학제 간 연구의 목적이며 이것은 학교를 구성하는 집단의 공동 작업의 실천으로 발전한다. 힘의 분산 없이 학제 간 연구는 이뤄지지 않으며, 학교의 실질적인 자율성 없이 힘의 분산은 이뤄지지 않는다.¹³

파울루 프레이리는 1991년 5월 27일 지방정부의 교육 사무국을 떠났다. 2년 반 정도 지난 후에 그는 그가 자신의 책 《도시에서의 교육 A educação na cidade》의 서문에서 단언한 것처럼 "떠났지만 남아 있는 그의 방식"으로 그의

서재와 학문적 활동으로 돌아왔다.¹⁴

사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사무국의 프로젝트를 도울 수 있는 확장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무국에 실제로 계속 존재했다. 그는 그의 고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더 이상 장관이 아니지만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면모’를 지닌, 더 즐겁고 가족 같으며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교육정책을 만드는 데 계속 저에게 기대도 좋습니다.”¹⁵

7 동시대의 교육학적 사상 맥락 속에서 본 파울루 프레이리

파울루 프레이리의 생각은 많은 동시대 교육자들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그는 피쵸-리비에르(pichon-rivière)와 비교되었는데, 그는 제네바 출생으로 매우 어린 나이에 아르헨티나의 차코로 옮겨 왔다. 서로 다른 두 문화를 경험한 그는 생각이 개방적이었고 반민족주의, 반권위주의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파울루 프레이리는 서로 다른 두가지 실천을 행했지만 두 사람에게서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비판적 양심을 통한 변화를 추구했다.

파울루 프레이리의 초점은 북아메리카의 교육자인 테오도르 브라멜드(Theodore Brameld)와도 비교되었다. 두 사람 모두 교육자와 학생 간의 대화와 정치와 교육 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요소로서 지식 획득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파울루 프레이리의 저작과 해방신학¹ 이론가

중 한 명인 엔리케 두셀의 저작 간의 유사점에 대한 비교도 이뤄졌다.

또 한 명의 비교 대상은 폴란드의 교육자 야누시 코르차크 Janusz Korczak, 1878-1942² 으로, 그는 학생들 200명과 함께 나치의 가스실에서 숨졌다. 코르차크는 사랑과 자주 관리, 그리고 반권위주의를 중심으로 한 교육학의 전설적인 표본이 되었다.

1979년 제네바 대학에서 교육과학 분야의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파울루 프레이리는 유명한 장 자크 루소의 교육과학 연구소 설립자인 에드아르드 클라파레데 Eduard Claparède와 비교되었다. 그는 또한 언급된 다른 교육학자들처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정치적 역할을 믿었던 피에르 보베 Pierre Bovet와도 비교되었다.

우리는 또한 파울루 프레이리와 프랑스의 혁명적인 교육자 셀레스틴 프레네² 간에도 두 사람이 모두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조직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커다란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다. 프레네는 자신이 '자유 교재'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파울루 프레이리처럼 그는 소위 글자 교육을 하는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글을 읽는 것을 세상을 읽는 것과 관련시키는 것이다. 그는 아동과 성인 모두 교재를 읽을 때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파울루 프레이리처럼 그는 민중 계급의 교육에 대해 걱정했다. 그의 작업 방식

은 인쇄, 자유롭게 그리기, 대화 그리고 학생들의 현실과 접촉하기 등이었다.

리지아 치아피니 모라이스 레이테 Ligia Chiappini Moraes Leite는 파울루 프레이리의 작업과 프레네의 저작 사이에 굉장한 유사성을 발견했는데 특히 그것은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또한 그람시의 혁명적 교육자라는 개념과도 유사성이 있다고 본다.

리지아 치아피니는 또한 루소³가 파울루 프레이리의 영감의 원천이었다고 본다. 특히 루소가 에밀(그의 가상의 학생)이 신앙고백을 하고자 할 때, 그의 옆에 있겠다고, 루소의 말을 빌면, "그는 우리가 함께 배운 것만 배울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말한 부분을 들었다.

월슨 지 파이라 Wilson de Faria처럼 파울루 프레이리가 언어적 표현을 거부하고 과학적 방법의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실용주의 전통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유명한 논문 '마르크스주의 교육 이론'의 저자이자 당대의 가장 유명한 마르크스주의 교육자인 보그단 수호돌스키 Bogdan Suchodolski와 꾸준히 서한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유지해 왔다. 프레이리는 그를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인본주의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으며 종종 그를 '위대한 마지막 인본주의자'라고 불렀다.

영국의 사회학자인 마단 사룹(Madan Sarup)은 비록 파울루 프레이리 자신은 사회학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말한 적이 전혀 없지만, 새로운 유럽 사회학자들이 파울루 프레이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의 생각은 전통적인 체계 특히 사제 관계를 약화시켰다.

이 장에서 우리는 작가 네 명, 《인간적 성장》의 저자인 칼 로저스^{1902~1987}, 《학교 없는 사회》의 저자인 이반 일리치^{1926~2002}, 존 듀이^{1859~1952}, 그리고 레프 비고츠키^{1896~1934}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칼 로저스와 학생 중심의 학습

파울루 프레이리는 교육의 무지향성 원칙을 옹호하지 않았지만 심리 치료사인 칼 로저스⁴는 그 원칙을 옹호했다. 두 사람이 옹호하는 교육학들, 특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들은 둘 다 인간이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만 있다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로저스와 프레이리에게 교육에 대한 책임은 학생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 성장과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학생이다. 교육은 교사 중심 혹은 교수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이어야 한다. 학생이 학습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실에서, 지식은 학생들에게 던져져서도 안 되고 학습이 아동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지 혹은 학생이 교사가 자신에게 가르친 방식대로 지식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테스트나 시험이 그것을 체크하는 방식이 되어서도 안 된다. 교육은 학생이 완전한 인간, 생각과 감정이 있는 인간이라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전통적으로 거리가 있는 교사상을 가깝게 끌어오려는 파울루 프레이리의 방법과 유사하게,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로저스식 접근은 전통적인 심리학이 옹호하던 거리감을 유지하는 대신에 환자와 치료사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든다.

이런 이론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피억압적인 계급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산층에게만 적용된다는 비판에 대한 회답으로 칼 로저스는 파울루 프레이리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들을 발전시켰다. 로저스의 저서 《인간적 성장》의 6장에는 한 논쟁이 다뤄진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1968년에 《페다고지》를 저술했고 로저스는 1969년에 《학습의 자유》를 저술했다. 첫 번째 책은 변두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두 번째 책은 학생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어떠한 증거도 없지만 그들의 출판 시기에 두 사람은 서로의 저작에 대해 들었다.

이반 일리치⁵와 파울루 프레이리의 행보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겹쳐진다. 1970년대 교육 사상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그의 책 《자신의 역사에서 배우기 Aprendendo com a própria história》에서 1962년 일리치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때 이반 일리치는 히우지자네이루로 여행을 왔다가 헤시페까지 갔었다. 이때, 프레이리는 한 가지 조언을 얻었다.

“언젠가 당신은 지금보다 더 잘 알려질지도 모릅니다. 10년 내에 당신의 생각들이 전 세계 수많은 곳에 도입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당신이 갖게 될지도 모르는 명성이 당신의 머리를 잠식하게 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이 명성이 사라졌을 때 기뻐하세요. 당신이 더 이상 유명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하게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자신을 바보 같은 허영심으로부터 구한 것은 일리치의 이 조언만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 자신의 실천을 통해 그는 이런 허영심을 제한했다.

그렇다면 파울루 프레이리와 이반 일리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우리는 두 사람 모두 전통적인 학교에 대해 비평했다는



이반 일리치와 파울루 프레이리. 제네바, 1971년.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학교가 관료화되는 상황에서 두 사람 모두 교육자들이 창의적인 자율성의 재발견을 제안하고 학교에서 고립되는 상황과 싸우면서 개인의 발전과 집단적인 해방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몇 가지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반 일리치의 작업에는 학교에 관한 비판주의가 있는데 이는 그가 전통적인 학교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학교와 싸우고, 그것을 ‘파괴하고’, ‘탈학교화된’ 사회가 필요하다. 반면에 그는 자

신의 개인적 필요와 연관하여 서로에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에게 학습의 임무를 맡기는 지식의 반제도화를 옹호한다. 잠재적 사용자는 자신이 학습하고자 하는 활동을 선택할 것이며 컴퓨터가 그 주제의 전문가들 이름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은 기본적인 학교교육 이후에만 가능할 것이다.

반면에 프레이리에게서는 낙관주의를 찾아볼 수 있다. 사회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학교는 바꿀 수 있고 바뀔 수 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의식화 운동이며 결과적으로 교육자의 교육은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두 사람 다 현재 교육기관이 가진 위기를 해결할 쉬운 해결책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들은 모두 해방의 수단으로 비판을 제안한다. 미래의 학교 혹은 학교의 종말 역시 오늘날 비판의 집단적 결과물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일리치의 사상에서 세 가지 주요 주제를 발견하게 된다.

- (1) 그가 사제로 소속되어 있던 교회.
- (2) 신조와 신화들로 '신성한 소'처럼 되어 버린 학교.
- (3) 무제한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신화를 지닌 산업사회.

이에 대한 그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 (1) 교회는 계속 심문자로 존재해야 한다.
- (2) 사람들 다수가 지식의 상당 부분을 학교 밖에서 습득한다.
- (3) 산업 발달이 현대 인간의 삶의 질을 파괴한다.

일리치는 학교가 스스로 수행하고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필요들을 만들어 낸다고 믿는다. 그는 평생 지속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교육 전문가들을 비판한다. 그는 이런 제안을 학교 산업을 보호하고 커가는 '시장'과 '고객들'을 보장하기 위한 구실로 본다.

한편, 파울루 프레이리는 교회 안에 계급투쟁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억압자들의 예언 교회를 신뢰한다. 그는 사회혁명이 민중의 종교적 감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학교에 관해 낙관적이며 모두가 가질 권리가 있는 기관인 민중 공립학교를 옹호한다. 그는 경제적 발전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 혜택의 불평등은 거부한다.

이반 일리치와 파울루 프레이리를 함께 이끌어 온 것은 현재 학교의 내용과 교육학에서 혁명을 이루어 낼 필요가 있다는 두 사람의 깊은 믿음이다. 두 사람은 모두 인본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사회 내 조직의 자유를 옹호한다. 두 사람 모두 이 변화가 교육학적이고 정치적인임을, 그리고 학교에 대한 비평이 모든 현대사회에 대한 더 넓은 비평의 일부임을 믿는다. 엄격한 제도

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지식, 교육, 권력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둘러싼 주제들에 대한 더 폭넓은 토론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두 사람 모두, 특히 파울루 프레이리는 종파성 없이 마르크스주의 분석을 활용한다. 두 사람은 종종 순례자들, 즉 오늘날의 복잡한 길과 우회로 사이에서 분명하고 근본적인 것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비유된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이반 일리치를 매우 존경했으며 여러 번 그의 저작이 많이 읽힐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또한 그는 일리치의 분석들이 종종 관념주의적이라고 말했다. 일리치에 비해 프레이리는 학교를 그 안에서 학급 갈등이 일어나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기관으로 본다.

예수스 팔라시오스 Jesús Palacios는 그의 책 《비판적 물음과 대안적 학교 La cuestión escolar: críticas y alternativas》에서 파울루 프레이리, 이반 일리치, 그리고 에버레트 라이머 Everett Reimer(《학교는 죽었다》의 저자)를 함께 다루고 있는데, 팔라시오스는 그들을 라틴아메리카, 제 3세계 국가들, 그리고 식민화된 사회의 새로운 교육학의 대표적 인물들이라고 부른다. 그는 프레이리를 일리치와 구별짓고 일리치의 위치를 라이머의 위치와 함께 확인한다. 그는 이 저자들에게서 전통적인 학교와 새로운 학교 간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발견하는데, 그는 이것을 '통합적인 승리'라고 부른다. 팔라시오스에 의하면, 이런 관점은 소련의 교육

자인 크롭스카야 Krupskaya의 작업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20세기 초, 크롭스카야는 파울루 프레이리와 거의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죽음의 교육을 옹호하는 중립적이고 관료적인 학교를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살아 있는 학교의 필요, 즉 죽음이나 질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위해서 훈련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팔라시오스는 심리적인 이유로 병가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대다수가 권위주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교사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파울루 프레이리의 교육철학을 받아들이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학교가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비평에서 변화를 위한 실천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학교를 변화시키는 과제는 사회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시지푸스의 과제처럼 될 것이다.”⁶

이것은 또한 칼 마르크스가 자신의 〈포이에르바하에 대한 세 번째 테제〉에서 명시했던 방향이다. 그는 교육자는 교육받을 필요가 있으며 그 자신의 결정들을 교육하고, 그것들을 알아 가면서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본 교육자와 사회의 관계였다. 파울루 프레이리의 모든 작업은 이 마르크스의 테제를 광범위하게 이론적이고 실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헤시페 대학에서 교육철학과 역사학 교수가 되기 위해 논문을 쓴 이후로 계속 존 듀이를 참조했고 1936년 브라질에서 출간된 듀이의 저작 《민주주의와 교육》을 인용했다. 듀이의 저작을 브라질에 소개한 사람은 아니시우 테이세이라⁷Anísio Teixeira였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아니시우 테이세이라의 교육학을 추종했는데, 그는 자신을 테이세이라 저작의 신봉자라고 생각했고 브라질 교육제도에서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와 연결된 과도한 중앙집권 제도에 대한 테이세이라의 비판에 동의했다.

존 듀이와 아니시우 테이세이라와 같이 파울루 프레이리는 지역사회에서 삶의 지식을 주장했다.

“오늘날 소위 지역 환경에 대한 조사는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의 도움이 따라야 한다. 나는 환경을 조사하면서 가르친 수학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환경을 관찰하면서 가르친 생물학과 자연과학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에 대한 그들의 개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듀이에게 문화란 사회적, 인종적 그리고 민족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화된다. 반면 파울루 프레이리에게 문화는 교육적 실천이 항상 학생의 문화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인류학적인 함축을 내포하고

있다.

파울루 프레이리가 존 듀이의 사상으로부터 가져온 교육학은 행함을 통한 배움, 협동 작업, 이론과 실천 간의 관계, 학생의 말(언어로)로 작업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개념이다. 그러나 파울루 프레이리에게 교육의 목표는 다르다. 프레이리의 해방적 시각에서 교육은 억압적인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연결되어야 한다. 비록 이 목표가 즉시 혼자서 도달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비고츠키와 소련의 혁명적 교육자들

파울루 프레이리와 이반 일리치, 칼 로저스 그리고 존 듀이의 사상 간의 대치와 더불어 베라 존 슈타이너⁸의 연구와 같은 최근의 연구는 그들이 철자 교육에 대한 상호적인 접근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파울루 프레이리와 레프 비고츠키의 관점의 유사성을 다루고 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최근에서야 이 위대한 소련의 교육자이자 언어학자의 저작을 발견했는데 그의 주요 저작은 1931년 발간된 《언어와 사고》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직후, 비고츠키는 시골과 집단 농장을 방문했고 이곳에서 철자 교육을 받은 공동체와 교육적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곳 사이의 차이에 주목했다. 그

는 발생하고 있는 변화의 손길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집단 농장과 문해 과정에서의 경험의 결과로 이미 파울루 프레이리가 말한 '주체'로 변해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의 차이에 놀랐다. 최근의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판적인 인간으로서 토론에 참여하고 대화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 마을 밖의 삶에 대해서 방문객들에게 질문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는 물어볼 것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네요……. 물어보려면 뭘 알아야죠.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발에 잡초를 뽑는 법뿐인걸요”

그러나 혁명의 변화 과정에 참여했던 농부들은 많은 질문을 했다.

“어떻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나요? 왜 도시 노동자의 삶은 시골 노동자의 삶보다 나은가요?”

이러한 변화의 유형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 언어적 현실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많은 곳들, 칠레, 브라질, 기니비사우, 쿠바, 미시시피 등에서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현실을 바꿀 수 있고 자신들이 더 이상 고립되거나 무력하지 않다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말로 그다음에는 글로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구술 담화는 성인의 문해 과정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이다.

문어에 대한 비고츠키의 이론은 문자언어의 생산을 결정짓는 내부적 과정의 표현을 포함한다. 그는 쓰인 재료의 정신적 원천은 아동의 자기 중심적인 담화에서 진화한 '내적 담화'라고 말한다.

비고츠키는 모든 인간의 담화에서 개인은 나이와 경험을 통해 자신의 내적 담화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킨다는 것을 인식한다. 언어는 그들의 사회적 애정이 증가하는 것만큼이나 아동이 점점 더 인지적으로 정교해지는 방식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언어가 아동과 성인이 자신의 인식을 체계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단어를 통해 일반화, 함축 그리고 다른 형태의 생각들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건너게 되는 부서지기 쉬운 다리”라는 문장에 포함된 단어들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으로 정해졌으며 결과적으로 개인과 집단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고 제한되거나 확장된다.

프레이리와 비고츠키는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반구에 살았지만 두 사람의 접근은 상호 연관된 사회적 교육적 변화와 관련된 근본적인 면들을 강조한다. 비고츠키가 심리학적 동력에 초점을 맞춘 반면 프레이리는 교육의 단계들과 언어 분석에 집중한다. 내적 담화가 썩어진 담화로 변화한다는 면에서 두 사람의 제안은 단지 기본 문해 제도만이 아니라 좀 더 발전된 작문 기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에서도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

다른 시대와 다른 공간에서 두 사람 모두 역사의 정복과 단어의 정복이 연관되어야 할 필요성에 주목했다.

실천을 통한 학습이라는 개념은 안톤 세미오노비치 마카렌코⁹에게서도 발견된다. 그의 교육 경험은 그가 '교정' 교육 기관의 책임자였던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이뤄졌다. 고리키 콜로니Gorky Colony가 초대 책임자였던 이 기관은 아동과 방탕한 청년들을 위해서 고안되었다. 겸손, 소박함 그리고 낙관주의가 두 교육자의 공통된 가치이다.

또한 파울루 프레이리와 피스트락¹⁰의 이론에도 연관성이 있는데 특히 프레이리의 학교에서 아동의 자기 조직화라는 개념과 개입,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사회 정치적 현실에 대한 분석이라는 개념이 연관된다. 학생들이 '총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피스트락의 생각은 후에 프레이리에 의해 발전된 문화적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와 관련된 개념과 매우 근접하다.

파울루 프레이리 저작의 복합성과 보편적 관점

파울루 프레이리는 여러 가지 방법에 영향을 받았다. 그의 인본주의 사상은 엠마누엘 무니르¹¹의 인격주의와 실존주의, 현상학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그러나 파울루 프레이리가 단순히 다방면에 걸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는 이러한 철학적 사조들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기계적이거나 편향적인 방식으로 반복하지 않고 통합한다.

인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 주제들의 결합이 그의 책들을 더 풍성하게 하고 광범위한 대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다. 그의 사상은 다양한 주제들의 혼합체이다. 이러한 사실이 일반적인 독서를 하는 초보 독자들에게는 문제가 된다.

로시스카 다르시 지 올리베이라Rosiska Darcy de Oliveira와 피에르 도미니세Pierre Dominicé는 각각의 독자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파울루 프레이리를 택해서 읽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파울루 프레이리를 읽는 라틴아메리카의 독자들은 프레이리의 정치적 투쟁과 사회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사회운동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파울루 프레이리를 이해할 것이다. 만약 독자가 가톨릭 신자라면 그 사람은 인본주의적 지향을 갖고 인식할 것이며 파울루 프레이리의 사상에 영향을 준 철학자들의 영향을 통해 잘 아는 영역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만약 독자가 마르크스주의자라면 그는 자신이 현대의 마르크스 사상의 현대적 사조-그람시, 루카치, 마르쿠제-에 익숙해져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만약 독자가 교육학자라면 그는 오늘날 교육 사상의 진보적인 경향을 결정짓는 해

방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특징들을 동시에 조금씩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이런 다양한 '단계'를 모두 거친 사람들 혹은 이런 다양한 영향을 겪어 본 사람들만이 프레이리의 의도와 그의 지적 발전의 총합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²

프레이리가 조사했던 억압자와 피억압자 관계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그의 이론이 많은 나라의 다양한 경험으로 풍성해진 이후로 프레이리의 교육학은 보편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안토니우 파운데즈가 자신의 책에서 상투메 프린시페에서 행한 철자 교육과 철자 교육 이후를 언급한 것처럼 파울루 프레이리가 이론적으로 기여한 상당 부분은 브라질의 북동부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그가 경험한 것들의 결과였다. 그러나 그가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수행했던 작업 역시 그의 실천과 교육학 이론을 풍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 그는 초기의 방법들과 생각들을 재고하게 되었으며 그것들은 정치학적이고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비평에 개방적이었다.

주안 에두아르두 가르시아 후이도브루 Juan Eduardo Garcia-Huidobro는 1976년 벨기에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교육 사상과는 별개로 의식화 운동이 라틴아메리카 해방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대안이라고 분석하고 있

다. 다른 이들은 파울루 프레이리를 프란츠 파농, 램미, 그리고 아밀카르 카브랄과 비교했다.

마찬가지로 프레이리의 이론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실천을 불러일으켰다. 이사벨 에르난데스 Isabel Hernandez가 칠레 남부의 마푸체 인디언들에게 그의 이중 언어 적용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 한 예이다. 당시에 칠레 인구의 6퍼센트가 마푸체 인디언이었는데 이들은 60만 명 중 10만 명이 넓은 도시 중심가에서 살고 나머지는 시골에서 살고 있었다.

이사벨 에르난데스는 칠레에서 파울루 프레이리의 팀 구성원들과 일했다. 원래 그녀의 방법론은 미국이 제공하는 잠재적 이중 언어론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정복자의 언어를 소외되고 빈곤하며 반항적인 인디언의 언어와 통합시키는 것이다. 그녀의 철자 교육 방법은 인디언들을 자신의 불행한 유산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고 이를 통해 유럽의 침략자들에 의해 수세기 동안 비난받았던 제한된 세계로부터 끌어내도록 노력하는 의식화 운동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파울루 프레이리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적용했던 나라들과 더불어 많은 다른 나라들도 그의 방식을 차용하였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멕시코가 그 한 예이다. 문맹률을 12퍼센트까지 낮추기 위해 멕시코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그중

에 파울루 프레이리의 방법이 있었다.

1987년 파울루 프레이리는 브라질 캄피나스에서 데려온 그의 유명한 교육 팀(데보라 마자, 아드리아누 노구에이라, 호세 리마^{José Lima}, 루이스 롱기니^{Luis Longuini})과 함께 볼리비아 코카밤바의 인문학과 교육과학 학부에 갔다. 이 방문을 통해 민중 교육과 제 3세계에서 대학의 역할,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의 현대 교육 사상에서 민중 교육과 관련된 이론들의 위치에 대한 경험의 교환과 연구가 가능했다.

브라질에서 '브라질 문해 운동^{MOBRAL}'과 같은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철자 교육 프로그램들은 파울루 프레이리의 기법 중 일부를 사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법을 무시해 왔다.

그의 방법은 단지 기독교 민중 공동체와 시골 지역에만 적용되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자신에게 도움을 부탁했던 여러 시의회와 브라질의 다른 공립 기관들의 초대를 거절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화국은 그의 제안들에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비판, 자기비판, 그리고 변증법적 이해

파울루 프레이리의 도전적인 생각들과 그 생각들이 전세계에 미친 영향이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대화에

대한 프레이리의 대단한 포용력과 겸손에도 불구하고 그는 특히 부르주아 계층 사람들에게 맹렬히 비난받았다.

우리는 이러한 공격 중 하나를 완전한 글로 재생산할 수 있다. 그것은 1985년 6월 26일 한 브라질 저널에 '관념주의적 ABC'라는 제목으로 실린 논설이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오랜 친구인 라우루 지 올리비에라 리마의 간곡한 요청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논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파울루 프레이리 씨가 그의 생각, 나아가서는 고정된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스스로 좀 더 자주 실체를 드러낸다면 새로운 세대에게 대단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이 인간과 신화 사이의 거리를 더 잘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장 퇴보한 제 3세계 국가들에서만 사용하는 성인 문해 교육 방법의 저자 혹은 편찬자인 파울루 프레이리 씨는 브라질 문해 운동의 기술자들과의 토론에 민주적으로 초대되었다. 이는 1980년대 브라질의 교육적 필요를 좀 더 추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제안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신에, 그 손님은 심지어 몇몇 사회주의국가들도 사용하지 않는 낡고 고루한 상투적인 말들을 반복했다. 그는 자신이 미래보다는 과거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관용보다 분노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브라질 문해 운동이 자신의 방법을 왜곡하고 자

본주의적 철자 교육의 수단으로 변형시키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강탈해 갔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말을 시작했다.

프레이리 씨에 의해 만들어진 부르주아적 철자 교육 대 프롤레타리아적 철자 교육이라는 구분은 상식의 방향을 뒤틀고 미끄러지게 한다. 보통의 인간에게 철자 교육이란 그것들이 기능적이 되는 순간까지 읽기와 쓰기 기술을 배우는 것일 뿐이다.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모든 현실을 계급투쟁의 이분법으로 축소시키는 극도로 단순한 세계관으로 들어가지도 않는 개념이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파울루 프레이리 씨가 출현하기 전 수천 년 동안 매우 다양한 구조를 가진 사회들은 자신의 아동과 성인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 어떠한 사상적 요소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우리의 유명한 교육자께서는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이 논설은 파울루 프레이리의 작업을 피억압자들 특히 제 3세계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 보인다. 프레이리도 그에 대해 부정한 바가 없다.

우리는 이미 파울루 프레이리의 생각이 제 3세계 국가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며 단순히 철자 교육의 방법으로 축소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았다. 이 논설을 쓴 저자는 마르크스 훨씬 이전에 아담 스미스와 같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계급투쟁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다. 논설의 저자는 기능주의라고 불리는 교육적 사상을 가진 학교에 소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교육을 전형적인 내용 전달과 흡수로 축소시키는 관점이다.

오늘날 부르주아들이 하고 있는 비판은 1962년의 것과 동일하다. 한 예로 헌법 제정 회의의 의원인 산드라 카바우칸치 Sandra Cavalcanti가 있는데 그녀는 히우지자네이루 주의 주지사인 카를루스 라케르다 Carlos Lacerda의 요청으로 파울루 프레이리에 관한 자료를 만들었다. 이 자료는 애초에 그의 방법이 '전과가 있는 공산주의자'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녀는 당시 16세였던 프레이리의 딸, 마달레나가 '멘발'로 수업을 하러 갔던 것, 그래서 학생들과 같아 보였던 것과 역시 "교사"인 마달레나의 남자 친구를 본 인상에 대해 묘사한다.

카바우칸치는 수업에서 '회충'이란 단어를 설명한다.

단어가 적힌 포스터,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 포스터. 수업 중에 어떤 대화가 들린다.

질문: 회충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대답: 집단농장요.

위생과 관련된 단어는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수업을 단순하게 만들고 문맥에서 떼어 놓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자신의 수업관을 확실히 해 주는 어떤 측면들을 보여 준다.

신뢰가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결과로 발생하는 비판들도 있지만 비판 대다수는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정치적인 의견이 불일치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추정과 더 나은 이해를 추구하며 더 발전하고자 더 배우고 계속하기 위해 파울루 프레이리 저작에 대한 비평을 사용하기도 한다.

포르투 알레그레의 추기경인 돔 비센테 셰러(Dom Vicente Scherer)는 파울루 프레이리의 철학을 “기독교 교리 원칙들과 맞추거나 조화를 이루는 데 실패하고 돌이킬 수 없도록 충돌하고 모순되며”, “해결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주의의 역사 이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비판한다.

프레이리의 교육철학은 《파울루 프레이리와 개발 민주주의》(Paulo Freire e o nacionalismo desenvolvimentista)에서 바닐다 페레이라 파이바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부터도 비판을 받는다. 이 내용은 파이바에 의하면 계급 간의 연합을 기반으로 한 발전을 제안하는 우파 이데올로기를 지닌 브라질 고등교육 기관의 사고의 연장선상에 파울루 프레이리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이 기관을 ‘이데올로기 공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기

관은 반제국주의와 반봉건주의 투쟁에 우선순위를 줌으로써 이 시대에 자리매김했다. 이 투쟁은 계급 간의 합의를 옹호하는 브라질 공산당의 제안이었다. 바닐다 페레이라 파이바는 파울루 프레이리의 모든 작업을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브라질 고등교육 기관의 생각들이 인기를 끌었던 시기에 대해 자세한 연구를 한다.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영향을 미쳤고 이 시기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삶을 지속하고 있다.

《정치와 대중 교육》(Política e educação popular)에서 실비아 마리아 맨프레디는 억압적인 사회와 지배의 다양한 형태를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파울루 프레이리가 자신이 구성하고자 했던 사회의 유형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는 자신이 촉발시키고자 했던 혁명의 본질과 새로운 권력 구조를 뒷받침하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녀는 파울루 프레이리가 자본주의 체계를 거부하지 않고 역사적이고 변증법적인 유물론의 추론에 기반한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지향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때문에 그는 관념주의적이며 자유주의적이라고 결론 내린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계급투쟁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기보다는 억압자와 피억압자 간의 투쟁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많은 마르크스주의 독자들에게 비난을 받는다. 그가 브라질로 돌아왔을 때 〈운동

Movimento> 지는 이러한 비평들을 참조하여 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최근에 출간된 몇몇 논문들은 당신이 교육은 피억압자가 자신이 억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억압자를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도록 피억압자를 위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계급 관계로 들어가지 않은 채 억압자와 피억압자, 지배자와 피지배자와 같은 범주들을 사용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79년 8월

13일

다음은 파울루 프레이리의 답변이다.

1973년 출간된 《문화적 실천과 다른 글쓰기들Ação cultural e outros escritos》에서 저는 이런 인터뷰를 했었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으며 또 그 후에 쓴 책들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계급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했던 초기에 저는 사회적 계급에 대해서 언급한 숫자를 확인하면서 《페다고지》를 다시 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35회 언급했지만 이것이 꼭 제가 명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다른 작업들을 통해 제 입장을 더 명백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제 책을 다 읽지도 않고 박사 학위 논문을 쓰는 박사 과정 학생들이 있고 심지어 쓰지도 않으면서 열정이 넘

치는 학생들도 있죠. 종종 이런 학생들은 전체적인 분석 없이 제가 쓴 책 중 단지 한 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단순히 오늘날 브라질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읽히는 교육자만이 아니다. 그는 또 다른 기록을 갖고 있는데 가장 많은 꼬리표를 가진 교육자라는 것이다. 그는 ‘국가적 발달주의자’, ‘새로운 학교주의자’, ‘귀납주의자’, ‘자발성 강조론자’, ‘비지시주의자’, ‘가톨릭 신무정부주의자’ 등으로 불렸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이런 비평들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이런 비평들은 그저 그의 생각을 실행 불가능한 제도적 실천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프레이리는 그의 제안들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고자 노력하는 무익하고 파괴적인 논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더 잘 설명하는 정도로 그쳤다.

베니시우 아르투르 지 리마Venicio Artur de Lima는 《의사소통과 문화Comunicação e cultura》에서 의사소통이라는 개념에 내포된 “역설”과 적대자들 간에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함에 대해 다뤘다. 그에 의하면 적대자들 간에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억압자들이 자신의 억압자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가능성은 실행 불가능한 것이 된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대화와 모순의 교육학Pedagogia:

diálogo e conflito》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한다.

파울루 프레이리의 초기 저작들이 관념주의적이며, 기독교적 인본주의에 기반을 둔 프레이리의 '대화'라는 개념이 주관적이며 개혁적이라고 말하는 비평들도 있다.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파울루 프레이리는 자신이 종종 바보스러웠다는 것을 인정한다. 계급 관계에 대한 그의 관점이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사회적 구조가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종결된 사회 모형은 없다고 말한다. 억압은 사회적 수준에서만 아니라 개인적 단계에서도 일어난다. 그리고 권위주의가 발견되는 것은 단지 이 단계만이 아니다. 그리고 억압에 맞서 싸우기 시작해야 하는 곳은 바로 이곳, 즉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학교를 옹호했다고 비판하는 좌파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학교가 주요하고 효과적인 방법론적 기여를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새로운 학교는 이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프레이리는 새로운 학교가 비판하지 않았던 자본주의 생산수단들을 비판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용이 변해야 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용을 만드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가져야 하는 개방성이며, 이것은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과 학생들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존중의 결과이다.

지배계급이 제도 교육으로부터 요구하는 지배 이데올로기 재생산이라는 임무는 학교의 역할을 고갈시키지 않는다. 학교 안에는 수행될 수 있는 다른 임무들이 있으며 그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이 임무를 부정하는 것, 이데올로기적 재생산의 신화적 요소를 없애는 일이다.

니카라과와 쿠바의 경우, 주요한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 동일한 교육 실천 내부에서 발견된 과거의 이데올로기와 직면하는 것이다. 지배 이데올로기의 신화와 혁명적 꿈 사이에는 모순의 변증법이 있다. 때때로 이러한 신화와 꿈은 동일인에게서 발견된다. 문제는 이데올로기는 계엄령을 통해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모든 것은 쉬웠을 것이다.

1986년 1월, 쿠바에서 있었던 첫 번째 주요 교육자 의회에서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의회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은 변증법적 의견이었다.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교육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생산방식이 변화했다고 모든 사회관계가 기계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형적인 자본주의 생산방식이 지닌 권위주의적인 특징이 재생산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다.

쿠바와 니카라과의 교육 방식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요소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피델 카스트로는 혁명은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 답했다. 역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준다.

그것은 변증법적으로, 즉 모순적인 방식으로 변화한다. 이 때문에 낡은 것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든다. 만약 이런 관계가 기계적이었다면 혁명적 승리를 이룬 바로 다음 날, 새로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새로운 교육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기계적이기보다는 역사적이다.

혁명적 맥락에서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보존하는 것은 꿈과 실천 간의 거리를 보여 준다. 혁명적 투쟁 중 하나는 방법과 절차의 혁신을 위한 투쟁이며 동시에 교육 내용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망명 경험으로부터 자신의 사상에 마르크스주의 개념을 포함시켰다. 그의 책 《대화와 모순의 교육학》에서 그는 이 점을 명확하게 한다.

대화와 갈등은 피억압자의 전략으로 보인다. 대화는 적대적인 것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동등한 것과 차이를 가진 것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적대자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거나 적대가 심할 경우 협약이 있다. 동등한 것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른 유형이다. 그것은 어떻게든 그것들을 함께 유지하는 근본적인 측면이 있

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과 살 수 있지만 적대적인 사람들과는 살 수 없다.

파울루 프레이리가 교육의 변증법적 이해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공교육의 권위주의적인 교육학과 자유주의 이론가들(보수와 진보 모두)은 정확히 이러한 해방적이고 변증법적인 특징 때문에 그의 개념에 도전한다. 우리가 그의 교육적 개념들을 받아들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사상은 브라질과 국제 교육학의 중요한 사건이었다.

파울루 프레이리의 기여는 단지 성인 민중 문해 교육 제도에만 국한될 수 없다. 그의 기여는 그의 방법을 뛰어넘어 훨씬 폭넓은 교육적 관점과 지식 이론으로 자리매김한다.

나는 종종 파울루 프레이리의 방법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의 작업을 이끌었고 여전히 이끌고 있는 충실함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나의 대답은 거의 같았다. 파울루 프레이리의 교육적 제안에 충실한 것은 그것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거나 비판없이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메커니즘,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제자들의 태도를 두려워한다.

파울루 프레이리에게 충실하다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그를 재구성하고 자신을 그와 같이 재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이 안에는 변증법에서의 승리 요소가 포함되어 있

다. 그것은 과거와 다른 사람들이 추종했던 과거를 복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 있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통해 새로운 질적 복합체로 변화하는 것이다.

결론

공적인 장소에서든 사적인 장소에서든, 교실에서든 혹은 글을 준비할 때든, 파울루 프레이리는 보통 항상 똑같이 행복하고 기분이 좋다. 그의 농담들은 그의 장난기 있는 기질과 그의 성격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그는 가끔 우리 집에 전화를 걸어 내 아내가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말한다. “라,레,리,로,루인가요?” 내 아내, 레야네는 처음에는 놀랐다. 나중에 우리는 그가 이런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손녀, 크리스치나는 그곳이 “크라스, 크레스, 크리스, 크로스, 크루스”의 집인지 묻는 전화를 받았다. 말할 것도 없이 칠자화의 달인인 그녀의 할아버지는 음소들을 놀려 보려고 한 것이다.

어느 날 독자가 그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게도 여러 번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탱고 곡을 최대 음량으로 듣고 있을 것이다.

한번은 내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온 파울루 프레이리의 훌륭한 제자, 카를루스 알베르투 토히스에게 비극적인 음악인 탱고에 대한 파울루 프레이리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취미로 탱고를 부르는 카를루스 알베르투 토히스는 탱고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도회적인 노래이며 사회적 비평이다.

도회적인 노래인 탱고는 열정, 기만 그리고 애정에 대한 욕구가 모두 뒤섞여 있는 인간 상호작용의 나약함과 풍요로움을 표현한다.

사회적 비평으로서 탱고는 권위에 대항하는 무정부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문명사회의 타락이나 보수적인 과두 정부에 의해 조종당하는 사회에 이의를 제기한다. 탱고는 부랑 노동자와 모든 사회적 재화와 부,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공간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민 자녀 1세대가 지닌 강한 사회적 압박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탱고를, 마초이즘과 기만을 직면한 고통과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의 존엄을 되돌아볼 필요를 드러내는 울직한 표현으로, 즉 도시 문명의 위기를 드러내는 징후로서 탱고를 이해할 때, 파울루 프레이리가 탱고를 좋아하는 이유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설명의 마지막에 토히스는 자신의 이런 생각이 과한 것이 아닌지 궁금해했다. 파울루 프레이리 자신은 그가 탱고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 설명할 걱정을 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냥 탱고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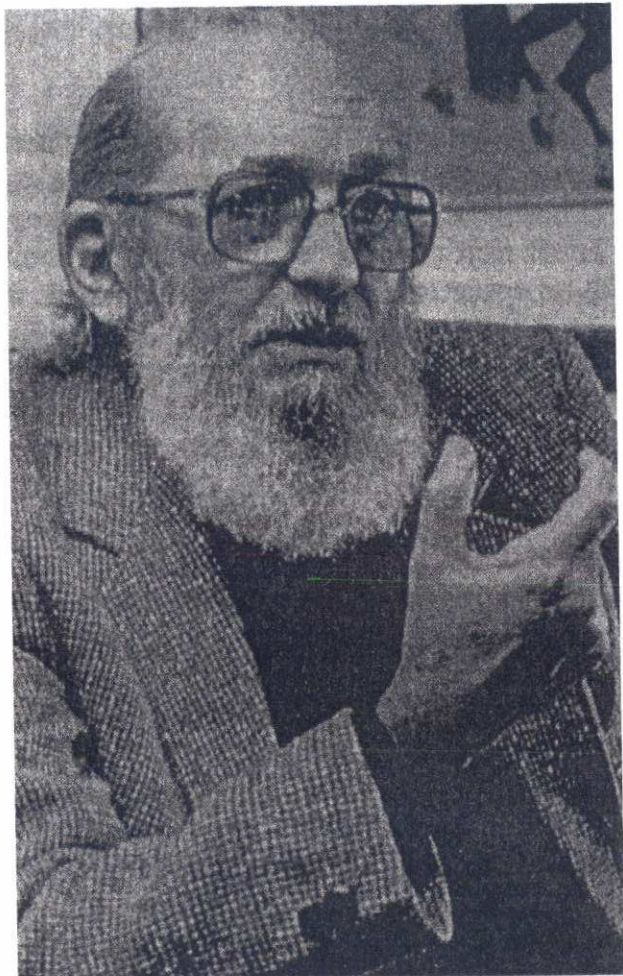
나는 파울루 프레이리의 성격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마치고자 한다.

내가 글을 쓰고 있던 때에도 파울루 프레이리는 글을 쓰고, 배우고, 참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렇기에 이 작업은 항상 미완성일 것이다. 이 책은 그의 편에 서서 파울루 프레이리가 쓴 원저작보다 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쓴 첫 번째 책이다.

나는 파울루 프레이리를 대단히 존경하지만, 이 책이 그와 그의 생각에 대한 변명으로 여겨지지 않길 바란다. 투명하고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나의 임무이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책으로부터 배운 것은 현실, 곧 세계이다. 그리고 세계와 현실은 모순적이다.

파울루 프레이리 또한 우리 모두와 같이 좌절감으로 고통스러워한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화를 내며 세미나 장소를 떠나기도 한다. 그는 세상이 자신이 그래야 한다고 꿈꿨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분노하기도 한다. 그 또한 종종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파울루 프레이리, 1994년.

온화한 사람이지만 화를 낸다. 그는 민주적임에도 자부심이 있다. 그는 열정적이지만 그의 열정을 그의 사상과 분리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현재의 모든 역사적이고 참여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시간에 추월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살아 있고 일하고 있으며 역사와 함께 변화하고 계획들을 만들고 있다.

그는 며칠 동안 헤시페에 영구적으로 돌아가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헤시페를 떠나지 않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계획들과 그의 활동의 발전을 위해 상파울루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일과 즐거움이 동시에 결합된 일만 하겠다는 한 가지 단서 조항을 두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친절하고 행복한 학교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과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것이 삶처럼 종종 힘들기는 해도 기쁜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나는 종종 왜 파울루 프레이리가 1964년까지 주임 교수로 있었던 페르남부쿠 연방 대학에 다시 자리를 잡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했다.

1979년 사면과 함께 브라질 정부는 모든 망명자들이 브라질에서 자신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독재 정부가

임명한 위원회가 진행하는 일종의 '위험성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프레이리는 이 테스트를 받는 것을 거부했고 그 결과 여러 해 동안 경제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

1985년 소위 새로운 공화국의 도래와 함께 사면법이 수정되어 자동으로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다. 1987년 프레이리는 자신의 일자리를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했고 같은 해 복직이 이루어졌다. 바로 직후, 그는 정년 퇴임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는 은퇴를 요청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1986년 10월 이우자의 사망 이듬해에 그는 그녀에게 쓴 편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것도 쓰지 못했는데 그 편지는 출간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가 받아들인 일자리 몇 개 중 하나는 유니세프의 자문 위원이 되는 것이었다. 1987년 말, 그는 상파울루의 가톨릭 대학에서 다시 일하기를 요청했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로 돌아갔다.

1985년 페르남부쿠 연방 대학에서 그가 1964년 망명으로 떠났던 대학 직원으로 명목상 복귀하기를 요청했다. 그는 다음 해 명목상 복귀했고 즉시 은퇴했다. 그 기간 동안 파울루 프레이리가 했던 선언에 따르면 그는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남겨 주기 위해서 은퇴했다. 1981년 그는

70세라는 나이 때문에 자신이 1980년 처음 작업에 착수했던 캄피나스 대학에서도 은퇴했다. 그 이후로 그는 상파울루 가톨릭 대학에서 신학 과정을 운영하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프로그램과 그들의 논문, 그리고 그들의 실천에 대해 토론했다. 그는 여전히 매우 활동적이었다. 과정을 가르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유명한 교육 단체들과 대학에 조언자로서 활동했다.

그가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글쓰기 활동과 관련돼 있다.

- (1) 《크리스치나에게 쓰는 편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작업으로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책(그러나 단지 이것만은 아니다.)이며 그 안에 교육이 계속적으로 주요 주제로 남아 있다.
- (2) 아밀카르 카브랄에 대한 에세이인 《혁명의 교육학》: 이 글에서 그는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를 참고하고 있다.
- (3) 《페다고지 다시 읽기》: 출간되고 20년이 지난 후 이 책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성찰하는 책이다. 《페다고지》와 관련된 수많은 반향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를 통해 그 책은 독립했다. 프레이리는 그 책을 다시 쓸 의도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다시 공부했다. 이 작업은 끝났고 《희

망의 교육학: 페다고지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곧 출간될 것이다.

- (4) 그의 주요 저작들의 문집, 그것들 중 몇은 다시 쓰고 어떤 것들은 재구성되어 합쳐질 것이다. 이 책은 젊은 교육자들을 초기 훈련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아동을 위한 책을 쓴 적이 없지만 쓰고 싶어 했다. 누가 알겠는가, 언젠가 그가 쓰게 될지도 모른다.

1991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있었던 한 강연에서 나는 파울루 프레이리가 뻑뻑이 들어앉은 관중들 앞에서 “나는 환상적이고 급진적인 이중성을 경험했다”¹고 단언하는 것을 들었다. 그 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은 근대 유럽 사상에 뚜렷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영향은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유럽인처럼 유럽의 사상을 이해하지는 않았지만 브라질 사람으로서 더 정확히는 북동부 지역 사람으로서 이해했다.

나는 파울루 프레이리가 한편으로는 적어도 라틴아메리카의 학교가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던 것처럼 상상했던 1960년대 교육학의 꿈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가 단순히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장치로만 여겨졌던 1970년대의 비관주의를 극복할 수 있었다

고 믿는다. 순진한 교육학과 부정적인 비관주의를 극복하면서 프레이리는 가능한 꿈들을 꾸는 유토피아를 신실하게 계속 믿었다.

이 책을 마무리 지으면서 나는 파울루 프레이리의 사상이 어떤 미래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나는 파울루 프레이리가 펼친 활동의 미래가 보편적인 교육이라는 개념으로서 민중 교육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페다고지》가 나온 지 20년이 조금 더 지난 후, 이 중대한 작업을 통해 주목받은 민중 교육은 계속해서 라틴아메리카의 사상이 보편적인 교육학적 사상이 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민중 교육은 라틴아메리카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제 3세계 국가들에서만이 아니라 선진 산업국가들에서 그리고 뚜렷이 구별되는 현실들에서 계속해서 수많은 경험들에 영감을 주는 이론적인 체계이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자신이 속해 있던 그 순간에 영향을 받았고 그가 만든 시대에 영향을 주었으며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민중 교육은 다양한 단계를 거쳐 왔다. 그것은 다양한 시각에 영감을 받은 역동적인 운동이며 거대한 모자이크를 형성한다. 이 모든 시각들이 파울루 프레이리의 사상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니카라과 문해 운동의 게릴라적 낙

관주의로부터 비정형적인 공동체 학교를 거쳐 공립학교의 교육 경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 그의 사상을 참조하고 있다.

이 모든 사례들이 파울루 프레이리 사상의 전 세계적인 확장을 보여 주고 있고, 그것은 교육 사상사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다.

파울루 프레이리의 작업은 계속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전파되어야 하고 심지어 적대적인 방식으로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마르크스가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혹은 그의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처럼 그는 이 현상에 대해 어떠한 통제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비평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

나는 보통 이러한 비평들을 구별된 두 개 집단으로 분류한다.

- (1) 선입견 때문이거나 혹은 이데올로기적이고 방법론적인 동기들로 인해 프레이리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 (2) 그의 생각을 비판하지만 동시에 그의 가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첫 번째 집단은 프레이리를 '관념론자', '대중적 진보주

의자', '무방향자', '가톨릭 신무정부주의자', 그리고 심지어 '권위주의자'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꼬리표는 많다. 파울루 프레이리의 사상은 수많은 논쟁을, 특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을 유발시켰다.

그의 가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 일부를 '정통 프레이리파'라고 부를 수도 있다. 즉, 프레이리의 사상을 그것 자체로 완전하게 이해하고 다른 사상의 영향을 바라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소수이며 우리는 그들을 순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그의 작업을 신화로 만들어 버린다. 프레이리와 프레이리의 활동에 좀 더 근접하여 활동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은 프레이리 자신을 포함하여 '비정통 프레이리파'라고 부를 수 있다.² 그들은 파울루 프레이리의 사상에 전 세계 교육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다른 연구 결과들을 덧입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들이 매우 많고 때로는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상적 흐름들이 프레이리의 작업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다. 그들 모두는 파울루 프레이리의 유산에 의존하지만 그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

나는 내 자신을 파울루 프레이리의 제자라고 생각하며 같은 방식으로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지만 마르크스 작업의 제자라고 생각한다. 나는 파울루 프레이리의 사상이 다른 연구 성과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식으로 나는 1970년대에 그의 대화의 교육학을 갈등의 범

주와 연결하면서 파울루 프레이리를 마르크스주의의 자유의 교육학의 토대로서 이해하려고 해 보았다. 이 내용은 1979년 브라질에서 출간된 프레이리의 책 《교육과 변화 Educação e mudança》에 내가 쓴 서문에 나와 있다. 후에 나는 대화의 교육학과 내가 1985년 출간한 책 《대화과 모순 Pedagogia: diálogo e conflito》에 있는 갈등 중 하나와의 관계를 주제로 논의했다. 나는 마릴레나 샤우이와 마찬가지로 “갈등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정치에 대한 자각을 위해 갈등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정치체제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특권이다”³라는 것에 동의한다.

지난 20년간 프레이리와 함께 일하면서 - 특히 그가 상파울루 문해 운동을 주도하던 때와 상파울루에서 지방자치 교육부 장관으로 행정 책임을 맡고 있던 시절에 - 나는 프레이리에게 브라질 기관들의 권위주의와 중앙집권주의라는 역사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모든 수준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 프레이리와 내가 의견이 달랐던 것은 학교의 자율성이라는 이 특정한 쟁점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교육 행정가들의 입장에서 행정이 좀 더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대변한 반면 나는 자율성의 제안조차도 반드시 학교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따라서 행정이 학교에 대한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내 생각에는 행정부처의 교육학적 제안은 학교들로부터 나온 제안이어야

한다.⁴

그가 1992년 8월 28일에 나눈 사적인 대화에서 내게 말한 것처럼, 이런 생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정은 지속되었다.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관점에서 보이는 차이가 생산적이라면 반드시 근본적인 것, 곧 개인이 존중되어야 한다. 차이는 개인들 간의 무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차이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것은 모두가 갈망하는 더 높은 차원의 문명사회를 나타낸다.⁵

몇 년 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파울루 프레이리가 생각하기를 멈췄다고 언급했다. 전혀 반대다! 그를 폄하하는 사람에게는 실망스럽겠지만, 파울루 프레이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활동하고 생산하고 출판하며⁶ 책을 읽고 일하고 참여하고 싸우고 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다. 그는 자유의 결핍과 정치적 부패에 여전히 분개한다. 다시 말하면 파울루 프레이리는 그 자신의 사상처럼 생명력을 갖고 살아 있다.

에필로그:세기말의 교육
파울루 프레이리와 나눈 대화

우리는 이 책에 대해 저자와 파울루 프레이리가 나눈 대화, 그리고 세기말의 교육에 대한 전망으로 이 책을 마치려고 한다.

모아시르 가도치

저는 이 시대의 교육자에 대한 기억을 되찾으려는 의도로 이 책을 썼습니다. 당신의 작업을 다른 동시대 교육자들과 연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과거에 대한 흥미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교육학을 건설하려는 시도이며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당신의 교육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지향은 오늘날 우리가 교육이 처해 있는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발견했을 때보다 조금이나마 더 나은 세상을

남겨 두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을 갖추어 가고 있는 교사들을 이 연대의 세계, 많은 이름을 갖게 될지도 모르는 세계, 그렇지만 지금 명확하지는 않지만 행복과 사랑으로 그리고 삶의 의지로 더욱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는 이 세계에 총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오늘날 교육자가 어떻게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들은 훈련되어야 합니까?

프레이리

저는 당신에게만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이제 막 끝낸 이 훌륭한 책을 읽을 독자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막 자신들의 훈련을 끝내 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훈련 과정의 한 부분이 된 이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당신을 통해 그들과 이런 대화를 하게 된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당신의 질문이 제가 항상 말하는 “세기말”이라고 부르는 것, 즉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바로 이미 살고 있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만들어 내고 건설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많

은 관련이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젊은 남자 혹은 여자, 성인, 그리고 나이 든 사람, 우리 모두가 역사적 임무로 갖고 있는 좋은 것 중 하나가 그의 시대를 책임지는 것, 그리고 그 자신을 자신의 시대에 결합시키고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당신을 통해 저와 대화하게 되는 젊은이들에게 그 자신의 시대를 책임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사를 가능성으로서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글을 쓰는 어느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글에 꼭 인용하지 않더라도 '남자가-전 여자도 덧붙이겠습니다- 역사를 만든다'고 말한 마르크스의 핵심적인 선언을 참조합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발견한 현실로부터의 역사만, 그리고 오직 그것으로부터만 역사를 만듭니다.

제가 젊은이들에게 "당신의 시대를 책임지고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이 되려면, 우선 역사를 가능성으로서 이해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뜻은 마르크스가 말한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마르크스가 옳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마르크스 사상의 노예가 아니므로 때때로 그가 옳았다고 혹은 그가 틀렸던 것 같다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주어진 구체적인 상황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이미 존재하는 구조로부터 역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매우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과 장소는 우리를 기계적으로 규정하는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반드시 가능성의 시간과 장소여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역사를 가능성으로서 이해하는 반면, 역시 그것의 불가능성 또한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가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미래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래는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의 시대가 왔을 때, 그들의 미래는 미리 결정되거나 미리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미래는 불만족스러운 현재의 단순한 반복도 아닙니다.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며, 이 '다가온다'는 의미는 미래가 나 혹은 우리가 현재를 변화시킨 지점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만든다는 것은 곧 현재를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역사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역사가 가능성이라면,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시대를 책임진다면, 나는 이 시대의 핵심적인 임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지금 내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젊은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들에게 그들의 임무가 무엇이어야 한다고 확실히 말해 줄 수는 없지만 제가 떠맡고 있는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 세대의 책임이 무엇이었는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기말에 가지고 있던 가장 핵심적인 책임, 그리고 세기말 훨씬 이전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해방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방의 책임이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저는 자유란 인간이라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심지어 좀 더 격하게 이야기하면 자유는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삶의 본성을 이루는 한 부분입니다. 자라면서 태양을 향해 굽어지는 나무는 자유로운 움직임을 한 것이지만 종으로 제한되면 단순한 생명 유지를 위한 움직임일 뿐이지, 나무가 갖고 있는 자유에 대한 본능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유의 회복에 관한 혹은 아직 허락되지 않은 자유의 창출에 관한 해방의 임무에 대해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영속적이고 역사적인 임무가 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이 가장 큰 임무이거나 혹은 유일한 임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게 될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역사를 가능성으로서 이해한다면, 교육자는 교육이 철저히 역사적이므로 교육 역시 하나의 가능성임

을 깨달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교육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은 제한 가능하거나 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유의미하기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열여덟 살이고 그들의 창조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는 때에 다음 세기를 시작하게 될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기의 교육이 자유의 탈환이나 재현을 위한 견고한 현실을 변화시키는 핵심적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여러분은 교육적 실천이 자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로서 효력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가도치

다가오고 있는 세대, 지금 열여덟, 열아홉, 스무 살이 된 미래 사회를 건설할 이 세대는 그들이 미래를 가능성으로 생각했을 때 사회학적인 범주들에 대해서는 덜 다루고 윤리적이고 인류학적인 범주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은 사랑, 우정, 명백함 그리고 정치 의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과 함께 시작될 교육은 삶, 개성, 육체에 대해 많이 다룹니다. 육체는 진보적인 방식으로 재발견될

니다. 과거 세대의 해방을 위한 투쟁은 인간의 육체에 대한 가치를 두는 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 투쟁은 좀 더 사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쾌락을 동반한 자유, 사랑 그리고 육체를 원하는 이 세대에 의해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철학자, 펠릭스 가타리의 표현을 빌면 젊은이들이 그들의 육체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 분자혁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당신의 교육학은 이 투쟁에서 차이, 인간, 개인에 대해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차이의 회복 때문에 당신의 사상은 과거보다 오늘날 훨씬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은 역사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각 개인의 기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이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프레이리

제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겸손하게 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독자들에게 사과를 해야겠네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당신이 말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분석자로서 당신은 최소한 이러한 사상들 혹은 교육학 정신 그 자체가 오늘날 더 많이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고 말했지요.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에 미국에 있었는데 《페다고지》가 27쇄를 찍었다는 것과 스페인어로는 35쇄가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당신이 말한 것과 관련이 있죠.

당신은 당신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세상에 대한 특정한 형태의 이해와 투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단지 육체에 대한 이해를 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있고 육체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 자격시험에서 육체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어떤 지원자의 일을 당신이 다룰 때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 끝나고 나서 - 그리고 이 일을 매우 잘했죠 - “육체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보았죠. 즉, 내가 하는 일이 내 육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현재의 내 육체를 만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제가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육체에 속하는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제 육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중요성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의 육체는 자유를 향한 투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육체는 갈구하고 가리키며, 표명하고 저항하고, 굶히고 일어나며 그려 내고 세상을 새롭게 만듭니다.

저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며, 우리들 중 누구도 변화가 개인의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

다. 육체는 또한 사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중요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성은 특정한 욕구와 연관돼 있습니다.

한 가지 당신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사랑을 부정하고 계층 간의 사랑에 이의를 제기하는 혁명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 게바라를 추종합니다. 사랑과 혁명은 한 몸입니다. 육체를 유지하고 노골적으로 만드는 엄청난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인지 능력과 관련되어 있죠.

저는 세상을 알아 가는 엄격한 행위와 알고자 하는 열정을 떨어뜨려 놓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세상과 사랑에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을 알아 가는 과정 그 자체도 사랑합니다.

가도치

프레이리 씨, 여러 가지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젊은이들에게 말해 온 것은 혁명적이 된다는 것은 곧 심각해지고, 추해지며, 둔해지고 시시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혁명에 대한 생각이며, 혁명은…….

프레이리

잠옷을 입고 사랑을 나누는 거죠.

가도치

맞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육학을 만들어 낼 젊은이들과 만들고 싶어 하는, 다시 말해 자신들의 책을 쓰고 혁명적인 교육학을 건설할 젊은이들과 만들고 싶어 하는 이 교육학은 절대로 한물간 교육학이 아닐 것입니다.

프레이리

그럴 수도 있지만 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프랑스 교육자인 조르주 스니테르를 아시죠? 저는 그가 이 세기말의 교육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제대로 된 개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한 마르크스주의적 선택을 하고 마르크스의 사상에 창조적인 충성심을 갖고 있는 사회학자입니다. 그의 최근 저서인 《학교에서의 행복 La joie à l'école》은 기쁨에 대한 찬미가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교육을 통해 교육이 행복을 만들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묘사하는 학교, 그가 꿈꾸는 학교는 신 나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덜 진지한 것은 아닙니다. 스니테르에게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가 진지함이 부족하다고 항변하는 것을 상상하니 이상하네요.

저는 당신에게 동의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글을 읽는 젊은이들은 약하고 느슨한 교육학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유의 임무, 해방의 임무, 가능성

으로서의 역사, 의식적이고 관능적인 육체에 대한 이해, 가득한 생명력, 이 모든 것들이 만족의 교육학(Pedagogy of Contentment)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미나 몇 개에 참석하기 위해 초대받아 갔던 쿠바에서의 기억이 떠오르네요. 저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바나 대학에서 마르크스 윤리학을 가르치는 한 젊은 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자신이 쓴 사랑에 관한 책을 주었는데 그 책에는 사랑이 마르크스 윤리학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을 아바나 대학의 젊은이들에게 주었고 그녀가 그들과 나눈 토론에서 이 대학생들이 좀 더 명백한 사랑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할 자유와 자신들을 자유롭게 해 줄 사랑을 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녀들은 관계에서의 친밀감 부족에 대해 그리고 젊은 남자들의 친절함 부족에 대해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애정, 약간 장난기 있고 사랑스러운 애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사랑과 애정이 어떤 식으로든지 학습과 생산의 진지함을 조금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과 애정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가도치

당신이 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미 세기말 교육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 교육은 재생산과 새로운 관점으로 지식을 구성한다는 중요한 임무를 달성했습니다. 전통적인 학교는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체벌과 매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아름다움과 애정 그리고 자신들이 공부하는 것과 자신들의 삶의 통합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권위주의에 저항하죠.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인들이 ‘파이데이아(paidéia)’, 즉 ‘완전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마르크스가 다방면의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미래의 교육에 대한 구성은 우리를 과거로, 애초에 존재했던 근원적인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 구성은 그리스 시대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함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극히 개인적이었죠. 오늘날 교육 구성은 집단의 즐거운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질문을 하나 더 하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만들고자 하는 학교는 단순히 행복한 학교가 아니라 민중적이고 자율적인 공립학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학교죠. 그것이 완

전하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미 엘리트주의자와 자본주의자의 학교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공립학교는 모두를 위한 부르주아 공립학교의 단순한 확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부르주아 학교가 엘리트주의적이며 따라서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중 공립학교, 즉 민중의 관리와 새로운 질을 지닌 모두를 위한 학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날 이 학교의 탄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이 출현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프레이리

저는 이 현상을 우리 시대의 특이한 일 중 하나, 혹은 우리 시대에서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진지하고 엄격하고 즐거운 학교에 대한 모험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절대로 배우는 행위의 진지함을 잊지 않아야 하며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쉬운 행복과 이 행복을 헛갈려서는 안 된다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학교들 역시 했던 실수죠. 이제는 더 이상 책상을 목재가 원래 갖고 있는 단단함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태도를 경직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

다. 이미 괴로워하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려면 넥타이를 매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이들이 장난감 속에서 길을 잃을 정도로, 그냥 즐겁게만 지낼 정도로 느슨해져서도 안 됩니다.

배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임무입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하는 과정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또한 학생들에게 학습하는 행위 속에 이해하는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학습하는 행위가 어렵고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지만 시작하는 순간부터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가도치

물론 그렇습니다. 프레이리 씨. 조르주 스니데르는 《학교에서의 행복》에서 인지와 정서 사이의 분리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기말의 교육자란 전통적인 교육자들은 하지 못했던 변증법적 통합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죠.

프레이리

그리고 몇몇 새로운 교육학들 역시 인지 발달을 손상시킬 정도로 행복과 정서적인 요소들을 과장하느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죠.

가도치

저는 전통적인 교육학이 이번 세기 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이 발전하면서 정서적인 것이 인지적인 것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 줬죠.

전통적인 교육학은 새 학교의 교육학으로부터 발전해 온 지적 자산, 곧 알아 가는 행위는 걷고, 먹고, 사랑하는 행위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것은 인지적인 것에서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프레일리

확실히 그랬죠, 그 결과 전통적인 교육학은 훈육을 지나치게 사용했습니다. 배우는 행위가 자신의 일상생활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배우기 위해서 훈육이 필요했던 거죠. 분명하게, 이견 없이, 배우는 행위는 그것이 시작된 이후로 배우는 행위의 중요한 부분인 훈육을 요구해 왔습니다. 훈육 없이는 학생들은 학습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훈육은 절대로 괴롭히는 훈육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도치

맞습니다. 학교의, 그리고 일반적인 교육의 딜레마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와 훈육, 자유와 권위를 유기적으로 그리고 변증법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죠.

한편으로, 전통적인 학교는 지나치게 훈육을 중요시합니다. 다른 한 편으로 새로운 학교는 지나치게 자유를 중요시하죠. 더불어, 새로운 천 년이 오기 전에 두 가지 주요 유형의 결합체로서 등장한 사회주의 학교(잠정적으로 이렇게 부르지만 다른 이름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가 오기 전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고 싶습니다. 사회주의 학교에서 자유와 훈육은 기계적으로 반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 둘은 상대방과 연합하여 변증법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프레일리 씨, 다소 개인적인 질문으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이 세기말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당신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프레일리

이 질문이 비록 훌륭하지는 않지만, 당신은 이런 질문을 해야 하고, 저는 그에 대해 간단한 답을 해야겠네요. 당신이 독자로 삼고 있는 16세에서 20세 사이의 사람들을 위한 대답입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뭐라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그 질문이 마음에 든다는 점이고 제 대답은 은퇴할 생각은 없다는 것입

니다.

저는 이제 일흔이 넘었고 제 마지막 순간인 세기말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아마도 텔레비전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카샤사(브라질의 민속주)나 좋은 와인을 한잔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 자신이 그런 것처럼 행복한 보헤미안 교육학을 위해 헌신할 것이며, 지금 제가 사는 방식대로 열정을 다 바칠 것입니다. 그것은 웃음의 교육학, 질문의 교육학, 호기심의 교육학, 현재를 통해 미래를 보는 교육학이 될 것이며 세상의 변화 가능성을 믿는 교육학, 곧 역사를 가능성으로 믿는 교육학이 될 것입니다.

주석

1장

1. Sobre educação: diálogos, 19쪽.
2. 같은 책, 92쪽.
3. Essa escola chamada vida, 7쪽.
4.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운동 Catholic Action: 가톨릭을 대중화하기 위해 1920년대에 가톨릭교회에 의해 설립된 조직, 풀뿌리 조직들과 교구 주교별, 지역별, 전국적 연합과 전국적 협의회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 조직은 1950년대에 풀뿌리 개혁을 위한 투쟁을 위한 조직과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5. 헬레나 살렘 Helena Salem이 편집한 <A igreja dos oprimidos> 서문에서.
6. 1978년 4월 5일에 있었던 브라질 하우지자네이루에 있는 신문 <Pasquin>과의 인터뷰에서.
7. 힘든 회복기를 지낸 후에, 예순여섯 살이 된 파울루 프레이리는 아나 마리아 A. 하스시 Ana Maria A. Hasche에게 애정을 갖게 되었는데 그녀는 프레이리가 헤시페에서 젊은 교사로 일할 때 중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렀던 예전 제자였다. 하스시는 54세의 미망인이었다. 그들은 1988년 8월 19일 결혼했다.
8. Medo e ousadia: o cotidiano do professor, 40쪽.
9. Paulo Freire, Essa escola chamada vida, 8쪽.
10. 장 피아제 Jean Piaget(1896~1980), 스위스의 심리학자로 어린이의 지능에 관한 연구로 유명하다.
11. MCP(대중 문화 운동)은 1958년 헤시페의 시장으로 선출된 미겔 아하이스의 구상이었다. 이 운동은 지역 연합 neighborhood association, 스포츠 클럽, 종교 건물들에 속한 교실들을 이용하여 민중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1960년에는 성인 문해 교육 사업만이 시작되었다. 다음 해에 가톨릭교회가 풀뿌리 교육 운동인 MEB를 설립했는데 이 운동은 문해 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대중의 문화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의식을 고취하여 교육과 문화 간의 본질적 연관성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도 포함하고 있었다. 창립 시기부터 파울루 프레이리는 MCP에 참여하였으며 이 운동의 일부로서 자신의 문해 교육 방법론을 정교화했다.
12. Medo e ousadia: o cotidiano do professor, 31쪽.
13. In Márcio Moreira Alves, O Cristo do povo, 13쪽.
14. Celso de Rui Beisiegel, Política e educação popular: a teoria e a prática de Paulo Freire no Brasil, 24쪽.
15. 브라질학교등연구소 ISEB는 1955년 7월에 당시 브라질 대통령이었던 유스셀리누 쿠비스체 Juscelino Kubitschek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뒤 1965년 4월에 문을 닫았다. 이 연구소는 사회과학을 브라질이 처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도구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지식인들로 구성되었다. 중요 인물들로는 알바루 비에이라 핀투, 엘리우 자구아리베 Helio Jaguaribe, 넬슨 웨르넬 Nelson Werneck

Sodre와 톨란드 코르비시에 등이 있다. "이세즘의 Isebism"은 브라질의 발전에서 양심과 이데올로기의 역할에 가치를 두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또 양도 불가능한 브라질의 양심을 구축하려고 시도했다. "이세즘의"의 좌파 비평가들은 "자유주의적" 전제를 보여 주려고 노력했는데 이 전제는 국가 발전에 필요하게 될 "계급 연합"이다.

16. Pedagogia: diálogo e conflito, 32쪽.
17. 사회민주주의: 자유 민주 운동, 시장경제, 그리고 사적 소유가 점진적인 재화의 사회화를 만들어 내며 민중들 사이의 상대적 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회주의 운동의 정치적 교리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평등주의적인 사회주의사회 건설과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포기한다.
18. 1961년 출간된 Revista Brasileira de Estudos Pedagógicos에서.
19. 위의 책.
20. "은행예금식 교육"은 학생을 빈 용기로 간주하여 교사가 그 안에 지식을 "쏟아붓는" 형태의 교육이다.
21. 1968년 칠레에서 있었던 교육과 농업 개혁에 관한 세미나를 위해 파울루 프레이리가 쓴 글에서 발췌했다.
22. Medo e ousadia: o cotidiano do professor, 18~19쪽.

2장

1.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파울루 프레이리의 제안(변증법적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엄격하고 융통성 없는 연속성이나 방법론적인 절대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제시된 방법론의 발전은 하나의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싶다.
2. 인간화는 사람들이 단지 자신들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관해서 사고함으로써 자신들의 모든 능력을 발전시킬 때,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과 자신의 행동 방식과 사고방식을 인식하게 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3. 프레이 베투와의 대화를 담은 <인생이 학교다(Essa escola chamada vida)>, 14~15쪽.
4. 파울루 프레이리는 양심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별한다. 즉 순진한 양심, 비판적 양심, 그리고 이행적 양심으로 구별한다. 이 세 가지는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양심으로부터 현실을 완전히 폭로할 수 있을 때 취하는 형태에 이르기까지의 범위에 걸쳐 있다. 이 세 가지는 내용의 측면에서나 조작화의 측면에서나 공식적인 차원들은 아니다.
5. 문해 교육을 받는 학생의 일상 세계에서 추출된 생성어는 단지 언어학적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현실을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다른 어휘들도 생성해야만 한다. 문해 모임은 전통적인 학교를 대체하는 교육 단위이다. 이것은 자신들의 일과 지역적·전국적 현실들, 그리고 자신들의 가정생활 등등을 토론하기 위해 함께 모인 사람들의 집단에 의해 형성된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통적인(은행예금식) 교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학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해 모임의 학생들은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됨과 동시에 "읽기"를 배우게 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실천을 분석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6. 편찬화(Codification): 학생이 자신의 살고 있는 일상생활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생성어와 연관된다. 편찬화는 현재 연구되고 있는 문제의 어떤 측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재의 사례들을 제공한다.

해독(Decodification)은 글자를 배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들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생성어 안에 담겨 있는 실존적인 요소들을 추출하기 위해 생성어(또는 언어적 암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7. 이 사례는 모수루 Mossoro와 안지쿠스 Angicos에서 1961~1962년에 있었던 문해 모임의 등사물에서 발췌되었다.
8. Celso de Rui Beisiegel, "Cultura do povo e educação popular," in Edênio Valle and José J. Queiroz, eds., A cultura do povo 3d. ed. (São Paulo: Cortez, 1985), 53~54쪽
9. 인간화(Hominization): 남자와 여자가 나타난 시기의 세계의 진화 단계를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행위하는 능력이 생긴 시기를 말한다. 의식화(Conscientization)란 사고와 행동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관계를 보여 주기 위해 프레이리가 사용한(많은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었다) 용어이다. 의식화된(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식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의 노동을 통하여 상호 의식화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한 사람(혹은 사람들의 집단이면 더 좋는데)은 왜 사물들이 그러한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변혁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실천(Praxis)이란 사람이 행하는 것(실천)과 사람이 행하는 것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론)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통일성이다. 이것은 실천의 철학이라고도 불리는 마르크스주의에서 흔한 개념인데 존재의 실제적인 조건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생산(생산적 실천)과 사회의 변혁(혁명적 실천)에 자신을 투여하는 능력을 말한다.
10. Vozes (Petrópolis, Rio de Janeiro) 79 (1981년 1/2월호).
11. 마달레나 프레이리가 쓴 저서 <A paixão de conhecer o mundo>는 1978년과 1981년 사이에 상파울루에 있는 에스콜라 크리아테(Escola Criarte)와 에스콜라 다 빌라(Escola da Vila)의 학교들에서 경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는 모든 교육적 과정의 주체이며,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측면들 사이에는 어떤 이분법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두 측면들 사이에는 세계를 발견하도록 이끄는 역동적이고 즐거운 관계가 존재한다. 교육자인 파니 아브라모비치(Fanny Abramovich)가 마달레나 프레이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삶과 실천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밝혔다.

3장

1. 미국 국제 개발처(USAID, 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소위 제3세계로 불리는 나라들의 교육 체제를 근대화하기 위해 진보를 위한 동맹에 의해 설립된 정책 집행 기관이었다. 이 기관은 교육 문화부와 다수의 협정과 기술 제휴(MEC-USAID programs)를 맺었는데, 특히 미국이 1920년대에 일어났던 개혁을 해외로 수출하던 1960년대에 이러한 협력이 활발했으며 그 목적은 기회의 평등과 기술-재정 협력이라는 민주주의적 허용 뒤에 숨어 있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진보 동맹(Alliance for Progress): 소위 라틴아메리카 민중들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1961년, 미국 대통령인 존 케네디는 이러한 도움을 통해 라틴아메리카가 선진국들로부터 돈을 빌림으로써 10년 후에는 기본적인 개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관의 모토는 "자유와 함께하는 진보"였다. 예

- 측할 수 있듯이 그 결과는 이 "동맹"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 안게 된 막대한 부채였다.
3. Aprendendo com a própria história, 41쪽.
 4. 같은 책.
 5. Guillermo Williamson C., "Paulo Freire: 1965~1969. Su paso por Chile y el Chile por que pasó."
 6. 문화적 침략은 특정 사회에 어떤 외국 문화가 침략해 들어가서 자신의 문화의 존재 방식과 세계관을 강요하는 것이다.
 7. PAIGC, Partido Africano para a Independência da Guinéa-Bissau e Cabo Verde-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독립 아프리카 당. MPLA, Movimento Popular de Libertação de Angola-앙골라 인민 해방 운동. FRELIMO, Frente de Libertação de Moçambique-모잠비크 해방 전선.
 8. Por uma pedagogia da pergunta, 20~21쪽.
 9. ICIRA가 1969년에 스페인어로 출간했다. 1971년에 도시스카 다르시 지 올리베이라가 브라질어로 번역하였다.
 10. 1970년에 영어와 스페인어로 처음 출판되었다. 1968년에 씌어졌지만 4년 후에야 브라질에서 출판되었다. 《페다고지》는 17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에르나니 마리아 Ernani Maria가 서문을 썼다. 프레이리의 저서들은 많은 언어들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으며 모든 세대의 교육자들과 정치 투사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11. 1970년에 〈하버드 교육 리뷰〉에 논문으로 출판되었으며 1972년에는 주앙 다 베이 가 코우티뉴 Jo o da Veiga Coutinho가 쓴 서문으로 영국의 펄컨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다른 논문들도 함께 실려 있는 포르투갈어판은 1976년이 되어서야 출판되었다.
 12. 파울루 프레이리는 기니비사우 현장의 헌정사에서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독립 아프리카 당의 지도자인 아밀카르 카브랄을 "민중들을 교육하는 교육자"라고 표현했다. 민중의 영웅이자 만인의 친구였던 아밀카르 카브랄은 기니비사우의 독립을 선포하기 7개월 전인 1973년에 암살당했다.

4장

1. 1983년 8월에 열린 상파울루 주 교육 포럼 공공 부문 개혁 강연에서 발제.
2. Paz e terra(Rio de Janeiro) 9.
3. Sobre educação, 77~78쪽.
4. 파울루 프레이리는 교사가 권위주의자가 되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힘의 우세는 능력이나 존경을 요구하지 않으며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5. Pedagogia: diálogo e conflito, 76쪽.
6. Paulo Freire and Ira Shor, Medo e ousadia: o cotidiano do professor, 203~204쪽.
7. 같은 책.
8. "A alfabetização de adultos: é ela um quefazer neutro?" 70쪽.
9. Por uma pedagogia da pergunta, 38쪽.
10. 같은 책. 56쪽.
11. Pedagogia: diálogo e conflito, 123쪽.

12. mensagem de Paulo Freire: teoria e prática da libertação. Texts selected by INODEP(Porto: Nova Crítica, 1977) 33쪽.
13. Diana A. Cunha, As utopias da educação: ensaios sobre as propostas de Paulo Freire, 23~29쪽.

5장

1. Paulo Freire, "Debate com os professores mineiros."
2. Paulo Freire, Moacir Gadotti, and Sérgio Guimarães, Pedagogia: diálogo e conflito, 56~57쪽.
3. Sobre educação dialogo, 14~15쪽.
4. 같은 책. 83쪽.
5. 이 책은 미국 독서 협회가 그 주제로 뽑는 최고 출판물 다섯 권 중 하나로 분류되었다.
6. Concepção dialética da história, 13~14쪽.

6장

1. 1980년 11월, 상파울루에 있는 상베르나르두 캄리고 대학에서 열린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한 브라질 기독교 회의에서 한 파울루 프레이리가 한 발언에서 발제.
2. Pedagogia do oprimido, 45쪽.
3. 〈Vozes〉와의 인터뷰. 1982년 1/2월호.
4. 〈Interação〉와의 인터뷰. 1984년 6/7월호.
5. Diário da Assembléia Nacional Constituinte, 1987년 7월 21일. I year, no. 100 (Supplement), Atas das Comissões(Brasília), 226쪽.
6. 파울루 프레이리의 책 《A educação na cidade》에 모아시르 가도치와 카를루스 알베르투 토히스가 쓴 서문 "Paulo Freire como administrador público"를 보라. 카를루스 알베르투 토히스의 "The state, Social Movements and Educational Policies in Latin America: A study of Municipal Policies in Sao Paulo, Brazil(UCLA: Los Angeles, Research Plan, 1992) 참조.
7. A educação na cidade, 22쪽.
8. 같은 책. 79쪽.
9. 같은 책. 80쪽.
10. 같은 책. 80쪽.
11. Maria Jose Vale Ferreira, Princípios político-pedagógicos do MOVA-SP, São Paulo, MOVA-SP, Caderno no. 3, Secretaria Municipal de Educação" (1990년 7월)을 보라.
12. 모아시르 가도치와 카를루스 알베르투 토히스의 Estado e educação popular na América Latina를 보라.
13. 모아시르 가도치의 Escola cidadã를 보라.
14. A educação na cidade, 143쪽.
15. 같은 책. 144쪽.

1. 교회의 사회 정치적 역할 그리고 신학에서의 진보적인 개념을 말한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전했으며, 기독교인이 자유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는 것을 옹호한다. 전통, 가족, 재산에 대한 보호를 기반으로 기독교인에게 엄격한 규율을 만들어 내는 교조적인 신학에 반대한다. 해방신학은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분석한다.
2. 셀레스틴 프레네(Célestin Freinet, 1896-1966. 프랑스의 사회주의 교육자로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전통 교육의 권위주의와 관료화된 교육학에 대항하여 중요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자유 교재와 그리기 같은 새로운 교육 방법을 도입하였다. 파울루 프레이리는 서신과 교육적인 자료들을 프레네파 교육자들이 있는 프랑스 협회와 교환했다.
3. 출생에서 25세에 이르기까지 한 소년이 어떤 교육 과정을 들어야 할지에 대해 설명한 교육 관련 논문을 저술한 프랑스 철학자이다. 허구의 인물인 이 소년은 에밀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이는 루소가 쓴 주요 저작의 제목이기도 하다.
4. 교육학의 영역에서 재교육에 대한 방법과 의견을 전개했던 미국의 정신 치료사이다. 그는 개인이 자유로운 환경에 있는 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스스로의 자원이 있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과 학생 중심의 가르침이 개인의 완전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5. 1926년 비엔나에서 출생한 이반 일리치는 수년간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서 신부로 일했다. 뉴욕에서 활동한 후, 그는 푸에르토리코의 가톨릭 대학을 지도하였고 멕시코의 쿠에르나바카에 국제 문화 자료 센터(CIDOC)를 설립했다. 국제 문화 자료 센터는 이중 문화 간의 자료 보관소로 누구나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었고 라틴아메리카인과 그 세계를 접할 수 있고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에 참여할 수 있었다.
6. La cuestión escolar, 647쪽.
7. 아니시우 스피놀라 테이세이라(Anísio Spínola Teixeira(1900-1971))는 브라질 바이아 출신인 유명한 교육자로서 해방 교육과 민중 학교의 수호자이다. 그는 새로운 학교를 옹호하기 위해 존 듀이의 사상을 브라질에 소개했다. 사상가이자 정치인이며 활동가인 그는 브라질리아 대학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이며, 1957년 출간된 《교육은 특권이 아니다》(Educação não é privilégio)는 그의 가장 유명한 저작으로서 교육의 민주화를 옹호하고 있다.
8. 〈하버드 교육 리뷰〉 4호(1977년 8월).
9. 안톤 세미오노비치 마카렌코(Anton Semionovitch Makarenko(1888-1939))는 소련의 개혁적인 교육가로서 집합 교육의 근본 원칙을 연구하여 그것을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고리키 콜로니와 페르진스키 코뮌에서 실천했다. 그는 교육과 생산의 연결에 대해 특히 강조했다. 그의 저작으로는 《교육적 시》(Pedagogic Poem)가 있다.
10. 소위 일하는 학교를 설립한 개혁적인 교육자이다. 그는 그것을 당대의 현실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하는 학습자들의 자기 조직화를 위한 도구로 여겼다. 현실에 대한 지식과 자기 조직화는 학교가 평등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세우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소이다.
11. 엠마누엘 무니르(Emmanuel Mounier(1905-1950))는 무신론자와 공산주의자 간의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도한 프랑스의 기독교 철학자이다. 그는 인격주의라 불리는 윤리 정치적인 신조의 창시자인데 그 내용은 인간의 가치가 모든 것의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인격주의는 연대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개인주의와는 다르며, 집단의 이득을 모든 것의 우위에 두는 집단주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결론

1. "Journée rencontre avec Paulo Freire," INFREP(Institut National de Formation et Recherche en Education Permanente) Convention Center "La Villette," Paris, 1991년 12월 12일.
2. 파울루 프레이리는 종종 마르크스의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인용하고는 했다.
3. 상파울루의 신문인 <Folha de Sao Paulo>과의 인터뷰, 1992년 4월 17일.
4. Moacir Gaddotti, Escola vivida, escola projetada.
5. 약간의 이론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존중은 파울루 프레이리가 1991년 4월 12일에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 대학에 방문했을 때 학교를 하나 세우겠다고 생각한 나를 신뢰했다는 사실을 봐도 알 수 있다. 파울루 프레이리 학교는 이미 이 위대한 브라질 교육학자의 사상을 공유하는 50명이 넘는 학자들의 네트워크를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비판적이고 조직적인 연구, 조사와 문서화, 그의 사상과 다른 이들의 사상에 대한 훈련과 정보를 통해 파울루 프레이리 학교는 그의 유산이 역동적으로 살아 있을 수 있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 파울루 프레이리는 《페다고지》가 처음 출간된 지 24년 후에 그 책을 다시 읽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그는 이 세기의 끝에서 교육이라는 맥락 안에서 그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새로운 선언을 하고자 한다. 프레이리의 새 책 제목은 《희망의 교육학》이다.

"A educação de adultos e as populações marginais. O problema dos mocambos" (Adult education and marginal populations). Seminario Regional Preparatório em Pernambuco; in *Anais do II Congresso Nacional de Educação de Adultos* (Annals of the 2nd National Congress of Adult Education). Rio de Janeiro: Ministério da Educação e Cultura, 1958.

Educação e atualidade brasileira (Education and the Brazilian present). Recife: Universidade Federal de Recife, 1959.

"Escola primária para o Brasil" (Primary Education for Brazil). *Revista Brasileira de estudos Pedagógicos*. (Rio de Janeiro, INEP-MEC) 35 (82) (Apr./Jun. 1961). pp. 15-33.

"Conscientização e alfabetização; uma nova visão do processo" (Conscientization and literacy; a new vision of the process), *Estudos Universitários*. (Recife) 5 (Apr./Jun, 1963). pp. 5-23.

Educação como prática da liberdade (Education as a practice of freedom). Rio de Janeiro: Paz e Terra, 1967.

The Cultural Action Process; An Introduction to its Understanding. Cambridge, Mass.: Center for Studies in Education and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October 1969.

Adult Education as Cultural Action. Cambridge, Mass.: Center for Studies in Education and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rvard University, October 1969.

"Witness to Liberation" In *Seeing Education Whole*, Geneva: WCC, 1970, With Tom Paxton, Jacques Prevert, Charles Hurst, Martin Conway, and Ellis Nelson.

"papel da educação na humanização" (The role of communication in humanization). *Revista Paz e Terra*. Rio de Janeiro: Paz e Terra, 1971.

Extensão ou comunicação? (Extension or communication?) Rio de Janeiro: Paz e Terra, 1971.

Pedagogia do oprimido (Pedagogy of the oppressed). Rio de Janeiro: Paz e Terra, 1974.

Educacion para el cambio social (Education for social change). Buenos Aires: Tierra Nueva, 1974.

Diálogo: descolarización, estruturas, liberaciones, educación (Dialog: Deschooling, structure, liberation, education). Benos Aires: Busqueta/Celadec, 1975, With Ivan Illich.

Ação cultural para a liberdade é outros escritos (Cultural action for freedom and other writings). Rio de Janeiro: Paz e Terra, 1976.

"A alfabetização de adultos: e ela um quefazer neutro?" (Adult literacy: Is it a neutral task?). *Educação & sociedade* (Campinas) 1(1) (Sept. 1978), pp. 64-70.

Os cristãos e a libertação dos oprimidos (The Christians and the freedom of the oppressed). Lisbon: Edições BASE, 1978.

Education for Critical Consciousness. New York: Seabury Press, 1978.

"Terceiro mundo e teologia. Carta a um jovem teólogo" (The Third World and Heology). In Carlos Alberto Torres, *Consciencia e história: a praxis education da Paulo Freire* (Consciousness and History: The Educative Praxis of Paulo Freire) São Paulo: Loyola, 1979.

Conscientização: teoria e prática da libertação (Conscientization: Theory and practice of freedom). São Paulo: Cortez & Moraes, 1979.

Edução e mudança (Education and change). Rio de Janeiro: Paz e Terra, 1979.

"Exílio e identidade: a trajetória de anos do IDAC" (Exile and identity: The trajectory of IDAC years). In Paulo Freire, Claudius Cecon, Miguel Darcy de Oliveira, and Rojiska Darcy de Oliverira, *Vivendo e aprendendo: experiências do IDAC em educação*, pp. 9-14. São Paulo: Brasiliense, 1980.

"Quatro cartas aos animadores de círculos de cultura de São Tomé e Príncipe" (Four letters to the animators of the cultural circles of São Tomé and Príncipe). In Carlos Rodrigues Brandão, *A questão política da educação popular* (The Political Question of popular education), pp.27-30.

"The People Speak Their Word: Learning to Read and Write in São Tomé and Príncipe". Translated by Loretta Slover. *Harvard Educational Review* 1 (51)

(February 1981), pp. 27-30.

Der Lehrer ist Politiker und Künstler. Hamburg: Rowohlt Taschenbuch Verlag, 1981. Edited by Birgit Wingroth.

Cartas à Guiné-Bissau. Registros de uma experiência em processo (Letters to Guinea-Bissau. Registering an experience in Process). Rio de Janeiro: Paz e Terra, 1981.

Ideologia e educação: reflexões sobre a não neutralidade da educação (Ideology and education: Reflections on the nonneutrality of education). Rio de Janeiro: Paz e Terra, 1981.

"Criando métodos de pesquisa e alternativas: aprendendo a fazer melhor através da ação" (Creating methods of research and alternatives: Learning how to do better through action). In Carlos Rodrigues Brandão, *Pesquisa participante* (Participatory research). São Paulo: Brasiliense, 1981.

"Debate com os professores mineiros" (Debate with teachers of Minas Gerais). Belo Horizonte, April 1981. Mimeo.

A importância do ato de ler em três artigos que se completam (The importance of reading in three articles that complement each other). São Paulo: Cortez/Autores Associados, 1982.

"Educação: o sonho possível" (Education: A possible dream). In Carlos Rodrigues Brandão, *O educador: vida e morte* (The educator: Life and death), pp. 81-101. Rio de Janeiro, Graal, 1982.

Paulo Freire ao vivo (Paulo Freire alive). São Paulo: Loyola, 1982. With Aldo Vannucchi and Wladimir dos Santos.

Sobre educação: diálogos (On education: Dialogues). Rio de Janeiro: Paz e Terra, vol. 1, 1982 and vol. 2, 1984. With Sérgio Guimarães.

"O sentido da avaliação na prática da base" (The meaning of assessment on grassroots practice). In Jose J. Queiróz. *A educação popular nas comunidades eclesiais de base* (Popular education in the grassroots communities of the church), pp. 97-101. São Paulo: Paulinas, 1985.

Essa escola chamada vida (This school called life). São Paulo: Atica, 1985. With Frei Betto.

Por uma pedagogia da pergunta (Learning to question: A pedagogy of liberation). Geneva: WCC publications, 1989). Rio de Janeiro: Paz e Terra, 1985. With Antonio Faundez.

Pedagogia: diálogo e conflito (Pedagogy: dialogue and conflict). São Paulo: Cortez, 1985. (With Moacir Gadotti and Sérgio Guimarães).

The Politics of Education: Culture, Power and Liberation. South Hadley, Mass.: Bergin & Garvey, 1985. Introduction by Henry A. Giroux and translated by Donaldo Macedo.

Fazer escola conhecendo a vida (Building a school knowing life). Campinas: Papirus, 1986. With Adriano Nogueira and Débora Mazza.

Aprendendo com a própria história (Learning with one's own history). Rio de Janeiro: Paz e Terra, 1987. With Sérgio Guimarães.

"A alfabetização como elemento da formação da cidadania" (Literacy as an element of training for citizenship). Brasília, May 1987.

Medo e ousadia: o cotidiano do professor (Pedagogy for liberation: Dialogues on transforming education. South Hadley, Mass.: Bergin & Garvey, 1987). Rio de Janeiro: Paz e Terra, 1987. With Ira Shor.

Literacy: Reading the Word and The World. South Hadley, Mass.: Bergin & Garvey, 1987. With Donaldo Macedo.

Na escola que fazemos. . . uma relação interdisciplinar em educação popular (It is at school that we do. . . an interdisciplinary relationship on popular education). Petrópolis: Vozes, 1988. Edited by Adriano Nogueira and Débora Mazza.

Educadores de rua; uma abordagem crítica (Street educators: A critical approach). Brasília: Unicef, 1989.

Conversando con educadores (Talking with educators). Montevideo: Roca Viva, 1990.

We Make the Road by Walking: Conversations on Education and Social Chang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0. Edited by Brenda Bell, John Gaventa, and John Peters, With Myles Horton.

A educação na cidade (Education in the city). São Paulo: Cortez, 1991.

- 《교육과 의식화》 채광석, 심지연 옮김. 새발. 1978.
- 《민중교육론》 “문화적 행동으로서의 교육”, 김래상 옮김. 한길사. 1979.
- 《실천교육학》 김래상 옮김. 일월서각. 1986.
- 《해방을 꿈꾸는 교육》 아이라 쇼르와 공저. 김사원 옮김. 아웃. 1988.
- 《인생이 학교다》 프레이 베투와 공저. 김종민 옮김. 분도출판사. 1988.
- 《프레이리의 교사론》 교육문화연구회 옮김. 아침이슬. 2000.
- 《희망의 교육학》 교육문화연구회 옮김. 아침이슬. 2002.
- 《교육과 정치의식》 한준상 옮김. 한국학술정보. 2003.
- 《망고나무 그늘 아래서》 교육문화연구회 옮김. 아침이슬. 2003.
-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프락시스 옮김. 아침이슬. 2006.
- 《자유와 교육학》 사람대사람 옮김. 아침이슬. 2007.
- 《페다고지》
성찬성 옮김. 한마당. 1995.
남경태 옮김. 그린비. 2009.
- 《크리스티나에게 보내는 편지》 남경태 옮김. 양철북. 2011.
- 《교육과 의식화》 채광석 옮김. 중원문화사. 2012.

저는 《망고나무 그늘 아래서》를 통해 파울루 프레이리를 처음 알았습니다. 브라질의 유명한 민중 교육학자 정도로만 알고 있던 저에게는, 단순히 교육이라는 부문을 넘어 삶 전체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그의 글들이 상당한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제가 그의 생을 다룬 파울루 프레이리 읽기를 번역한다니, 그것도 번역에 첫발을 내딛는 제게는 두근거림이면서도 동시에 묵직한 책임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책 전반에 담긴 그의 철학은 철저하게 민중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하는 교육, 그리고 교육을 통해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피억압자들 스스로가 자신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그의 교육의 출발점이라면, 실천을 통해 자신의 현실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교육의 종착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풍부한 교육철학과 사상, 그리고 이미 국내에도 출간되어 있는 도서 여러 권은 한국의 민중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역시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해 고민하는 교사들이 읽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책을 번역하는 내내, 제가 받았던 한국의 제도 교육과 여러 번 개정에 개정을 거듭했으나,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교육,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일련의 자살 사건까지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교육 현실이 20년 전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면서도, 내내 이것을 '왜' 공부하는지, 내가 암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내가 살아갈 세상살이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알지 못했던 중고등학교 시절 제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친구들을 통해, 또 뉴스나 신문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지금의 교육이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교육은 날이 갈수록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길러 내고 성장시키기보다는, 지식을 단순히 흡입해야 하는 기계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번역을 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텍스트를 우리말로 치환하는 과정이기보다는, 브라질의 위대한 교육자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그의 인생과 사상을 모두 이해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울루 프레이리의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 분이거나, 앞으로 그의 책을 읽어 보고자 하는 분에게는 조금이나마 그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는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특히, 저의 못난 번역은 포르투갈어로 쓰였을 원문을 영어에서 우리말로 중역하는 과정이 다소 힘들었다는 변명 뒤로 숨겨 보고자 합니다.

책이 출간된 후 3년 후인 1997년에 파울루 프레이리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책은 그에 대한 회고가 아니라, 현존하는 교육 사상가로서 파울루 프레이리에 대해 돌아보고, 앞으로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 말미에 담긴 저자와 프레이리의 대화는 두 사람의 즐겁지만 가볍지 않은 교육에 대한 고민을 드러냅니다. 대화 마지막에 프레이리는 자신은 일흔이 넘었지만 아직 은퇴하지 않았고, 20세기의 끝에 선 동시대 사람으로서 교육에 대한 고민을 끝내지 않고 계속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아니면 자신이 즐기는 와인 한잔을 하면서 탱고를 들을 수도 있었겠지요. 아마도 그는 '어느 답도 완벽하지 않다'던 자신의 말처럼 스스

로 이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즐기며 최선을 다했을 것 같습니다.

번역을 하는 내내, 그러지는 풍경 하나가 있었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소박한 마을 어딘가, 망고나무가 드리워 주는 그늘 아래에서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을 쓰며 공부를 하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저 역시 여러 사람들의 나뭇가지가 드리워 주는 그늘을 통해 이 작업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번역이 아주 좋아서, 하고 싶다는 열정 말고는 아무것도 없던 저에게 기회를 주신 한형식 선생님, 날카로운 가르침을 주셨지만 첫걸음을 내딛는 후배가 좌절하지 않도록 '나 역시 번역은 늘 어렵다'고 말해 주신 신기섭 선생님, 앞서 어려운 부분들을 도맡아 해 주신 백경숙 선생님, 그리고 결국 이 원고를 붙잡고 저보다 더 씨름하셨을 편집자 장원 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끊임없이 방향하는 저에게 '방황은 하되 방향을 잃지 말라'며 배경지식이 한없이 부족했던 저 덕분에 많은 고민을 같이 해 줬던 김동원 씨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순간, 이곳에서 저보다 훨씬 많은 고민과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수많은 교육자들, 특히 파울루 프레이리를 처음 접하게 되는 분이 있다면, 아무리 뜨거운 날에도 그림자를 드리워 주는 나무 그늘이 반드시 있음을 잊지 마시라고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통해 교육이 사회에 기여하는 무게감과 책임감이 여러분에게 부담감이 아닌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6월 25일

박내현 드림

배움과
나눔을
이끄는

| 우리교육 책들

수업을 왜 하지?

"수업 장면 아홉 개로 읽는 우리 교육!"

산골 분교에서부터 대도시 학교에 이르기까지 찾아다닌 우리 교육 현장의 갖가지 수업 조건과 수업 방법의 사례. '좋은 수업이란 무엇일까?' 하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사의 정체성과 교육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학술 도서
서근원 지음 | 252쪽 | 13,000원

수업, 비평의 눈으로 읽다

"풍요로운 교육 실천을 꿈꾸는 수업 비평!"

수업 장면 열한 개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냉철한 수업 비평. 각각의 수업이 지니는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엿보는 재미를 던져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수업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건넨다.

아침독서 추천 도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학술 도서
이혁규 지음 | 324쪽 | 13,000원

위기의 학교

"우리 교육의 미래에 보내는 경고"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에 멎든 영국 교육개혁의 현주소를 통해 우리 교육정책의 타산지석이 될 진실을 마주한다. 진정한 교육개혁은 시장 체제를 끌어들이거나 경쟁을 조장해서는 달성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한국출판인회의 이 달의 책 선정 도서
아침독서 추천 도서
닉 데이비스 지음 | 이병곤 옮김 | 312쪽 | 13,000원

학교 속의 문맹자들

"학교 속에 가려진 문맹자들이 있다."

문맹 퇴치의 신화에 가려진 '학교 속의 문맹자' 실태와 읽기 부진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길 찾기를 제시한다.

엄훈 지음 | 452쪽 | 18,000원



READING PAULO FREIRE

여전히 강한 생명력을 지닌 파울루 프레이리의 삶과 사상을 만나다

이 책은 20세기를 온전히 살았던 중요한 교육 사상이 파울루 프레이리의 삶과 사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페다고지》를 비롯한 프레이리의 저작은 한국에서도 민중 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다. 피억압자들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실천을 통해 현실을 박차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 프레이리 교육학의 시작과 끝이었다.

이 책을 쓴 모아시르 가도치는 브라질에서 프레이리와 오랜 기간 함께한 동료이자 연구자이다.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저자의 서술을 따라 파울루 프레이리의 삶의 궤적을 엿볼 수 있다. 브라질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 망명 기간, 아프리카에서 전개한 문해 교육의 실천 모습, 다시 브라질로 귀국해 노동자당과 함께하면서 펼쳤던 실천들을 함께 살펴보면, 독자들은 지금 현실 교육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값 13,000원



9 788980 406807

ISBN 978-89-8040-680-7